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 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1월 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24호 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수행법따라 다른 뇌 활용 명상 효과 과학적 입증

김성철 교수팀, '촉각자극분배장치' 연구 결과 발표

다양한 불교 명상 수행법에 대한 깊이와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불교 수행에 대한 효과를 객관적 지표로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불교 명상법에 따라 좌 · 우뇌의 활용이 다르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김성철 동국대 교수 연구팀은 '촉각자극분배장치(Sati-Meter)'를 이용한 명상 중 주의 집중 수준과 결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논문 '명상수련자의 촉각 주의력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11월 25일 열린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이뤄진 이번 연구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융 · 복합 프로젝트로 김진석 응용통계학 교수와 사공정규 정신의학과 교수가 참여하는 등 시작 초기부터 학계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실험에 사용된 '촉각자극분배장치'는 김 교수가 개발, 지난해 특허를 등록했다. 이 장치는 피험자 신체 여러 곳에 진동 모터가 내장된 촉각자극기를 부착한 후 촉각 자극에 대한 주의 집중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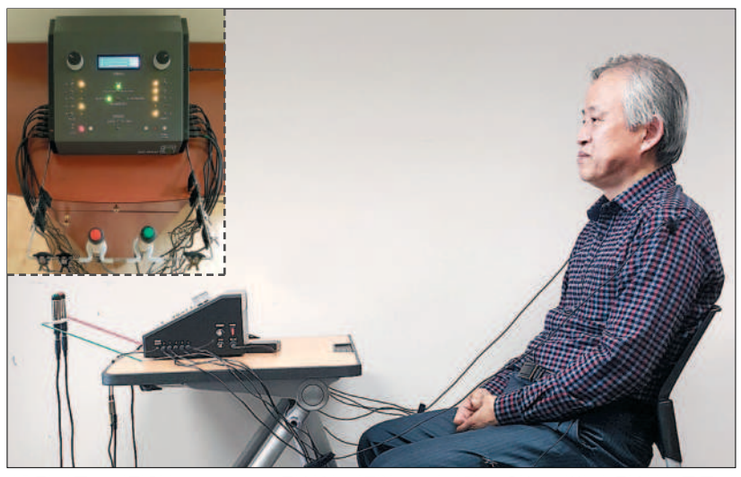
김 교수 연구팀은 이 장치를 기반으로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제작 중인 일반 학생과 학인 스님, 운동선수 등 76명의 실험군을 모집했고, 다시 일반 위빠사나 · 고엔카 수행 · 간화선 · 요가 · 기타 수행 · 사격 · 농구 · 육상 · 일반인으로 대상을 분류해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장치를 통해 자극을 준 개수와 시간을 수량화하여 피험자가 인지한 결과와 비교하고, 인지 능력을 주의 집중 · 산만으로 분류해 주의력 지표를 도출했다.

실험 결과 연구팀은 명상의 종류나 운동의 종목에 따라 신체 좌측과 우측의 촉각 주의력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고엔카 위빠사나 수행 경력자나 사격 선수처럼 정적인 수행이나 운동을 할 경우 신체 좌측의 촉각 주의력이 발달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일반 위빠사나 수행이나 농구 · 육상선수와 같이 동적인 수행과 운영을 할 경우 우측 촉각 주의력이 우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신체 우측은 대뇌의 좌측에서, 신체의 좌측은 대뇌의 우측에서 관장한다"면서 "일반 위빠사나 수행이나 농구와 육상은 촉각의 시간적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동적인 활동으로 좌뇌를 발달시키며, 고엔카 수행이나 사격의 경우 촉각이나 과녁의 공간적 위치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정적인 활동으로 우뇌를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수행법에 따라 신체 발달과 뇌 활용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그간 명상 훈련 과정 중의 깊이나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실제, 수행자가 과정 중 특별한 상황에 직면해도 객관적 파악이 어려워 대부분 수행자의 주관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인드 트레이닝'이라 불리는 명상에는 객관적 지표 설정에 한계가 분명했다.



'촉각자극분배장치(Sati-Meter · 점선안 사진)'를 시험하고 있는 개발자 김성철 동국대 교수. 김 교수는 이 장치를 이용해 수행법과 운동 종목에 따라 뇌 활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입증했다.

김 교수 특허출원한 장치로
수행경험자 · 운동선수 · 일반인 76명 대상으로 실험 진행해
수행 · 운동별 주의능력 차이나

左 고엔카 · 농구선수 높은 수치
右 위빠사나 · 사격선수 우세해
명상법따라 좌 · 우뇌 활용 달라
"주의능력 활성화에 기여 가능"

김 교수는 "주관적 체험인 불교명상의 깊이를 객관적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 실험을 통해 효용성을 입증했다"면서 "성인의 주의력을 측정해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한 최초의 실험이라는 점도 이번 연구의 보람"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험으로 '촉각자극분배장치'에 대한 다양한 활용의 가능성도 확인됐다. 우선적으로 일반인의 주의 능력 활성화와 운동선수들의 훈련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기억장애 · 치매 · ADHD 등의 치료를 위한 활용 연구에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향후 기억장애 · 치매 · ADHD 등의 치료를 위한 '촉각자극분배장치'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를 시작하고 싶다"며 "'촉각자극분배장치'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효능이 입증되면, 이를 널리 보급하는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1월 22일 서울 하월곡동 통리원 3층 무진설법전서 열린 '제 12대 회정 총인 추대 및 제 30대 회성 통리원장 취임법회'에서 진각종도 대표들이 회정 총인(사진 오른쪽)과 회성 통리원장에게 꽃다발 공양을 하며 축하해 주고 있다.

"시대 맞는 전법 · 교화 펼치겠다"

진각종, 12대 총인 추대 및 30대 통리원장 취임법회

대한불교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은 11월 22일 서울 하월곡동 통리원 3층 무진설법전서 '제 12대 회정 총인 추대 및 제 30대 회성 통리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제 12대 회정 총인 추대 의례부터 시작됐다. 회정 정사는 법어를 통해 "모든 부처와 중생들의 본심인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으로 스스로의 자성이 법신임을 깨쳐서, 마음 가운데 자주가 서게 되면 세상의 모든 법을 행하기 쉽다"며 "정심을 세워서 사심을 물리치고 공도를 깨우쳐 사도를 멀리하고 내 허물 먼저 깨달아서 사리사욕을 제어하여 이제는 상호 대립과 투쟁을 지양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제 30대 회성 통리원장 취임 의례서 회성 정사는 "종교 자유시대에는 자기가 종지를 세워야 된다고 회당 대종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주 신행은 자주성을 확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자주성은 주인이 되는 정신이다. 주인은 매사에 당당하면서 스스로의 일에 책임 지는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 신행과 지역사회의 교화를 넘어 우리 시대의 동행인들인 다문화인들도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수행공동체 문화를 가꾸어 시대에 맞는 교화방편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주호영 정각회장,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박근혜 퇴진에 사부대중 결집 '가시화'

스님 촛불집회 참여 확대
출재가 시국회의 출범 예정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범국민적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계도 함께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주목을 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이하 사회노동위)와 조계종종무원조합은 지난 11월 9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12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합류한 데 이어, 11월 26일 '박근혜 퇴진 4차 범국민행동'에도 동참했다. 특히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스님들은 광화문서 법고를 치며 시민행렬단의 의지를 돋웠다.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은 "이번 범국민적 행동은 단순한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라 볼 수 있다"며 "새 공동체문화를 건설하는 이 역사적 현장에 불교계가 빠져선 안 된단 뜻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월 1일엔 승가와 재가가 결합된 '한국사회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수호 범불교시국회의'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이에 앞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8개 불교단체가 포함된 '박근혜 퇴진 5대 종단 운동본부'는 11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서 '박근혜 퇴진을 위한 5대 종단 연합기도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불교계를 대표해 연단에 오른 법현 스님은 "현 정부는 무수한 잘못을 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5000만 국민이 주권자임을 알려줘야 한다. 올바른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11월 18일 고창 선운사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념) 48차 회의서도 '박근혜 퇴진 촉구 성명' 발표에 대한 논의가 열렸다. 장시간 끝에 성명 발표시기와 내용 등을 종단 집행부와 논의키로 하며 성명서 발표는 유보됐지만, 불교계 지도부서 정권 퇴진 및 사태 수습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단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광고는 본사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으며 광고주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차기 종정 추대와 관련,

조계종단 원로스님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제2신

차기 종정 추대와 원로회의 의장단 선출 및 내년 9인 원로의원 보선 문제는 조계종단과 한국불교의 장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지난번 제1차 공개서한에 이어 제2차 공개서한에서는 차기 종정 후보인 월서 전 호계원장과 월서 전 호계원장 문도의 승려들이 승려대회를 통한 종단장악과 치탈(멸빈) 처분 등 승려징계 등의 과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① 94년 4월 10일 승려대회(이하 4 · 10 승려대회로 약칭)에서 비법으로 이루어진 서암 종정 불신임,개혁회의 출범, 종헌기관인 총무원 청사 점령 등 결의를 통한 개혁회의의 종단장악과 분쟁에 연루된 승려치탈(멸빈) 등 징계는 종단 화합법과 분쟁 해결법(종헌 제9조 구족계/승잔법 제10 파승위간계와 칠멸쟁법)위반이자 당시 승니법 제45조〈치탈사유〉 1, 2, 4, 7, 10호 등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따라서 94년 종단사태는 法難이 아니라 宗亂이다.

② 94년 宗亂을 비롯해 98년, 99년 90년대 세 차례에 걸쳐 발생한 종란에 대한 여법한 화합의 치유가 되지 않고는 조계종단과 한국불교의 장래가 없다. 따라서 94년 서암 종정을 불신임과 98년 월하 종정 불신임, 2011년 종교평화 불교인 선언 재가와 관련, 도법스님의 예경실장께 보내는 편지를 통한 법전 종정 공격과 2012년 역시 같은 사안으로 진제종정 불신임 '설' 유포, 호계원장 월서스님과 월서스님 문도는 1962~2000년까지 치탈(멸빈) 총 141명 중 67명(47%), 제적 전체 142명 중 66명 (46%) 등 많은 승려들을 희생시켰다.

③ 94년 종란의 주역들은 종헌 · 종법의 개정을 통해 廢佛反宗행위를 하였다. 예컨대 원로회의「宗團 重要宗策의 調整」,「원로는 원로의원 동의 없이 징계되지 않다」,「원로의원의 종법 안 제출권」삭제, 호법부장과 중앙종회(의원)의 원로의원들 징계협박, 佛戒 中 4바라이죄(淫行, 竊盜, 殺人, 大妄語)를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한 처벌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1, 2, 3항은 출가승단인 조계종의 정체성과 정통성의 파괴이자 廢佛反宗행위이다.

④ 현재 조계종의 최고 실력자는 無所不爲, 無所不在의 권력을 행사하는 자성과 쇄신본부 도법 본부장이다. 도법 본부장의 사숙인 월서 전 호계원장은 차기 종정의 유력한 후보로 뛰고 있다. 만일 월서스님이 종정으로 추대된다면 한 문중에서 사실상 두 인물이 종정의 권위와 지위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은 앞서 1, 2, 3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廢佛과 反宗행위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과오를 저지렀다는 사실이다.

⑤ 승려 역시 사람이므로 잘 못은 저지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위 두 스님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전혀 사죄와 반성의 마음이 전혀 없다. 본인은 성명서와 대화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그렇다면 한 사람 실력자(도법)에게도 종정과 원로들조차 단 한 명의 실력자를 대상으로 그 과오를 지적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물며 위 두 인물이 등장한다면 조계종과 한국불교의 미래는 어찌되겠는가. 이에 월서 전 호계원장과 월서스님 문도의 그 간 廢佛反宗의 과오와 문제점을 지상에 공개하기로 했다.

2016. 11. 25.

德山 園頭 合掌 (대한불교 조계종 전 원로회의 사무처장 겸 서암 전 종정사서실장)

28면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시 강남개발

주민 소환보다 여론 형성 '먼저'

'한전부지 · 강남개발 갈등' 조계종 대응변화 필요

봉은사 인근에 사찰환경 침해가 우려되는 축구장 60개 규모의 초대형 지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유래없는 대규모 사업 진행에 봉은사 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위원장 지현 · 원명, 이하 대책위)가 박원순 서울시장 주민소환운동 등을 대응책으로 추진 중에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범불교 차원의 문제의식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하도시 건립, 봉은사 지반약화 우려

서울시와 국토부는 11월 3일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들어서는 영동대로 일대에 지하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봉은사역과 삼성역 사이에 지하 6층의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면적이 42만㎡에 달한다.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에 강남 대표사찰인 봉은사의 수행환경은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봉은사 총무국장 법원 스님은 "105층의 GBC 건립시 일조량 침해와 빛 반사로 문화재 보존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하 대규모 개발로 인한 사찰환경 피해도 우려된다. 봉은사 신도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관련 개발에 대해 서울시에 항의서한을 보낸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봉은사 일대는 퇴적층으로 이뤄진 연약지반이기에 지질학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프랑스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진행된 '라데팡스'가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해 40년의 연구과정을 거친 것과 달리 봉은사 인근 개발은 불과 1년여 만에 광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제반 연구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주민소환운동 가능할까

현재 조계종은 한전부지 환수 운동과 함께 봉은사 인근 개발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주민소환운동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10월 10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GBC건립 사업 강행 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전개를 결의하는 등 강력 대응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에 봉은사 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는 11월 14일 주민소환운동 전문가를 채용하는 공고를 낸데 이어 24일부터 내부교육에 들어가는 등 관련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주민소환운동은 서명운동과 소환투표

지반침하 등 사찰 환경 피해 우려

주민소환 놓고 불교계 안팎 온도차

"범불교 여론 형성 미흡" 지적도

등에 많은 인원이 동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민 10%가 서명으로 주민소환에 찬성하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주재 하에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다. 여기에서 서울시 인구의 1/3 이상이 참여해 투표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 2007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전국에서 단체장이 해임된 일은 단 한 건도 없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형남 법무법인 신아 대표변호사는 "강대강 대결 국면에서 상생관점에서 가능한 협의점이 사라질 것이 우려된다"며 "주민소환운동을 진행하면 중복서명과 주소지 미기입 등 여러 가지 누락 서명을 고려해 실효가 있으려면 서울시민 중 2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투표과정에서 자칫 불교계가 '어거지를 쓴다'는 국민적 오해와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봉석 대책위 대변인은 "주민소환운동은 현재 졸속으로 진행되는 GBC인허가를 막고, 봉은사 토지에 대한 군부정권의 강탈역사, 그리고 이후 개발의 불법성을 알리는 효과도 있다"며 "당위성이 충분하기에 성공 여부를 속단해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부지환수 등 당위성 홍보 선결 과제

대책위 측은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불교계 안팎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주민소환운동을 앞두고 더욱 더 국민과 서울시민에 대해 당위성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응 스님은 "반강제 수용에 대한 과거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고 종단 주체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봉은사 토지에 대한 환수 운동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종단이 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여론 조성,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심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응 스님은 천성산 단식 당시 단식운동과 함께 정토회 등 불교단체가 지하철 역사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점을 들며 불교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관련된 세미나 개최 · 연구작업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불교계시민사회단체장은 "군부정권 당시 봉은사 토지 매각 과정에 대한 명쾌한 해명부터 있어야 한다. 순수한 명분을 불자대중에게 먼저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해준 대책위 조직팀장는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일은 환수위 초기부터 고민해왔던 일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GBC 등의 개발 인허가가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돼 이를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국민 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천태종, 2017년 예산 377억 원 확정

11월 23일, 제101차 종의회서

천태종의 2017년도 예산이 377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는 11월 23일 단양 구인사 삼보당서 제101차 정기 종의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 총무원 등 집행부와 종단 산하기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종단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의 2017년 예산 총액은 377억300만원이다. 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서울 명락사 전통문화전승센터 건립 등 불사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종의회는 21일 개회 후 총무 · 법제 · 재무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담당기관의 예산안을 검토 · 심의했다.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도원 스님)는 △총무원 총무부 · 교무부 · 교육부 △기획실 · 전산국 △금강신문, 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유정 스님)는 △감사원 △규정부 △사회부 △천태종복지재단 △사단법인 나누며하나되기, 재무분과위원회(위원장 세운 스님)는 △천태종 세입세출 예산안 △천태종 특별 예산안 △재단법인 천태종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등의 예산안을 심의했다.

김주일 기자

本紙, 불기협상 취재 · 특별상 수상

한국불교기자협회, 11월 22일 수상작 발표

본지가 2016년 한국불교기자상 2개 부문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 이하 불기협)는 11월 21일 한국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홍사성 · 불교평론 편집주간) 회의를 거쳐, △선원빈 기자상 △취재보도 부문 △기획 · 해설 부문 △특별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出家
최고의 출가는 '發心출가'… 해답은 '수행'과 '전법'

본지 '출가 자유를 향한 길'과 '연중기획-카드뉴스'는 각각 취재보도 부문 상과 특별상을 차지했다.

심사위원회는 '출가 자유를 향한 길'이 "출가자 감소 시대에 출가 진흥을 고민한 시의적절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연중기획-카드뉴스'는 "불교계 이슈를 그래픽 형식으로 재구성해 보도한 새로운 시도"라고 호평했다.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은 '국립중앙박물과서 홀대받는 국보 반가사유상' 외 연속보도를 쓴 법보신문 남수연 기자에게 돌아갔다. 기획 · 해설 부문 수상작은 BTN 임상재 기자의 '불교, 경제를 품다'로 선정됐다.

이번 심사는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주간, 박경준 동국대 교수, 김택근 前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맡았다.

이에 앞서 불교기자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11월 7일 회의서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 · 남배현 법보신문 산하 모과나무 대표 · 심정섭 법보신문 산하 일일시호일 대표 · 남수연 법보신문 부장을 20주년 근속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은 12월 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보현실서 열린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불교담론 이끌 '불교미래포럼' 공식 출범

11월 21일, 통섭에 수불 스님 정책 · 사회 · 세계화위원회 구성



사회적 현안 해결방법을 불교적으로 모색하고, 한국불교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지식인 결집체가 발족됐다.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는 11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서 '불교미래포럼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불교미래포럼은 불자교수를 필두로 사회전반 각 분야서 활동하는 불자지성인들이 참여한다. 한국불교의제뿐만 아니라 시대 공통 사회이슈, 국가의제 등을 엄선해 적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조직된 교수불자연합회 독립기구다.

포럼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불교정책위원회'와 사회적 역할방안을 모색하는 '불교사회위원회', 한국불교 세계화 및 통불교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불교세계화위원회'로 구성된다. 포럼은 출범 초기 비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이후 정례화 할 예정이다.

상징적인 총재 역할인 '통섭(通攝)'은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추대됐으며, 초대회장은 심익섭 교불련 회장이 맡았다. 각 위원회 위원장은 김성규 영남대 교수(정책위), 김대열 동국대 교수(사회위), 송운석 단국대 교수(세계화위)가 위촉됐다.

심익섭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제 한국불교 최고 지성인들이 불교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는 생각으로 불교미래포럼을 출범시키고자 한다"며 "오늘의 작은 시작으로 지구적으로는 정쟁 없는 인류평화가, 국가적으로는 국정난제가 풀려 갈등을 넘어 신뢰사회로, 한국불교는 답답함을 털어내고 전통적인 불교지혜를 모아 새로운 도전을 찾아나가는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서원한다"고 강조했다.

통섭 수불 스님은 기념법어에서 "지금 한국불교는 안으로는 교세가 위축되고 있으며, 밖으로는 세계화의 거센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면서 "광범위한 지적역량과 보현행원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한국불교의 침체된 현 상황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불교미래포럼 창립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무행정 인재 양성 협력 강화"

조계종 · 동국대 업무협약

종무행정 인재 양성을 위해 조계종과 동국대가 힘을 모은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종호)은 11월 22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총무원과 종무행정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은 인재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종무행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총무원은 교육과정 이수자가 총무원을 비롯한 종단 각 기관 채용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동국대 불교대학 인재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불교대학장 종호 스님과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이 협약을 맺고 있다.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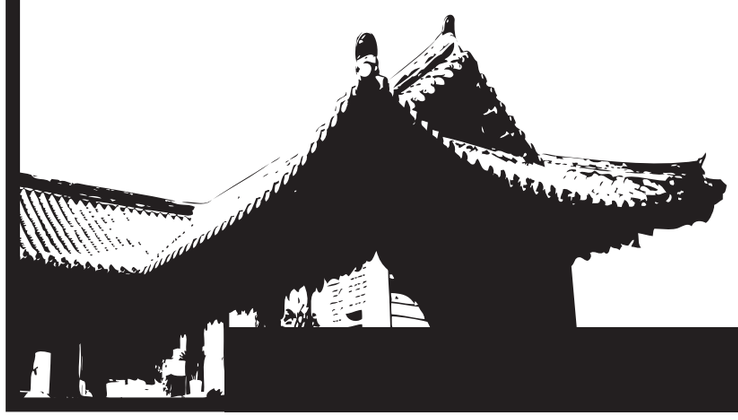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불교 생명존중·탈핵 운동 본격 'Start'

'생명·탈핵 실크로드' 준비단 11월 21일 출범

26개국 순례하며 공감대 형성
달라이라마·교황 등도 접촉
전 세계 445개 핵발전소 감시할
종교인 중심 '국제기구' 창설 목표
조계종 사회노동위 토론회도



이원영 수원대 교수〈사진〉는 '생명·탈핵 실크로드' 대장정에 나선다. 이에 11월 21일 '생명·탈핵 실크로드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공식 출범했다.

지난 11월 19일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서 진앙 2.1규모의 여진이 발생하며 지금까지 총 523회 여진이 기록됐다(11월 22일 기준).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란 말은 옛말, 지진의 강도와 횟수가 높아질수록 진앙인 경주를 중심으로 경상권에 대거 포진된 원전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생명윤리사상에 입각해 탈핵운동을 펼쳐온 불교계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생명·탈핵 실크로드' 대장정에 나선다. 이는 지구촌 종교인들이 함께 2년간 약 26개국 총 1만1000km를 걸으며 탈핵과 생명가치를 전파하는 일이다. 2017년 5월 3일 부처님 오신날 서울 조계사를 출발해 일본-베트남-라오스-미얀마-인도-이란-헝가리-오스트리아-체코-독일-스위스-이태리 등을 거쳐 2019년 4월 21일 부활절, 로마 바티칸에 도착한다.

주안점은 지구촌 곳곳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일이다. 인도 다람살라서 달라이라마를 만나고, 종착지인 바티칸선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탈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탈핵운동을 하며 '우리만 탈핵하면 뭐하나, 중국서 터지면 속수무책인데' 란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단 이 교수는 "탈핵은 한 나라만 잘해선 소용없다. 지구촌 445개 핵발전소 위험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제기구가 있어야한다"며 "종교계가 연합해 그 역할을 해낸다면 지구촌의 안전을 기하는 하나의 유력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앞서 11월 21일 '생명·탈핵 실크로드 준비단(이하 준비단)'이 공식 출범했다. 상임대표는 김영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좌교수(前 산업자원부 장관)가 맡았으며, 김용복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장과 이선종 원불교 천지보은회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원영 교수는 준비팀장이다.

이날 자리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스스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선택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위험한 에너지서 안전한 에너지로, 해로운 에너지서 건강한 에너지로 바꿔 나가자. 지역을 넘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 연대하고 협력하자. 여러분들이 걷는 1만1000km 길이 도시와 도시의 연대를 잇고, 시민과 시민의 협력을 연결하는 길이 될 것"이라 격려했다.

한편 준비단은 내년 5월 출발 전까지 '생명·탈핵 실크로드 100인 위원회(이하 100인 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100인 위원회는 2년 간 대장정을 정신적·기능적·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참여문의는 전화(010-4234-2134) 또는 이메일(leewysu@gmail.com)로 가능하다.

아울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는 11월 21일 '지진은 말한다, 잘가라 핵발전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전 세계 원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원전 개수가 많은 국가부터 차례로 발생했다"며 "다음 사고는 세계 원전 보유 개수 5위인 한국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당장 오늘밤 한국서 원전사고가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스위스·이태리·벨기에·대만·스웨덴은 탈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원자력 의존도를 현재 30%대서 10%대로 낮추고,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27면〉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백우 스님 열반 1주기 기념법회

장흥 청련사, 〈법어집〉 봉정, 부도·탑비·사적비 제막식

천년고찰 청련사는 중창 대작불사를 원만회향하고 인재양성에도 헌신한 前 주지 백우 스님의 열반 1주기를 맞아 11월 19일 〈백우대종사 법어집〉 봉정식과 부도·탑비·사적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원로의원 지허 스님, 총무원장 도산 스님, 중앙종회의장 설운 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이성호 양주시장, 최종남·이종수 교수, 백우대종사 문도회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1부 〈백우대종사 법어집〉 봉정식과 2부 부도·탑비·사적비 제막식으로 나뉘어 개최됐다. 태고종 종정스님을 대신해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법어집 간행 및 부도·탑비 조성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기여한 청련사 주지 해경 스님과 백우문도회 대표 대각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 이종수 순천대 교수, 박한흥 삼보석재 대표, 신원식 중도기획 대표에게도 각각 감사패가 전달됐다.

백우 스님 행장보고에 이어 열반 1주기 기념법회 봉행위원회 사무총장 지홍 스님은 봉행사에서 "스님의 3대원인 도제양성, 후학양성, 총림의 건립은 청련사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새로운 천년을 위한 당면과제이기에 스님의 유훈을 승계해 방일함없이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련사 회주 운경 스님은 '40년 지기' 백우 스님을 먼저 떠나보낸 안타까움을 표하며 두 분만 알고 있는 일화를 소개했다. 스님은 "법난 때 종단 절들을 잇달아 빼앗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서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광화문서 분신(焚身)을 약속하고 계획을 세밀히 세웠는데 정보가 새어나가 결국 소지공양만 올린 오래전 일화가 생각난다"며 "오로지 종단발전을 염원하는 애종심으로 일관한 백우 스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청련사 백우 스님 열반 1주기를 맞아 청련사 대중들이 〈백우대종사 법어집〉을 봉정하고 있다.

보리수요양병원, 스님 전용 병실 등 확충

올해 8월부터 흑자 전환…불사기금 모연 나서



조계종이 운영하는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 보리수요양병원〈사진〉이 스님 전용 병실을 확충하는 등 노인재활과 요양 서비스의 질을 개선에 나선다.

손양호 보리수 요양병원 상임이사는 1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7년 총 15억원의 비용을 들여 스님 전용 병실 2개 층을 증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인에서 40인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스님 전용 병실은 김포 용화사 설법전 상단부에 마련된다. 비구 전용과 비구니 전용 각 1개 층이며 비용 조달은 교계 모금과 신도 희사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리수요양병원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혈액투석을 할 수 있는 15베드 규모의 인공신장실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7년 후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리수요양병원은 현재 136억원 가량의 부채가 있다. 손 이사는 이에 대해 "70억원 정도가 적정부채로 흑자전환을 한 만큼 부채 감소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가사업을 추진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일대에 불교계 사찰과 외부기관의 참여로 분원 설립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양호 이사는 "스님들의 고령화로 인해 암과 재활, 요양병원의 필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종단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임종 개종으로 인한 탈불자 현상에 대한 대안, 불교신도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요양병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선혜품계, 불자 모범 돼 달라"

조계종 신도지도자 지위를 뜻하는 선혜품계에 올해 66명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1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서 '불기 2560년 선혜품계 품서식'을 거행했다. 이날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품수자들에게 "신행혁신의 불자상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품수자들께서 모범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민추본, 영화 '자백' 특별상영회 마련

12월 13일 오후 7시 30분 인디스페이스 영화관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 이하 민추본)는 12월 13일 오후 7시 30분 종로3가 인디스페이스 영화관서 민주본 32차 월례강좌 일환으로 영화 '자백' 특별상영회를 개최한다.

'자백'은 2012년 탈북한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사건을 다룬 실화 다큐멘터리다. 유 씨는 국정원으로부터 간첩혐의를 받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MBC '피디수첩' 출신 최승호 PD가 감독을 맡아 한국, 중국, 일본, 태국 4개국을 넘나들며 40개월간 추적한 끝에 간첩 조작 사건의 실체를 담았다.

다큐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총 62회의 대규모 시사회를 진행하며 전국 각지의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개봉 이후 최승호 감독이 직접 찾아가는 관객과의 대화는 114번이라는 대기록까지 세우며 여전히 흥행 열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민추본 측은 "영화 '자백'서 보여주는 간첩사건 또한 분단이 만든 비극이다. 우리 사회서 분단으로 겪어야하는 소모적 정책과 희생을 조명함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길 바란다"고 특별상영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자백' 특별상영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민추본 회원은 무료, 비회원은 상영료 6,000원을 내면된다.

(02)720-0531 박아름 기자

백용성 대종사 총서
출간 고불식



일시 | 2016년 12월 13일(화) 10:30–
장소 | 법안정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71)
주최 |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주관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 연구소
문의 | 대각회 사무국 : 02-2646-4975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 연구소 :
02-6713-5138
대각사상연구원 : 02-581-3138



한국 근대불교를 대표하는 큰스님인 백용성 대종사님의 유훈을 계승하고 있는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와 백용성 대종사님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하는 대각사상연구원은 금번,
『백용성 대종사 총서』(전 20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백용성 대종사 총서』의 발간은
대각회와 용성문중 스님들 및 한국불교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이에, 제방에 계신 사부대중을 모시고 총서의 출판 기념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성원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혜총
대각사상연구원 원 장 보광

일 주 문



동아시아 도자기 특강

원행 중앙승가대 총장 스님은 11월 21일 중앙승가대 본관 4층 대강당서 학인 · 시민 대상으로 '동아시아의 도자기' 주제 특강을 했다.



제48회 군승의날 기념식

정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스님은 11월 3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국방컨벤션서 '제48주년 군승의날 기념식'을 봉행한다.



불교문화관 · 일주문 낙성

진각 합천 연호사 주지 스님은 11월 20일 경내서 '연호사 불교문화관 전수관 및 일주문 낙성식'을 봉행했다.



행복바라미 확산캠페인

이기흥 (사)날마다좋은날 이사장은 11월 18일부터 전국 300개 사찰에 모금함을 보내 행복바라미 확산 캠페인 모금을 실시한다.



대불련총동문회 송년의 밤

백효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은 12월 25일 오후 4시 공군회관 사파이어홀서 '2016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보조전서〉 한글판, 완성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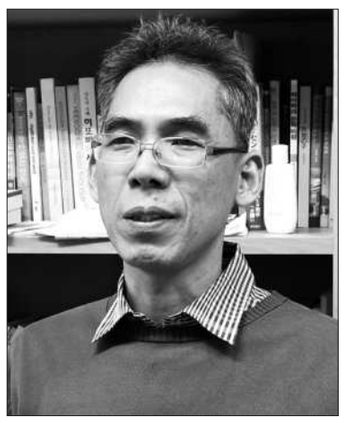
Interview

보조사상연구원 신임원장
김호성 교수

"지금 학교 일뿐만 아니라 한국불교학회 편집위원장도 맡고 있어서 보조사상연구원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추천해주셔서 마음을 냈습니다. 30년의 보조사상연구원이 향후 30년을 위해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겠습니다."

보조사상연구원 신임원장으로 선출된 김호성 동국대 교수〈사진〉는 원장 선출 소감을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보조사상연구원은 11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원장으로 김 교수를 선출했다. 초대회장 故 법정 스님 이후 거의 모든 기간을 원장 소임을 맡았던 법산 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의 뒤를 이어받은 것이다.

사찰 최초 전문 학술연구원인 보조사상연구원이 30년 동안 쉬지 않고 월례발표회와 국내 · 국제 학술대회를 열 수 있던 것은 송광사의 지원과 법산 스님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이를 계승하는 김 교수는 "부담감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보조사상연구원 발전과 보조사상 선양을 위한 여러 계획들을 내놨다.



〈보조전서〉 번역 · 워크숍 등 계획
보조사상 대중화 위한 강좌 추진
院 체질 개선… 발전 기틀 마련도

가장 우선적으로 꼽은 계획은 연구원이 1989년 발간한 〈보조전서〉에 대한 한글 번역본 사업이다. 〈보조전서〉는 김 교수에게도 인연이 깊다. 1987년 연구원 개원 당시 간사로 활동했던 김 교수는 〈보조전서〉 발간 사업에 참여했다.

"〈보조전서〉 발간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이를 통해 불교를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보조전서〉 초역된 것이 있었는데 전문적 교감이 이뤄졌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화엄론 절요〉를 시작으로 다시 텍스트를 점검하고 번역하는 사업을 하려 합니다." 김 교수는 연구원 회원들의 발표 기회를 늘리기 위해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다.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연구 주제를 정해 워크숍을 하 · 동계에 송광사에서 열겠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그간 회원 자유주제의 월례발표와 연 1회 국내 학술대회, 2년 1회 국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관심 주제를 지정한 하 · 동계 워크숍을 개최해 회원들의 발표 기회를 확대하려 합니다. 원효 탄신 1400주년과 연구원 30주년 등 시기에 맞는 학술대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원 운영 시스템도 변화시킬 계획이다. 총무간사와 편집간사 체제를 정립하고, 학회비에 대한 변화도 구상하고 있다. 보조 지눌 스님의 사상 선양이라는 연구원 취지에 맞는 대중 강좌도 계획 중이다. "연구원이 발전하려면 최소한의 수익 순환이 있어야 합니다. 학회비의 변화는 필요하고, 후원 체계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간 연구원 대중강좌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보조 사상 대중화를 위한 '보조학당'을 만들어서 불자와 시민들이 강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곡당 17주기 추모다례재

11월 21일 사부대중 300여명 참석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11월 21일 경내 템플스테이 수련관 육화원서 동곡당 일타 스님 17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엔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주지 돈관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일타 스님의 행적에 이어 "마음 따라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지니 마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육성법문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주불교사암련 공식 출범

회장에 선학원 관음사 주지 원명 스님



영주불교사암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는 11월 22일 (재)선학원 관음사서 창립총회를 열고, 회장에 관음사 주지 원명 스님을 선출했다. 아울러 정관을 심의 · 통과시켜 연합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회원스님들은 결의문을 통해 "위법망구의 각오로 영주불교사암연합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소원정사, '제13회 연꽃상' 시상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는 11월 20일 법당서 '제13회 연꽃향기 자비나눔 및 연꽃상 시상식'을 봉행했다.〈사진 위〉 연꽃상은 신도들이 1년간 가정과 사찰서 사경, 사불을 해 제출한 것을 심사해 격려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 최순덕 불자를 비롯해 최우수상 · 우수상 각 1명, 장려상 3명, 봉사상 등 7명의 불자들이 상장과 상금을 수상했다.

최순덕 불자는 "매일 츰부다라니 사경과 지장보살 사불을 하며 기도했다. 기도한 덕분에 마음 편안한 한 해를 보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원정사는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 쌀 나눔도 함께했다. 나눔에는 신도들이 십시일반 동참해 모은 쌀 7400kg(1300만원 상당)을 빛고을나눔나무, 남구청 사회복지관, 대해노인복지센터, 서구청 등에 전달했다.

주지 도계 스님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모두 부처님이므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여성불자 네트워크 확대 나서자"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16주년 및 원장 이취임식

(사)불교여성개발원은 1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창립 16주년 및 불교여성개발원장 · (사)지혜로운여성 이사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제9대 원장으로 취임한 노숙령 중앙대 명예교수는 취임사를 통해 "각 부처가 지금까지 닦아온 정보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층 더 알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여성불자 네트워크 활성화와 불교문화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년간 불교여성개발원을 이끌어온 박순 제8대 원장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으며, 각 지원장과 센터장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김혁수(20) 씨를 비롯한 대학생불자 3명에게 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그간 수고하신 전임 원장님들을 비롯한 여성불자들이 불교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단 초월해 수행자로 바로 살겠다"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 스님 '해인승가상' 수상



"조계종서 타종단으로 이적한 졸업생 중 해인승가상을 받은 스님은 흔치 않은 것으로 압니다. 종단을 초월해 수행자로서 열심히 살라는 경책으로 알겠습니다." 태고종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 스님〈사진 위 오른쪽〉이 2016 해인승가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는 11월 21일 해인사 관음전서 열린 정기총회서 해인승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법진 스님에게 수여된 해인승가상은 해인승가대학을 빛낸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진 스님은 "동창회원들 중에 유일하게 홍가사를 수하고 총회에 참석하는 저를 한 번도 편애하지 않는 모습을 그동안 지켜보면서 해인승가대학이야말로 겉모습에 차별을 두지 않는 한국불교 최고의 승가대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법진 스님은 태고종 중앙종회의원과 종무원장 등을 두루 거친 중진이다. 한편 법진 스님은 이번에 상금으로 수여받은 100만원을 장학회장 보광 스님에게 장학발전 기금으로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제주 약천사, BBS동요제 대상

박선은 양, 성원 스님 작사곡 불러



제주 약천사(주지 성원)가 11월 19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서 열린 BBS불교방송 '제7회 어린이 · 청소년 창작 찬불동요제'서 대상을 수상했다. 박선은(초5) 양은 주지 성원 스님이 작사한 '혼자 있을 때'를 불러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희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6년 12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부처님 자비사상, 溫情 담아 전합니다”

연말 겨울맞이 불교계 자비나눔행사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과 신도들이 진안지역 홀몸어르신들에게 전달할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 있다. 갑작스런 한파 속에 피어난 밝은 미소에서 훈훈함이 느껴진다.

올해 겨울은 여느 해보다 비교적 늦게 돌아왔다. 하지만 초입부터 맹추위를 동반해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하고, 추수로 풍요롭던 마음은 어느덧 차갑게 식었다. 이런 때일수록 긴긴 겨울을 나기 위한 난방과 먹을거리를 잘 준비해야 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이들에겐 혹독한 계절이 되고 만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불제자들이 나섰다. 김장이면 김장, 연탄이면 연탄,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겨울나기를 돕고자 각 지역서 관세음보살의 손길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담았다.

먼저 진안불교계는 이웃종교인들과 함께 김장을 담가 지역사회 홀몸어르신을 비롯한 저소득층 가구에 온정을 선물했다.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 **쌍봉사**(주지 보경) · **고림사**(주지 성목)는 11월 23일 진안군청 광장서 열린 ‘2016 진안고원 김장대축제’에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안군 종교계 등 30여개의 기관 · 단체가 참가했다. 불교계는 탑사 주지 진성 스님과 총무 정해 스님, 나누우리봉사단,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과 섬김봉사단, 고림사 주지 성목 스님과 봉사단 등 50여 명이 동참해 정성껏 김장을 담갔다.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진성 스님은 “4대 종단을 비롯한 봉사자들의 김장나눔 현장에 나누우리봉사단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동참하게 됐다”며 “갑작스레 찾아온 쌀쌀한 날씨에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을 마친 진성 스님과 보경 스님, 불자들은 진안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한 저소득 가구를 방문해 직접 김장을 전달하고,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어려운 점이 없는지 살폈다. 이날 불교계가 이웃종교와 함께 담근 김장은 총 3200포기로 1000여 가구에 전달됐다. 이 중 3분의 1을 불교계가 맡았다.

홍정자(57 · 마령면) 불자는 “그동안 나누우리 봉사단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봉사에 참여해왔다”며 “겨울은 누구에게나 힘든 계절이지만 형편이 좋지 못한 이들에겐 더욱 고된 만큼 다른 봉사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찰 김장부터 복지관 연탄 후원까지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자비행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김장 외에 별도로 털목도리를 마련해 홀몸어르신들에게 선물했다. 보경 스님은 “자원봉사는 곧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길이기에 되도록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 노력한다”면서 “무엇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신도들이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김장행사에 앞서 진안군청 강당서 열린 진안지역 자원봉사의날 기념식에서는 나누우리봉사단 홍정자 불자와 쌍봉사 강진희 불자, 고림사 김춘희 불자가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원봉사센터장상을 수상했다.

강진희(35 · 진안읍) 불자는 “그동안 직장생활이 바빠 봉사활동에 자주 참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상을 받게 돼 한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 “더 열심히 봉사에 임하라는 경책으로 받아들여 모범 봉사자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신도들과 함께 해마다 소외이웃에게 수천 장의 연탄을 전달하는 연탄나눔운동을 펼치고 있어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마이산 탑사는 인천, 대구, 전주, 부산지역의 나누우리 분원을 통해 자비의 쌀, 사랑의 연료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는 26일 1년 동안 먹을 김장 1만 포기를 담그고, 이 중 2,400kg은 지역 소외계층에게 나눴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지역 주요인사와 신도들이 대거 참여, ‘지역축제’ 분위기 속에서 김칫소를 만들고 배추를 버무렸다. 김장을 마친 뒤에는 홀몸어르신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금강종 서울 도봉구 서원암(주지 정심)은 11월 3~26일까지 수백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김장 2만3000kg를 담가 지역사회에 나눴다. 서원암은 도봉구에 10kg 2000박스를 전달했으며, 300박스는 자체적으로 소외이웃을 선정해 후원했다. 한편 서원암은 30여 년간 김장을 담가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사찰 외에 불교계 복지관 역시 저소득층 월동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 불교계 복지관 · 단체 나눔행사 일정

기관명	날 짜	행사내용	연락처
서울복지원	11/30	김장나눔	(02)763-0054
성북장애인복지관	12/2 12/28	김장나눔 연탄나눔	(02)915-9200
능인종합복지관	12/3	연탄나눔	(02)571-2988
송파복지센터	12/7~8	김장 · 난방용품 지원	(02)409-1616
수락양로원	12/8	김장나눔	(02)939-6176
과천종합복지관	12/8	김장나눔	(02)507-6319
생명나눔실천본부	12/12	백사마을 연탄나눔	(02)734-8050
영등포보현의집	12월 초	연탄나눔	(02)2069-1600
옥수재가노인센터	12월 초	난방용품 지원	(02)2282-1118
중림종합복지관	12/15	겨울용품 나눔	(02)362-3348
철산종합복지관	12월 내내	김장 · 난방용품 · 난방비 지원	(02)2617-0410
본동종합복지관	12월 내내	김장 · 난방용품 지원	(02)817-8052
대한불교청년회	12월 중	연탄나눔	(02)738-1920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운희)은 11월 18일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임직원들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임직원들은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80가정에 김치를 직접 포장 및 배달했다. 남은 김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오쿠시니 테츠야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대표는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참여했다. 임직원들과 앞으로 지속적인 지역 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월곡종합사회복지관(관장 길정수)은 11월 9일 우리은행 월곡동지점과 연계,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장바구니 전달 행사 ‘해피브릿지’를 개최했다. 이날 우리은행 봉사팀은 김치 · 쌀 · 생필품 등을 장바구니로 꾸려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전달했다.

장바구니를 전달받은 어르신은 “혼자 있어 더 추위를 느끼는데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와서 정말 좋다. 손에 뭘 들고 오지 않아도 좋으니 자주 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은 11월 19일 한국투자공사(사장 은성수) 임직원 30명과 함께 장애 독거 노인가정에 연탄 총 8000장을 후원했다. 한국투자공사와 성북장애인복지관은 2014년 협약을 체결하고 1년에 4차례 저소득 가정에 도배봉사와 연탄배달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불교계 복지관들이 김장 · 연탄나눔과 바자회 등을 개최,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비나눔활동을 전개했다.

이승희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진 왼쪽부터 ①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이 직접 마련한 털목도리를 어르신에게 선물하고 있다. ②마이산 탑사 총무 정해 스님이 어르신에게 김장을 전달하는 모습. ③성북장애인복지관의 연탄나눔. ④생필품 장바구니를 선물한 월곡종합사회복지관 ‘해피브릿지’

깨달음수행법의 고통해탈문인
진귀 수인(手印) 수행법



고통해탈과 깨달음을 향한.....
진귀방장의 특별한
수인(手印) 수행법을 한국불교 수행역사상
최초로 근기별, 병통별, 단계별, 날자별로 정리된
수행법을 공개합니다.



※ 위 사진은 실제 진귀 수인 수행법과는 다릅니다.

▶수행법 수강문의 : 1899-9532

늘 세상과 함께
깨달음山門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20살 파라미타, 사찰연계로 포교 극대화

11월 20일 창립 20주년 기념식서 비전 발표
초교분회 100곳 확대 · 국제교류 활성화 계획


1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린 파라미타 창립 20주년 기념식. 회장 심산 스님과 청소년 표창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96년 조계종단이 청소년포교를 위해 대중공의를 모아 출범시킨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20주년을 맞았다. 이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중장기 전략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단체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 이하 파라미타)는 1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파라미타 점핑(Paramita Jumping)'이라는 기치의 비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파라미타는 △학교분회 · 사찰연계를 통한 청소년포교 동반성장 △현재 23곳인 초교분회를 2026년까지 100곳으로 확대 △전국 교원대학에 파라미타 대학생 그룹 마련 △2017년 국제불교청소년캠프를 시작으로 국제교류 활성화 △과제완수를 통한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 등을 실천할 계획이다.

이날 회장 심산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1996년 종단 내외 지지로 1만 명 회원, 158곳의 학교와 사찰분회로 시작한 파라미타가 현재 552곳의 분회로 확대 · 성장했다"면서 "20년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파라미타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 궁극적으로 자신이 삶의 주인임을 인식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현재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입시위주 경쟁 등으로 청소년포교가 열악한 환경에 처했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는 조직 기반을 구축하고 내실을 다졌다. 앞으로 제방의 스님과 지도자들,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단체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라미타 총재 지홍 스님(포교원장)은 "파라미타의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은 임직원과 지도자 모두의 공덕이라 할 수 있다"며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보고 배우는 청소년은 늘어날 것이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또한 청소년들의 가슴에 널리 퍼질 것"이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외에도 아시아불교도협회 이사장 우시오 닛슈 스님과 함종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이 파라미타의 20주년을 축하하며,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파라미타는 이어 각 분야별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으로는 △국제교류-선업 스님(통담선원) △명상지도-도명 스님(여여정사) △의료봉사-성낙진 동국대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심성개발-유승호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교수 △청소년단체 · 시설운영-조달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청소년사경 신행-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 명예회장 △청소년전통등 연구-전영일 전통등연구회 명장 △신행활동-박영동 동대부초중고 수석교법사 △법인관리-이점수 법무사 등이 위촉됐다.

아울러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을 비롯한 공로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하고, 지역별 지도자와 청소년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또 고은 시인이 작사한 기존 '파라미타의 노래'를 이하윤(오남고 3) 학생이 재녹음하고, 동대부여고 파라미타 학생들이 율동을 만들어 새롭게 발표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2부 '행복 나눔 힐링콘서트'를 열고, 동국대부여고 댄스팀과 BBS 제7회 찬불동요제 대상 수상팀, M-Virus 재즈음악밴드 공연을 대중에게 선보였다. 행사에는 중앙임원과 지역별 임원,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파라미타는 1995년 9월 불교청소년의 해 지정과 12월 한국불교청소년지도자대회에 이어 1996년 3월 창립했다.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라는 표어 아래 1문화재 1지킴이 · 문화재 모니터 · 우리역사 바로알기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 건강지킴이 · 국제교류 · 문화축제 · 연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올해 복지관 빛낸 주인공 한자리에

종로노인복지관, 11월 24일 자원봉사자 · 후원자 송년모임


11월 24일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수상자들.

1년 동안 자비나눔행으로 복지관을 빛낸 주인공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이하 종로노인복지관)은 11월 24일 종로 서울극장서 '2016 자원봉사자 · 후원자 송년모임 좋은인연'을 개최했다.

이날 우수 자원봉사자 · 후원자 표창식선 △한국마사회 종로 문화공감센터(국회의원상) △현대건설, 신한은행, 한국귀금속연합회 박승관(종로구청장상) △향기소리, 조용숙(조계사주지스님상) △염불사 주지 향림 스님, 문정대(종로구의장상) △정석진, 시립대학교, 대신고등학교(종로노인종합복지관상)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정희(54) 신한은행 여신관리부 차장은 "매주 2번 종로노인복지관서 활동한다. 어르신 뿐만 아니라 동료 봉사자들 또한 편할 수 있도록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어르신 바둑 · 장기 으뜸왕 '탄생'

11월 21일 서울시 어르신 바둑장기 대회


11월 21일 '제2회 서울시 어르신 바둑장기 으뜸왕대회' 수상자들.

서울시 어르신들이 진검승부를 펼쳐 바둑 · 장기 으뜸왕을 가렸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가 서울시 시민청 태평홀서 주최한 '제2회 서울시 어르신 바둑장기 으뜸왕대회'가 11월 21일 성료했다. 이날 서울시 소재 복지관을 대표하는 128명 어르신들은 총 2시간 동안 치른 예선 3국을 거쳐 우승자를 뽑았다.

바둑부문 우승은 서종천(서울노인복지센터) 씨가 차지했다. 이어 준우승에 윤경섭(용산노인종합복지관) 씨, 3위와 4위는 각각 김병가(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 염문태(성북노인종합복지관) 씨가 올랐다.

장기부문은 서울노인복지센터가 휩쓸었다. 우승자 최화남 씨를 비롯해 신영석(준우승) · 김명춘(3위) · 송호성(4위) 모두 서울노인복지센터 바둑장기 동료다.

한편 대회가 진행되는 태평홀 앞 로비선 서울시와 서울노인복지센터가 협력한 종묘 · 탑골공원 일대를 어르신문화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홍보부스가 열렸다.

희유 스님은 "이번 대회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즐긴 축제의 자리였다"며 "앞으로 종묘 · 탑골공원 어르신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과 노인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김흥국장학재단, 초등생 20명 등 장학금

불타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00년 설립된 김흥국장학재단이 17년째 장학금을 지원한다.

김흥국장학재단(이사장 김흥국)은 12월 3일 서울 이태원동 북경요리점 마오서 '제17회 김흥국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연다. 이 자리서 초등학생 20명과 원로가수 2인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흥국장학재단은 올해까지 초등학생 179명과 원로가수 1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흥국 이사장은 "근래 들어 장학금대상자가 2배가량 늘었다.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오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주신 덕분"이라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시간이 흘러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마음씨를 갖출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수용자 佛性의 싹 틔워주길"

조계종 교정교화전법단
11월 19일 3차 결집대회


조계종 교정교화전법단 결집대회에 참여한 사부대중이 수용자 교정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삼귀의를 올리고 있다.

전국 각 교도소 및 구치소를 돌며 수용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사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 교정교화전법단(단장 혜원)은 11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3차 결집대회를 개최하고, 수용자들의 교화에 헌신한 모범 불자들을 표창했다.

1부 개회식서 교정교화전법단장 혜원 스님은 총무원장상을 수상했으며, 각지에서 교정포교를 펼치고 있는 최성환(밀양구치소) · 김혜은(여주교도소) · 진영순(성동구치소) 씨와 모범 교정인 차종춘(춘천교도소 교위) · 고명원(서울구치소 교사) 씨가 포교원장상을 받았다. 아울러 전법단을 후원하는 김승희 · 김성주 씨는 단장상에 선정됐다.

이날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치사를 통해 "스님이나 사찰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활동 중 하나가 교정교화포교다. 재소자에 대한 비호감도 작용하겠지만 물질적 지원에 비해 성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재소자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전법단 활동으로 그들의 양심과 지혜의 본성을 깨우쳐주기만 한다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새 출발할 수 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단장 혜원 스님은 "교정교화전법단이 출범한지 만 5년 됐다. 1995년부터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전법단 결성에 반신반의 했지만 이제는 큰 힘이 된다는 걸 많이 느낀다"면서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듯이 불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자비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단원들을 격려했다.

안성수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부회장은 "부처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교정교화전법단이 앞으로도 수용자 교화에 큰 역할을 맡아주시리라 믿는다"며 "3500여 교정인불자들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정교화전법단은 한길 정보통신학교(제주 소년원)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개회식 후에는 2부 정목 스님 특강과 3부 '교정교화분야 활성화 방안' 주제 워크숍 등을 진행했다. **윤호섭 기자**

법우들과 스키 타며 우의 다져요"

불교스카우트, '화랑 스키캠프' 참가자 모집

조계종 포교원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이 겨울 스키캠프를 연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내년 1월 12~14일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서 '제4회 화랑 청소년 인성함양 스키캠프'를 개최한다. 1일차 입재식을 시작으로 △안전교육 및 수준 분류 △스키 및 보드 강습 △예불 △자유스키 등이 진행된다.

어린이 · 청소년법회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2월 2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희망 사찰은 이메일(bskyeo@hanmail.net) 또는 팩스(02-722-9034)로 신청서 접수 후 참가비 자부담 1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스키복 · 장갑 · 고글 · 여벌옷 등은 개인 지참하고, 현장 대여 시 별도 부담해야 한다.

연맹 측은 "어린이 · 청소년들이 흰 눈과 별빛의 어우러짐 속에서 정서를 순화하고, 스키를 통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자리"라며 "특히 청소년 인성개발과 사찰 법우들 간 우의를 다져 청소년 포교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연인원 7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오후 3시 30분 (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 산 본 원 010-2554-8100
· 울 산 지 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청소년 심신수양을 위한 템플스테이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50회 화랑수련회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언 제 2016년 12월 25일 ~ 2017년 1월 14일
모집인원 60명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교. 토요일 12시 퇴교
대 상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운영)
준비물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방한모, 방한장갑, 목도리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수련회비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예약 문의 054-775-1689 / 744-1689
www.sunmudo.com
♣ 수료식은 골굴사 선무도 대학에서 토요일 11시에 진행합니다.

※ 기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불교강의, 108배
※ 영 어 캠 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영어캠프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 매주 색다른 경주문화유산 탐방 : 감은사지, 문무대왕릉, 기림사, 경주국립박물관
양남 주상절리길 및 감포깍지길 탐방
※ 자 아 성 찰 : 자비관 명상, 자자회, 자기바라보기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학교

베푸는 삶은 주변을 변화시켜… '연기법' 때문

참불선원 인문학강좌… 현대사회와 불교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현대사회는 혼란스럽다. 극단적 보수주의와 고립주의가 국가와 대륙을 갈라놓고, 개인의 풍요를 앗아간다. 국내 정세도 심상치 않다. 연일 최대 규모를 경신하는 촛불집회 소식과 길을 잃은 정치수뇌부의 대립은 멈출 줄 모른다.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은 11월 21일 참불선원 인문학강좌를 통해 정보화 혁명까지 인류 혁명의 역사를 살펴보고, 현 국제정세가 위태롭다며 "부처님 자비심으로 이웃을 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시행으로 하나된 사회를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부처님의 지혜를 빌린 그의 말을 들어보자.

정리=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은… 1960년 부산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영문학 학사와 同大 정책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동국대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를 수료했다. 前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와 경영본부장을 지냈다. 2015년부터 제9대 BBS불교방송 사장을 맡고 있다.

혼란스런 국내외 정세

불교방송은 1990년 5월 1일 설립부터 사회에 부처님 법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사회적 현상을 부처님 시각서 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부처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히브리대 교수는 저작 〈사피엔스〉에서 지구 역사 48억만년 동안 여러 종류의 영장류가 존재해오다 마지막으로 남은 종족이 호모 사피엔스(지혜가 있는 사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호모 사피엔스 인류사의 역사를 결정 지은 3가지 혁명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 혁명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다른 종족과 달리 불을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또 도구와 언어를 사용해 서로 소통하고 협동이 가능했지요. 신체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이나 호모 에렉투스 등 다른 영장류보다 왜소했지만 적이 나타나면 협력해서 대항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들이 대규모 협력을 통해 국가나 종교 같은 가상의 공동체를 만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 혁명입니다. 수만 년 원시인 생활을 지나 약 1만 년 전부터 인간은 경작을 시작했습니다. 재밌게도 하라리 교수는 농업 혁명을 '역사상 최대의 사기'로 바라봤습니다. 농업 혁명이 가져다준 인구폭발이 오히려 인간의 삶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곡물에 편중된 영양섭취 문제와 과잉인구를 부역하기 위해 각종 인구통제 수단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과학 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은 더욱 유연해지고 탐구적 성향을 띠게 됐습니다. 특히 지식을 선(善)으로 믿고 자본 · 과학 · 경제 · 정치가 합쳐지면서 인간의 힘은 무한해졌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류는 현재 정보화 혁명을 통해 새로운 문화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이 이러한 변동의 특징입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따라 자본주의가 전세계를 휩쓸면서 부의 편중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부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반발로 20세기 공산주의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소련의 몰락과 함께 역사에서 힘을 잃었지요.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자본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굳혔고 극단적 보수주의와 고립주의가 힘을 얻게 됐습니다. 유럽에 난민이 쏟아지고, 미국 내 중남미계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현재 백인 중산층 몰락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 브렉시트 사태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도 이런 극단적 보수주의와 고립주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또한 이런 보수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요? 북한 핵 미사일로 안보는 위협을 받고 국제 질서 재편의 길에서 우왕좌왕 하는데, 국내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갑니다. 거기다 심각한 저출산과 높은 빈곤율 등 산재한 문제를 해결할 지도부의 능력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연기법 세상… '보시행'이 답

사방이 혼돈스런 현재, 우리 사회엔 부처님의 지혜가 절실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 새겨들어야 할 말씀들을 떠올리고, 응용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복잡한 역사와 이해관계에 얽힌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우리 안의 불성을 깨닫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초기불교에선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 등으로 전해졌고, 이후 공(空) 사상, 금강경, 유식사상, 여래장 사상 등 대승불교로 발전했습니다. 원효스님께서 유식과 여래장을 통합한 일심(一心) 사상과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를 주장한 이래 불자들은 내 안에 존재하는 불성에 대해 각성하는 법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인 삶에 대비해 봤을 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을 초기불교 팔정도와 대승불교 화엄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팔정도는 고통의 원인인 탐(貪) · 진(瞋) · 치(痴)를 없애고 중도를 실현하기 위한 8가지 덕목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정견(正見, 바른 견해) · 정사유(正思惟, 바른 의사) · 정어(正語, 바른 언어적 행위) · 정업(正業, 바른 신체적 행위) · 정명(正命, 바른 생활) · 정정진(正精進, 바른 노력) · 정념(正念, 바른 의식) · 정정(正定, 정신통일)이 이들입니다.

극단적 보수 · 고립주의로
세계는 지금 '갈등만연'
인연법 이해한 불자라면
공동체 위한 보시행 전해야

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땐 연기법과 상호의존성을 통해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동체 자유주의란 개념을 소개합니다. 공동체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역사공동체 · 사회공동체 · 자연공동체 가치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영국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이론은 인간을 전적으로 합리적이고 선한 존재로 봅니다. 번 돈을 모두 건전한 재투자를 위해 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의 자유는 좋지만, 항상 결과물이 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바라밀의 보시행을 떠올리면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펼쳐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져 인간가치가 떨어지는 미래 사회에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는 '연기적 자유주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연기적 자유주의에선 개인이 모두 부처님임을 깨닫고 연기법대로 행동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사회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이라마의 지혜

저는 11월 17일 달라이라마 요코하마 특별 법회를 듣고 왔습니다. 달라이라마는 현대 사회에서 '배려'하는 마음이 행복으로 가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인간의 성장요소에 자비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자비와 사랑이 있다는 여래장 사상을 말한거지요. 그러면서 현대교육은 물질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내면의 가치를 어떻게 함양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탐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항상 베푸는 삶을 유지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결국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이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달라이라마는 청중들과 즉문즉답의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재밌는 질문과 답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Q.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이 후퇴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의 노력으로 세상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A. 어려운 상황일수록 항상 상황 전체를 넓게 봐야 한다. 트럼프 당선에 대해 부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봐야 한다. 21세기 변화들은 이전 시대의 부정적 변화서 온 것이니 희망을 가져야 한다.

Q. 불법을 알아도 항상 실천이 어렵다.

A. 마음 번뇌가 일어나면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실천이 어렵다. 번뇌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없애야 한다. 가르침을 듣고 얻는 문혜(聞慧), 이치를 사유하며 얻는 사혜(思慧), 수행으로 얻는 수혜(修慧)를 이행해야 한다.

21세기에 걸맞는 불자는 전통 · 형식 · 의례적인 것에서 벗어나 부처님 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Q. 곧잘 화가 나는데, 나는 자비심이 없는 건가?

A. 처음엔 쉽지 않지만, 자비심을 키우는 것도 습관이다. 이해 뿐만 아니라 경험과 체득이 있을 때 자비심이 일어난다. 정신적 생활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 발달시켜라.

Q. 폭력과 비폭력은 어떻게 구분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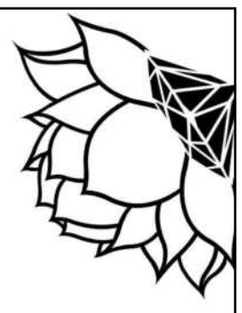
A. 이는 마음의 동기에 달렸다. 타인의 악한 행동을 막기 위해 해를 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염려하는 동기에서 나온 행동이기에 폭력이라 말하기 어렵다. 반대로 웃는 얼굴로 선물을 줘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면 이는 궁극적으로 남을 해치는 폭력행위다.

Q.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A.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 좋게 기여하길 바란다. 오늘 내가 한 좋은 말들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면 이웃에게 전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전하지 말길 당부한다.

청견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다르마킹칼리지(절수행교육)

◎ 완벽한 :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알아차림, 감사염송법 텅빈 고요 삼매체험
◎ 순간 찰라 번뇌 망상, 잡생각 싹 끊는 비전
◎ 순간 찰라 마음이 크고 넓고 높게 큰마음 되는 비전
◎ 저절로 자동단전복식호흡의 비전
◎ 우주 태양+지구 땅의 기운 초고속 충전 비전
◎ 순수의식 참마음 참나 불성 초견성 비전

※ 상기 교육 마스터한 수행자에겐
◎ 스트레스와 부정적 맘으로 자율신경 무너져 심장 쿵쿵 뛰고 숨은 거칠고 공격홀몬 쏟아져 온몸 지배하는 병불행지옥 순간을 극복하는 지혜의 비전(10초~20초)
◎ 신명나는 인류최고의 가장 쉽고 온전한 빠른 요지부동 와선명상삼매를 체험케 함

절교육일정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 ~ 3시30분 (1일 3명 예약)
(깨달은 절수행이란? 책 읽고 홈페이지 참고하고 동참 요망)
절교육대상 : 상위 1% 수험생, 고시생, 명문대생, 한의사, 연구원, 벤처 CEO, IT연구원 예술인, 특별 우선 교육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신지2리 1101-1)
문 의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깨달은공동체 법왕정사 한불수행문화연구소

(사)대한불교약사여래종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 재등록 신청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종단 종도 여러분의 사암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은 명의변경과 총무원 이전으로 인한 종단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의 종도로서 단합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한내에 재등록하시어 사암의 주지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접수기간 : **2016년 12월 1일 부터 ~ 2017년 1월 31일 까지**
■ 구비서류 : 본 종단 승려분한 신고 및 사찰 재등록 신청서 ——— 각 1부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 1부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이력서 ——— 각 1부
증명사진 (3매)
■ 접 수 처 : (사)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
대전 중구 태평로 93번길 12-1 (태평동 379-8번지) 총본산 해동선원
■ 문 의 : 전화 042)222-5544 (팩스 겸용)

※ 본 종단의 적극적인 불법홍포와 중생구제에 동참을 원하시는 스님(교임, 전법사)들을 환영합니다※

(사)대한불교약사여래종

학술단신

알라야식 이론 집중 논의

동국대 불교문화硏, 19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불교 유가행파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인문한국(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11월 19일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마음과 의식-알라야식의 이해'를 주제로 2016년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안혜 · 법칭 · 롱솜빠 · 원효 등 인도와 티베트, 한국 불교의 논사들의 알라야식 이해를 다뤘다. 주요 학자로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도르지 왕축, 마틴 델하이 교수와 프랑스 고등연구원의 빈센트 엘칭거 교수 등 해외 석학과 이수미 동국대 교수, 김성철 금강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알라야식은 인도 유가행파의 대표적 이론으로 개인 존재의 깊은 곳의 잠재의식이다. 이 개념은 인도뿐 아니라 티베트, 동아시아 불교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개념이라고 평가받는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은 11월 19일 '마음과 의식-알라야식의 이해'를 주제로 2016년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中영명연수 선사 조명한다

한국선학회, 12월 3일 추계학술대회

선교일치(禪敎一致)로 중국과 한국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줬던 중국의 영명연수(永明延壽, 904~975)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는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과 함께 12월 3일 오후 1시부터 연세대 광복관 별관에서 '영명연수-돈오 · 견성 · 무심'을 주제로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세계 불교학계에서 관련 연구의 선봉에 있는 젊은 학자들이 대거 발제를 맡는다. 웨이다오루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교수는 '성철과 연수의 선사상 동이(同異)'를, 손징송 중국 무한대학 국학원 교수는 '영명연수의 불성설(佛性設)'을, 야나키 미키야스 일본 하나조노대학 국제선학연구소 전임강사는 '영명연수의 돈오돈수'를, 박인석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는 '영명연수의 무심론'을 각각 발표한다. 신성민 기자

국내 인도 명상공동체 현황은?

조계종 불교사회硏, 11월 30일 세미나

국내 인도 명상공동체 현황을 살피는 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11월 30일 템플스테이통합센터 3층 보현실에서 '국내 인도 명상공동체의 현황과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인모 현대액티브힐링 명상센터 지도자가 '과학과 종교 사이, 오쇼 명상의 길'을, 인도 비하르 요가대학에서 공부한 문영희 씨가 '스와미 쉬바난다 전통을 계승해온 한국 사띠아난다요가 아쉬람'을, 이정수 담마코리아 지도법사가 '담마코리아는 재가 수행공동체인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신성민 기자

일제시기 관촉사 엽서, '슬픈 근대'를 담다

홍은미 연구부장 '관촉사 문화유산' 세미나서 조명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한국에 산재한 문화유적에 대한 다양한 사진 엽서를 남겼다. 이들 엽서는 과거 한국 주요 사찰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하지만 이들 엽서가 식민지 지배층인 일본이 한국 문화유적들을 관광상품 · 물신화 하려는 근대적 욕망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은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원 연구부장은 11월 20일 '논산 관촉사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열린 은진미륵불 1010주년 학술대회에서 관촉사의 일제강점기 사진엽서를 분석하며 "일제에 의해 타자화돼 기록된 이미지"라고 주장했다.

홍 연구부장은 관광의 개념은 서구 유럽에서 시작됐고, 여행지 풍경이 담긴 사진엽서는 대표적 관광기념품으로 자리잡았고, 관광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음을 전제하고, 근대를 맞은 한반도에서도 시작된 관광은 일제에 의해 계획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홍 연구부장에 따르면 이런 관광은 1900년대 철도가 부분적으로 개통되고, 1910년대 승합차 이용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며 가능해졌다. 실제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매일신보〉 〈동아일보〉 〈자유신문〉 등에는 관촉사에 대한 광고나 기사가 실린다.

1916년 9월 23일자 〈매일신보〉에는 논산 관촉사 미륵보승회에서는 미륵대재를 거행하는데 임시열차를 운행하고, 열차 요금을 반액으로 할인해줄 것이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1921년 9월 21일 기사에서는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관촉사 참배하고 명승지를 탐방했다는 기사도 기록돼 있다. 또한 논산군과 〈매일신보〉논산지국은 관촉사 참배를 진작시키기 위해 관람회를 조직하기까지 했다는 사실도 이 시기 기사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일제강점기, 관광 본격화되며
사찰 등 유적 사진엽서 발행
지배세력의해 재현된 이미지
"관광상품 · 물신화 과정 보여"

홍 연구부장은 "식민지 조선에서 관촉사 참배와 관광은 1917년부터 고조되기 시작했고, 조선총독부와 철도국, 관광협회는 명승지유람단을 위한 편의 제공과 관광지도, 사진엽서, 스탬프 등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민지 조선에 대한 관광상품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이라며 "조선탐방의 내용을 결정짓고, 사진엽서를 제작하는 주체는 일본제국이었으며, 이 모든 것은 지배권력의 통제범위 안에 마땅히 들어가야 하는 문화산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대 관촉사 사진엽서 이미지와 식민지 조선 이미지는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 속에서 만들어진 타자화된 이미지임을 재차 강조했다.

홍 연구부장은 "관광엽서와 기념사진을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산물이라고 단순히 정의내려서는 안 된다. 관광 엽서와 사진 등이 우리 근대문화를 주도한 것을 사실이지만 전통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면서 "일제에 의해 소비되고 재생산된 이미지는 또 다른 문화권력의 밑받침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대 관촉사의 이미지는 사진엽서라는 시각적 소유를 통해 물신화, 상품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식민지에 대한 은유로 타자화된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규순 대한풍수연구원장의 '관촉사의 풍수적 입지 특성'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의 '논산 관촉사 석불의 시기별 존명(尊名) 인식의 변천' △김정원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의 '논산 관촉사 사적비 연구'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景金寺燭灌山柴盛山論綠南詞華慧
논산 관촉사의 이미지를 담은 근대 시기 엽서. 이 같은 엽서는 일제가 주도한 관광산업이 본격화되면서 만들어진 상품으로 소비됐다. 사진제공= 동북아불교미술연구원

"금강경에는 '無諍의 진리'가 담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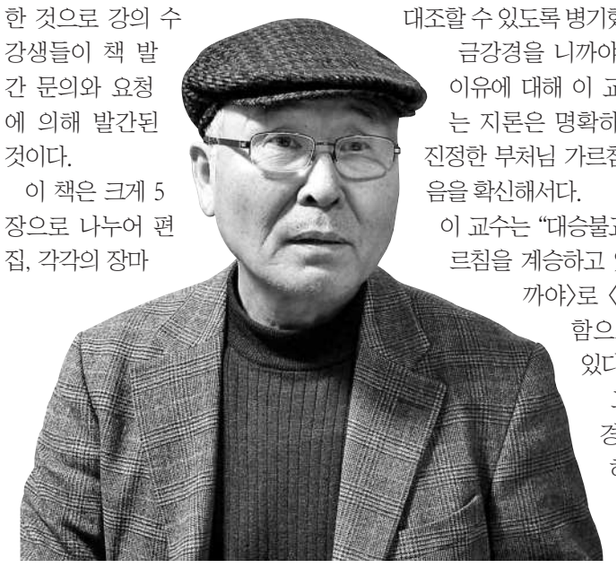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발간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

아함경과 니까야에 근거해
〈금강경〉이 쓰여졌음 밝혀
"금강경, 바르게 공부하면
고통의 근본 해결책 찾아"

초기불교 경전인 〈아함경〉과 〈니까야〉에 근거해 대승불교 경전인 〈금강경〉을 해석한 해설서가 발간됐다.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사진〉가 발간한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민족사 刊)은 초기경전 〈니까야〉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금강경〉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밝히며 해설하고 있다. 〈니까야〉를 근거로 〈금강경〉을 해석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다.

이 교수는 올해 1월, 3주에 걸쳐 서울, 광주, 구례에서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을 주제로 강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책은 강연의 내용을 보충 집필한 것으로 강의 수강생들이 책 발간 문의와 요청에 의해 발간된 것이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나누어 편집, 각각의 장마다 구마라집 한역본(漢譯本)에 적용되어 있는 양나라 소명 태자가 32분으로 분장한 체제를 반영했다. 또한 금강경 산스크리트어본과 구마라집 한역본을 대조할 수 있도록 병기했다.

금강경을 니까야로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교수가 가지고 있는 지론은 명확하다. 대승불교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신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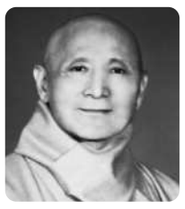
이 교수는 "대승불교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는 이유는 〈니까야〉로 〈금강경〉을 해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금강경〉을 바르게 공부하고 경전에 제시된 바대로 실천하면 우리 사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했다. 〈금강경〉의 핵심은 갈등과 논쟁을 해소하는 '무쟁(無諍)'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강경〉은 개인적인 열반을 강조하는 경전이 아니라 중생 구제의 큰 서원을 세우고 부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서원하며 깨달음을 향해서 함께 가는 보살행에 대해 설하는 경전이라고 말한다. 〈니까야〉로 〈금강경〉을 읽으면 부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보살행,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극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금강경〉의 취지는 수보리의 질문에서 나타난다"며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촉하셨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부촉을 받아들여 보살의 길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까'는 것이 〈금강경〉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본 지면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美 · 醜 의 兩 邊 에 서



美(미 : 아름다움)를 싫어할 사람은??? 해와 달, 하늘과 땅, 산하대지, 물과 불, 밝음과 어둠, 남녀노소, 춘하추동 피고 지는 꽃과 나무들의 변화가 아름답고 선남선녀,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 신명을 바친 의인들, 진리탐구에 몸 받친 성인들, 각 나라별 인종과 문화와 언어의 차이점, 물속에 사는 물고기, 땅위의 금수들 등등 자신들의 영역에서 살아 숨 쉬는 이 세상 모두가 아름답다. 더불어 가정과 학교, 이웃과 직장, 사회와 나라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가장 쉽고도 평범한 진리를 간직한다면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는 아름다움 더하리라!

※ 心地에 올바른 꽃을 피워 小欲知足에 身心이 청정하니 불보살(天使)이 찾아와 아름다운 선근을 심어 자신과 나라를 복되게 함과 함께 불국토를 이루어 천상에 오름을!

醜(추)함을 좋아할 사람은??? 술, 담배, 마약, 도박 등등 나쁜 줄 알면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생, 도적질, 탐욕, 악담, 비방, 이간질, 분노, 어리석음 등등. 추함을 알면서도 삿됨에 빠져 악업을 계속 창조(국정발목잡기, 진실왜곡하기, 불의를 정당화하기, 반대만을 위한 반대, 불법집회, 비난/모함, 선전선동, 입만 열면 거짓말 등등)하면서 살아간다. 부 · 귀를 누리는 자 빈자와 약자를 괴롭히는 갑질 ? 갈취하는 행위와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잘못만을 들추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자들의 추함이 사회를 병들게 함도 모자라 자신들의 영달만을 위해 유유상종하는 자들과 내부 불만세력들이 가세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마저 위태롭게 하려함이 더욱 추함이리라.

※ 心地에 삿된 꽃을 피우니 마왕이 찾아와 시기, 질투, 분노와 탐욕의 불길에서 자신과 나라마저 해악을 끼침과 함께 지옥의 불길까지 끌고 가고통 받게 됨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王(대통령)! 부귀공명을 성취한 공덕의 자리, 온갖 복락과 함께 인사권을 지고 존경과 함께 복종을 강요할 수 있기에 모두가 원하고 바란다. 그러나 명예를 얻은 자 부를, 부를 누리는 자 명예를 놓아야 함을 잊고 부 · 귀 모두를 탐하다 진흙탕에서 힘들어한다. 사랑과 자비와 올바름이 결여되면 삿된 마왕의 노예가 되어 탐욕의 불길에서 고통 받음을.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가신들, 책임지지 않으려는 추함이 더욱 비난받게 됨을 모르고 있음인가?

선친(고 박정희대통령)의 선근공덕에 힘입어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내외적으로 초기에 정치를 잘하여 부국강병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으나 내치에 실정이 들어나면서 믿었던 가신들의 불의와 배신감에서 참담한 고뇌에 허덕임은 아집과 교만, 독단에다 남의 말 듣지 않는 불통의 오명은 자신의 허물이리라. 삿된 외도의 속임수에 자신과 측근들의 불의까지 보지 못하게 되어 국민들의 신임마저 상실함은 물론, 자신의 실정에 선친의 선정까지 추락시키는 불효를 범하게 되었음을 통탄하리라!!! 만약 대통령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초발심으로 돌아가 모두를 내려놓고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함을 행동으로 보여준 다음 퇴임 후 옥고를 치루겠다는 약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안위와 민생을 뒤로한 체 오직 부귀만을 탐하는 분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분들, 남북정상회담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NLL포기발원과 북한에 건너간 비자금, 대통령하야를 위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대법관들의 보복성 퇴출, 실정을 엄폐하기위해 청와대 컴퓨터파일 안보문건 유출 등, 대통령죽음으로 땅속에 묻힌 비화)의 실정.....

북한의 기습도발에 따른 연평해전에서 수많은 아군사상자와 함께 군함이 침몰한 와중에 군을 독려하고 국민을 위로해야할 대통령의 눈 · 귀를 가리고 타국의 축구장으로 달려가게 하여 군과 국민에게 참담한 고통을 안긴 사건, 특검에서 밝혀진 수, 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덮어버린 사건, 등의 연장선상에 계셨던 분들의 허물들을 국민모두 잊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위현장에 앞장서서 현 정부를 비난하며 돌을 던질 정직하고 양심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있다고 말한다면 자신들에게 허물은 없는지 뒤돌아보시길?

※ 자신들의 心地에 정직함이 없다면 올바름과 믿음은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지?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과 여야지도자들을 함께 만나 화해와 단결을 도모하여야 할 시기에 각종파지도자들 역시 수수방관하고 있음도 모자라 일부 지도자들께서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 갈등을 부추김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 사찰, 성당과 그 외 여러 종파의 지도자들께서 국민의 화합과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나라가 안정된 평화 속에서만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합니다. 반세기(66년)전 권력욕에 집착한 김일성집단이 외세를 등에 업고 조국산하를 피로물들인 동족상잔의 참혹상을 일으킨 전범들 때문에 전선에서 조국을 지키다 적의 총탄포화에 산화한 수많은 영령들이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며 통곡하는 소리가, 地天을 울리고 있음을 각종파지도자들께선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금번 집회장에서 수십만 군중이 보여준 평화로운 시위는 진정 아름다움의 극치요. 성숙한 시민의식의 참모습에 내 조국 이 땅에 희망과 광명이 있음이요, 자신들의 영달만을 위해 삿된 정치를 일삼는 지도자들의 퇴출과 함께 국민과 나라를 위해 신명을 받칠 참신한 지도자들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산승 가슴이 저밀정도로 감탄, 감사드립니다. 이젠 학교와 직장과 사회, 국회, 언론 등 모두 각자 맡은바 일터로 돌아가 본분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은 특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니 잘잘못을 가려 처벌하면 될 것을 선량한 국민들을 앞세워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삿된 행위만은 멈추어 주시길 산승 기도합니다.

6.25전쟁은 당시 남한 내(정치인들과 무뢰배들의 난동)에 북한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이 많다고 생각한 김일성의 오판이 빚어낸 참극임을! 국내 분열의 현 상황을 虎視耽耽 노리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에게 도발의 빌미와, 내 조국 반세기에 이룩한 아름다운 산하를 파괴하려는 내부 불만세력들의 폭거 등 어떠한 도발도 막아야 합니다. 해 가고 달 가듯이 100년의 세월도 紅爐點雪이라, 부귀공명 또한 이와 같음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무 것도 가져갈 순 없지만 지은 업장만은 따라감이라 삿됨 버리시고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나아가 아들, 딸 후손들이 추함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행복의 문안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지도자들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기도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음사에서 송 몽 합장 (010-2124-1171)

세 걸음마다 내 몸 낮춰 '구법의 길'로…

범어사 불교대학 총동문회, 11월 20일 '구법삼보일배' 진행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는 11월 20일 범어사 일대서 '구법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200여명 동문회 소속 불자 참석
개인 성취 및 국태민안 발원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법문
참가자들, 환희로 기쁨 전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며 불자들이 목탁 소리에 맞춰 절을 올렸다. 차가운 아스팔트 도로 위에 구슬땀이 떨어졌고, 지나가던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함께 손을 모았다.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김도연, 이하 총동문회)는 11월 20일 범어사 일대서 '구법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이 자리를 통해 총동문회는 신행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부처님께 발원하는 시간으로 열었다.

김도연 회장은 "이번 계기로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참다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를 얻고, 또 신행으로 하나 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며 "아울러 작게는 개인의 소망과 행복을 발원하고 크게는 국가의 안온을 기원했다"고 말했다.

먼저 삼보일배에 참가한 200여명은 범어사 상마마을 주차장으로 집결해 취지를 밝히고 결의를 나눴다.

출발 전 지도법사인 효산 스님(범어사 포교국장)은 "삼보일배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낸 것은 이미 절반을 도착한 것과 같다"며 "신심을 더욱 고양시키는 평생의 잊지 못할 시간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참가한 모든 분들이 마지막 도착점인 대웅전 앞에서 소원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마음을 모았고 삼보일배로 범어사 일주문까지 나아갔다. 일주문서 참가자들은 삼보일배를 회향하며 기쁨으로 향을 받고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서 법석을 열었다.

회향 법석서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절이란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다. 성철 스님께서도 절 수행을 통해 하심을 가르치셨고 법을 구하도록 하셨다. 시작할 때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떠한가"라물으며 마음을 돌아볼 것을 권했다.

이어 스님은 "신라 자장 율사는 일보일배로 오대산을 오르며 문수보살을 친견했다. 이번 삼보일보 수행을 통해 문수보살의 지혜를 얻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무사히 삼보일배를 해냈다는 기쁨과 부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만 가득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천규(75·청룡동) 씨는 "너무 행복하다. 요즘 마음 한편에 무거운 부분이 있었는데, 절하는 동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길 간절히 염원하고 기도했다"며 "지금 그 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처럼 마음이 가볍고 기쁘다"고 말했다.

최지안(63·남천동) 씨는 "중간에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도 했다가 다시 마음을 세우고 힘을 내기도 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모두 함께 하니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는 범어사 불교대학을 졸업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올해 21주년을 맞았다. 현재 회원이 8000여명이 넘는 저력을 가진 단체로 불교 행사마다 기둥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20년 동안 매주 목요일에 무료급식으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연말 자비의 떡국 판매, 일일찻집, 범어사 전용 순환버스 동참금 지원, 부산시민연등축제, 독거노인 도시락 반찬 배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성미 기자

중학생 121명, 부처님 제자로 거듭나

금정중, 제42회 수계식 개최



게임기와 스마트폰 중독,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혼란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부처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오계를 받아 수지할 것을 발원했다.

부산 금정중 (교장 정진완)은 11월 22일 범어사 보제루서 '제42회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수계법회는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계로 삶의 지침을 일러주기 위해 매년 열린다.

계사인 경선 스님(범어사 주지)은 학생들에게 삶의 등불이자 나침반이 되어 줄 계를 지키고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수계식에는 학생 121명, 학부모 10명이 받았으며 정진완 교장, 이석언 교법사를 비롯해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정중 수계식은 1975년 10월 10일 광덕 스님을 계사로 시작해 매년 진행됐다. 현재 금정중학교 재학생은 1학년 86%, 2학년 88%, 3학년은 91%가 수계를 받았으며 교직원은 전체 100%가 수계를 받았다. 42년 동안 총 수계 인원은 학생 1만2,846명, 교직원 153명, 학부모가 241명이다.

하성미 기자

"한국 불교 쇄신 위한 기둥으로"

불교중흥회, 11월 19일 창립법회



불교중흥실천협의회가 창립됐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이사 안국, 이하 불교중흥회)는 11월 19일 삼광사 지관전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불교중흥회는 불교가 현재 한국 정신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자성과 쇄신을 통한 새로운 출구 모색을 위해 창단한 단체다.

앞으로 불교중흥회는 청소년 및 대학생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직장 및 직능 불교단체를 후원해 포교에 이바지한다는 포부다. 아울러 재가 안거 제도 포교 활성화, 불교 콘텐츠 개발로 발전을 도모하고 불교포교대상을 수여해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했다.

창립법회는 부산과 경남에서 참여한 승가 및 재가 내빈을 소개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경과보고 및 부산불교의 현황과 전망을 일러주는 〈지지 않는 향기 연꽃 부산〉 봉정식이 이어졌다.

안국 스님은 "본 회를 창립한 것은 불교 발전을 위해 안으로는 정진하고 밖으로는 회향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며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고 불교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자리엔 증명대법주로 정관 스님(영주암 회주), 도성 스님(한국 테라와다 승정), 지도법사 혜총 스님(대각회 이사장), 무원 스님(삼광사 주지)과 이사 자관 스님(화엄승가회 수석부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삼광사, 영산재로 국난 극복 기원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가 국난 극복과 국정안정을 발원하는 '수륙영산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불자 1만 명이 동참해 국난의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영산재는 11월 18~20일 진행됐으며 천태종 원로원장 운덕 스님, 증명법주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천태종 범음법패 보존회와 사단법인 부산영산재 보존회가 주관했다.

주지 무원 스님은 "국민들의 마음이 힘들고 아픈 때다. 영산재를 통해 국민들을 위로하고, 힘든 시기를 부처님의 큰 가르침으로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취지를 전했다.

하성미 기자



"연등회, 불교 초월한 전통 세시 문화"

'2016년 팔관회 전통문화보전 학술대회' 서

"숭유억불시대인 조선에서도 사월초파일에 연등을 대문 밖에 달지 않으면 관료들이 벌을 내렸다. 대부분의 관료들이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당시 부처님 오신 날을 세시 명절로 인식한 조상들의 자세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추정된다."

부처님 오신 날인 사월 초파일에 여는 연등행사가 단순한 불교 행사를 초월한 한국 전통 세시 명절로써 그 중요성을 이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1월 23일 범어사 설법전서 '2016년 팔관회 전통문화보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부산 연등회의 전승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 황경숙 민속학 박사는 연등회를 단순히 불교문화로만 인식하기엔 전통성이 간과되는 것임을 주장했다. 이어 황 박사는 부산 연등회를 무형 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과제로 '학술적 연구'와 '역사성을 담은 재현성'을 제안했다.

황 박사는 먼저 "지난 2016년에 새롭게 추진된 '호기희', '느티떡', '콩찐이' 행사는 범시민 행사로 거듭나기 위한 일환이자 사월 초파일 연등회의 전통성을 계승, 부산 연등 축제의 독자성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행사와 아울러 전통성을 밝힐 수 있는 학술적 연구가 구체적으로 뒷받침 되어야하며, 그 문화가 대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서는 영명 스님(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 부교수)의 '팔관재계의 현대적 가치'와 박재혁 부산 문화재연구관의 '부산의 불교 문화재'도 발표됐다.

영명 스님은 팔관재계의 뜻과 근거, 계율적 위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 한국 불교에 끼칠 영향력을 전달했다.


11월 23일 열린 '2016년 팔관회 전통문화보전 학술대회'에서 발제한 황경숙 민속학 박사.

영명 스님은 "팔관재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우리 삶에서 오는 욕망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풍요로운 현대 사회에서 팔관재계는 오직 소비만이 삶의 척도이자 목표가 되어버린 우리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술대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사무총장 정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수능 끝난 고3·학부모 함께 즐기자!"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11월 20일 '불빛 음악회'



대구 수성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학장 돈관)은 11월 20일 '제1회 2016년 수능생과 엄마 및 지역민을 위한 망월지(뚜꺼비 생식처) 불빛(佛光) 음악회'를 경내 광장서 개최했다.〈사진〉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신도회(회장 이병철)가 주최하고 대구시에서 후원한 이번 행사엔 사부대중 10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병철 회장은 "수능을 마친 고3학생들과 예비 학생들, 뒷바라지한 엄마들,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로하는 콘서트다.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란 슬로건처럼 뜨겁고도 활기찬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는 경북대 밴드팀, 영남대 천마응원단, 선화여고 비화 댄스팀 등의 무대로 꾸며졌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 도 모 집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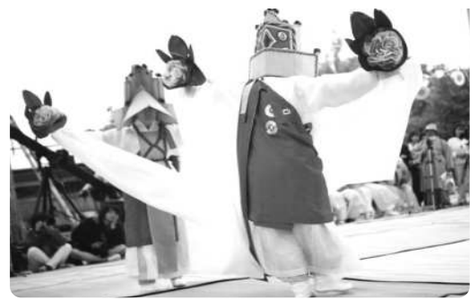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제11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좌및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연희단이 사찰 분위기 바꿉니다”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신광사 주지 일명 스님

지난 5월 7일 광주광역시의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장에는 독특한 장면이 연출됐다. 바로 전통복장을 한 많은 사람들이 노래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춘 것이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이 광경은 올해 광주불교계가 처음 선보인 ‘어울림 한마당’에 참여한 사찰 연희단들의 춤사위였다.

광주지역에 처음으로 율동리더와 연희단을 보급해 성공적인 행사의 기틀을 마련한 이가 있다. 광주불교연합회 연희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신광사 주지 일명 스님〈사진〉이다.

“우리 절 신도들이 더 좋아하던데요. ‘나이 먹어서 뭔 율동이냐’ 고 말하던 할머니들이 더 신나서 춤을 추는 걸 보면 축제에는 역시 춤과 노래가 빠져서는 안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일명 스님의 말처럼 처음 시도한 연희단과 전체율동은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전체 8개 팀이 참여한 연희단 공연과 4000여 명의 신도들이 뜻을 모은 전체율동은 봉축행사를 기존의 엄숙함을 넘어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바꿔 놓았다.

“아직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손 볼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큰 감동과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세심하게 준비하려니 조금 바쁘기도 하지만 사명감을 갖고 임하려 합니다.”



일명 스님의 마음은 내년 봉축행사 준비로 이어진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지난 11월 14일 제2기 연희기획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봉축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지역사찰을 비롯해 신행단체 연희단장들과의 기획단 모임을 시작으로 11월~12월 율동리더 모집 및 교육, 2017년 1월 율동강습회, 1월~4월까지 사찰과 단체별 율동지도 및 보급활동을 펼친다.

“내년에는 더 많은 연희단과 활기찬 율동을 바탕으로 보다 신명난 행사를 만들 겁니다.”

벌써부터 내년 행사준비에 열정을 보이는 일명 스님은 결코 젊지 않다. 1961년 4살 때 동진출가해 1975년 비구니계를 받고 지금까지 어언 60여 년을 올곧은 수행자로 살아온 노장이다. 동학사 강원을 졸업한 후 광주에서 줄곧 소임을 살았으니 광주불교의 산증인이라 불릴 만하다.

아담한 체구에 늘 조용한 성격인 스님이 불교의 젊음을 상징하는 연희기획단을 이끄는 것이 궁금해 물었다.

“예전에는 오랜 기간 초파일 준비를 했어요. 동지가 끝나면 연잎을 물들이고 말아서 병에 감아 실로 주름을 잡고 누르면 연잎이 돼요. 여기에 팔모등 철사 등살을 만들기 위해 나무에 팔각 모양의 못을 박아 철사로 둘러 만드는 과정을 겨우내 구들방에서 했어요. 그때에 비하면 이제는 너무 한가한 거죠. 그래서 시작했어요. 연희단이나 율동이 곧 초파일 준비잖아요.”

초파일 준비, 이것은 스님이 늘 해오던 일상이었다. 당연히 해야 할 내년 초파일 준비를 시작한 것일 뿐이라는 담담한 대답이었다.

“사찰에서 활성화 될 거라고 믿어요. 일단 재미있고 즐겁잖아요. 기도 때나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찰별 연희단은 궁극적으로 봉축행사를 준비하는 사찰의 변화를 예고한다. 즉 더 밝고, 더 신명나는 사찰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래서 일명 스님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명 스님의 이 같은 포교 열정과 바람은 내년 광주지역 봉축행사로 이어질 것이다. 더불어 연희단을 통한 광주불교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을 기대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개금불사 원력으로 끝없이 정진”

광주 법륜사, 혜초 스님 초청 설법전 석가불 개금불사 회향



11월 20일 광주 법륜사서 봉행된 설법전 석가모니불 개금불사 회향법회.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이 법어를 내리고 있다.

태고종 광주지역 불자들이 개금불사 원만회향을 기념해 이 같은 원력을 정진으로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태고종 광주 법륜사(주지 월인)는 11월 20일 설법전 석가모니불 개금불사 회향과 함께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혜초 스님, 지암 스님(태고종 원로의원), 호산 스님(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장), (사)전통불교영산보존회 회원 스님과 200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해 설법전을 가득 메웠다.

지난 11월 13일 입재를 시작으로 8일간의 기도에 이어 이날 회향한 법회는 오전 10시 종사이운, 종정 법어, 영산작법과 천수바라 등이 펼쳐져 부처님 개금불사 회향을 축하했다. 특히 광주시 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된 (사)전통불교영산보존회 ‘광주영산재’의 시연이 펼쳐져 회향의 의미를 더했다.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신도라면 누구나 소원이 있을 때 절에 찾아와 부처님께 기도를 올린다. 하지만 일념으로 기도를 해야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면서 “법륜사는 오랜 기간 지역에서 수행정진을 열심히 하는 도량으로 오늘 부처님께 새로운 옷을 입혀드리는 공덕으로 많은 신도들에게 큰 복(福)이 전달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불자들은 여기에 단순하게 머물지 않고 끝없이 정진해 법륜사가 광주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월인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자님들의 지극정성으로 새로운 부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종정 스님 말씀을 깊이 새겨 앞으로 더욱 정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좋은 도량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금한 석가모니불은 법륜사 창건 이후 20여 년간 도량을 지켜온 본존불의 일부 법신(法身)이 손상돼 불사를 한 것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년에도 함께 불교문화 배워요”

순창불교연합회, 11월 20일 불교고전 인문강좌 회향



불교고전 인문강좌 참가자들이 청암 스님 안내에 따라 사찰문화답사를 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진행돼온 순창불교연합회 불교고전 인문강좌가 회향됐다.

순창문화의집 2층 강당에서 총 16강 32시간 강의가 격주로 진행된 불교고전 인문강좌는 불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해 부처님의 생애, 사찰예절, 힐링명상, 청소년 인문학, 사찰문화답사, 불교가람 배치, 수행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청소년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인문학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강좌는 바쁜 농사철에도 불구하고 3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수강 신청해 예상외의 호응을 얻었다.

순창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청암, 장덕사 주지)와 순창불교신도회(회장 이동희)로 구성된 순창불교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강좌는 청암 스님이 명상과 사찰문화를 담당하고, 강석훈 강사가 부처님의 생애를, 류재환 강사가 사찰예절과 불교의 가람배치 등을 강의했다.

이번 강좌에 수강한 30여 명의 지역주민들은 20일 순창 구평사, 장성 백양사, 부안 내소사 사찰문화답사를 마지막으로 회향했다. 마지막 강좌인 불교문화답사에는 청암 스님과 이동희 신도회장, 복일기 · 서애숙 신도회 부회장 등 순창불교신도회 임원들도 대거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청암 스님은 “지역불교 활성화와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불교를 바로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불교고전 인문강좌를 마련했다”며 “예상외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내년에도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전법도량 수현사 건립 원만성취 기원법회

조계종 17교구 금산사가 전주혁신도시에 건립 중인 전법도량 수현사의 착공 100일을 맞아 공사의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주지 성우)는 11월 23일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포교당 건설현장에서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공사기간 중 무사고 기원 및 수현사의 원만한 완공을 기원했다.〈사진 아래〉 법회에는 성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서 성우 스님은 “2017년 8월까지는 모든 공사일정을 마치고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수현사는 대지 2,009㎡, 연면적 4,910㎡에 4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지난 8월 착공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정기총회 · 회원한마당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는 11월 19일 광주 사찰음식점 수자타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해의 사업 결산과 내년 예산안 등을 결의했다. 아울러 회원한마당을 통해 우수회원들을 시상했다.〈사진 아래〉

상임대표 시각 스님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나눔과 회향사업을 실천해 왔으며, 무엇보다 미래세대의 희망인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꾸려왔다”며 “불교환경연대와 인연 맺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실행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우수회원활동가상은 김복자 · 허승희 씨가, 광주시교육감상은 선경화 · 양윤서 씨가 수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로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신 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2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 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 등 자매품 다양)

인도에 다왔구나하는 순간, '요괴 출몰!'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㉞ 가짜부처요괴에 잡혀간 현장법사

"우환 속에서 오히려 살게 되고, 안락함 속에서 죽게 된다"는 맹자의 말, 참으로 되새길 만한 말이라 했지요? 우리는 늘 안락함을 바랍니다. 그것을 추구함은 나쁠 것이 없지요. 행복이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경향입니다. 그리고 안락함이란 행복의 기본 조건인 셈이지요. 그런데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가 있지요. 안락함도 무상합니다. 변합니다. 계속 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안락함에 빠져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불행이 그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환 가운데 있으면 괴롭기는 하지만 경계하려는 마음이 있기에 더 큰 불행이 닥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우환을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자신의 성장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환 속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말 것이며, 안락 속에 있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환 속에 있을 때는 그 우환의 해결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또 맹자의 좋은 말씀이 있네요. "하늘이 장차 어떤 인물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뼈와 힘줄을 수고롭게 하며, 그 몸뚱이를 굶주리게 하고 궁핍하게 만들고 그가 하는 일을 뒤흔들고 어지럽게 만든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단련하고 그 성품을 참을성 있게 만들어서 그가 하지 못하였던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또 힘든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입니까? 힘든 일을 겪을수록 자신의 능력이 커 나가고,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웬만한 어려움은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와 반대로 어떤 좋은 환경에서 안락을 누리면서, 그 안락함이 계속되리라는 믿음으로 태만하게 있는 이들은 자신의 향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태만함을 타고 숨어들어오는 큰 불행을 당하게 마련이지요. 그에 대한 아주 적합한 표현이 〈주역〉에 있네요.

"위태로울까 걱정하는 자는 그 지위를 보전하고, 없어질까 근심하는 자는 그 있음을 보존하며, 어지러울까를 걱정하는 자는 그 다스림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군자는 편안하여도 그 위태로울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보존되어도 그 없어질 수 있음을 잊지 않으며, 다스려져도 어지러울 수 있음을 잊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현장법사 일행은 조금 마음이 풀어졌지요? 변방이지만 인도 땅에 도착해서 아주 환대를 받습니다. 거기에 정월 대보름이라는 명절을 만나 아주 흥까지 났네요. 그래서 연등놀이까지 구경하면서 편하게 쉽니다. 그런데 이 고장 풍습이 좀 특이합니다. 연등축제인데 보통 축제가 아니군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특별한 양젖기름을 쓰는데, 그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대로 옮기면 큰 항아리 세 개를 기름으로 가득 채우는데, 양으로는 천 오백 근이요, 이용으로 따지면 오만 냥 가까이의 돈이 든다 하네요. 큰 항아리 세 개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심지를 박아서 태우는데, 밤에 부처님이 다녀가시고 나면 그 많은 기름이 다 없어진다네요.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기만 한가요? 이상하지는 않아요? 무슨 부처님이 기름 잡수시는 부처님인가요? 기름귀신 부처님?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와! 신기하구나. 부처님의 영험이로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바로 미신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진짜 부처님이라면 무슨 기름을 그렇게 거둬가겠냐는, 아주 이성적인 의심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기름 대느라고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건 서유기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 지역 주민이 기름 부역 때문에 매우 시달린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법사, 부처님 오신다는 말에 그냥 좋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부처님 오실 때 일어나는 조짐이라는 거센 바람을 피해 숨는데도 꿋꿋하게 부처님 친견한다고 버팁니다. 참으로 장한 현장법사! 그런데 장하다고 칭찬만 하기는 좀 어리석은 신심을 지닌 현장법사!



그림 · 최주현

마음이 헤이해지면
꼭 발생하는 재앙
끊임없는 정진 의미

과연 바람 속에 세 분의 부처가 나타나고, 현장법사는 허둥지둥 참배를 드리는데, 이 부처님들 현장법사를 칭찬하기는커녕 휙 낚아채서 사라지네요. 그 전에 손오공만은 그들이 진정한 부처가 아닌 줄을 알아채고 저지를 하려 하지만, 이미 늦어 버렸지요. 깜짝 놀란 저팔계와 사오정이 사방을 헤매면서 현장법사를 찾는데 그 때 손오공이 하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부르며 찾아도 소용없다. 사부님은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생긴다(樂極生悲)'는 말대로 요괴에게 잡혀가버렸다."

바로 요괴의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이 편안할 때 방비하지 않고 해태해짐으로써 온 것이라는 것을 슬그머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 나타난 수호신장들은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삼장법사는 선을 닦는 마음이 늘어지고 지금 이 고을에서 노는 것에 빠지셨지요. 길한 태(泰)괘가 넘어가면 불길한 비(否)괘가 옵니다. 즐거움이 지나치면 슬픔이 생기고요. 그래서 요괴에게 잡혀간 것이지요." 그리고 이 챕터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시로 이 사태의 본질을 묘사하고 있지요.

나태 방일하고 단속하지 않아 삼매를 닦는 마음 어지러우니(懶散無拘禪性亂)
재난의 위태로움 당연하구나, 도를 향한 마음 어두어졌네(災危有分道心蒙)

"이제 인도에 다 왔구나!"하는 안심에 풀어져 버린 일행의 태도가, 그리고 그 고을에서 받는 환대에 취해 도를 향하는 마음이 해태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칠계님? 앞에 태괘니 비괘니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구요? 애고, 그거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는데…. 짧게 말해볼게요. 주역의 괘 이름입니다. 태괘는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 괘지요. 비괘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괘고요. 그런데 태괘는 통한다는 뜻이 있고, 비괘는 막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상하다구요? 왜 하늘땅의 위치가 뒤바뀐 괘가 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정상적인 것이 막힌다는 의미를 가지느냐구요? 그것이 바로 주역의 깊은 뜻입니다. 높은 이가 낮은 이 아래로 자신을 숙이고, 낮은 이는 높은 이를 받들어, 이 둘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태괘라는 것이지요. 비괘는 그 반대이구요. 사람 사는 세상도 그렇게 되어야 한 대요. 높은 자들이 자신은 본디 높은 자로 태어났다 생각하여 위에서 뻐기고, 낮은 자들은 윗사람의 어려움 같은 것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뒷담화만 하고…. 그러는 모습이 바로 비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세상이 태괘의 모습으로 되어야 하겠지요.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게 따질 것 없이 태괘는 운이 열리는 모습이고 비괘는 운이 막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운이 풀릴 수만도 없고, 늘 막히기만 하는 일도 없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고 넘어가야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삼쾌선생은 좀 보탤 말이 있네요. 단지 마음이 해태해지고 노는 것에 빠져서 이런 재앙을 만났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대로 참 부처와 가짜 부처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함이 이 재앙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꼭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몇 번 계속 물음을 던졌지요? "부처님이 무슨 기름 귀신이냐?"하는 불경한 표현까지 써 가면서요. 그런 물음을 던질 줄 아는 바른 안목, 그것이 없어서 이런 위태로움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면서 기름을 거둬가는 부처님이라면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처님이 무슨 기름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백성의 고통을 살피지도 않고 그런 짓을 할까"하고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에 어그러지는 행태가 있으면 의문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이름 아래 그렇게 몰상식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정말 몰상식한 일들이 종교라는 이름을 빌어, 신앙심이란 미명 아래, 영험이라는 너울을 쓰고 버젓이 행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거든요.

현장법사는 참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분이지요. 그런데 그 충만한 믿음에 걸맞는 안목을 갖추지 못했네요. 삼쾌선생도 자연스럽게 물었던 그 의문들을 가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문제지요. 그런 의문을 가졌지만 그 지나친 신심이 그 의문을 눌러버렸다면 그것도 또 문제구요. 아무튼 문제, 문제…. 그 문제가 바로 현장법사가 재앙에 빠지는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된 상황에는 "이제 다 왔구나"하는 안심에서 온 방일함이 놓여 있겠지만요.

요괴를 물리치는 이야기는 앞에서 많이 했고, 이번 요괴 물리치는 이야기도 비슷한 대목이 많아서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이번 요괴는 외뿔소 요괴들입니다. 벽한(ÆJ寒)대왕, 벽서(ÆJ暑)대왕, 벽진(ÆJ塵)대왕이라는 이름을 가졌지요. 각각 추위를 물리친다, 더위를 물리친다, 더러움을 물리친다는 아주 멋진 의미를 가진 요괴들이네요. 오랜 수행을 통해 신통력을 갖게 되었는데 본디 양젖기름을 좋아하여,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처님 노릇을 하면서 기름을 갈취해 왔던 것이지요.

상당한 신통력을 가진 요괴라서 쉽사리 이겨내지를 못하고 결국 태백금성의 조언을 받아 하늘의 신장을 원군으로 청합니다. 그때 원군으로 원신장들은 하늘의 별자리인 이십팔수 가운데 목(木)과 연관된 네 별자리의 신입니다. 즉 각성(角星), 두성(斗星), 규성(奎星), 정성(井星)이지요. 이십팔수의 별자리들에 대해서는…. 하하, 이건 자습과제로 남겨 두겠습니다. 이 이야기 하려면 또 한참 헤매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자습이야말로 공부의 궁극 아니겠습니까? 요즈음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 공부의 궁극을 체험하시기를….

그리고 네 신장들 도움으로 요괴들을 토벌하는데, 이번에는 요괴 가문에서 보살 가문으로 이적한다는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 죽어버리네요. 한 요괴는 토벌과정에서, 나머지 두 요괴도 결국 화가 치민 저팔계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비를 근본으로 하는 불교라 하지만, 어떤 때는 악을 척결하는데 용서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탐욕의 상징인 저팔계에서 좀 날뛰기는 하지만 눈 밝고 재주 많은 손오공으로 마음이 끌리게 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자습과제입니다. 공부의 궁극, 자습! 그 속에 여러분들의 무한한 발전이 있습니다. 결코 삼쾌선생이 게으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강조하면서! 오늘 여기서 줄입니다.

미소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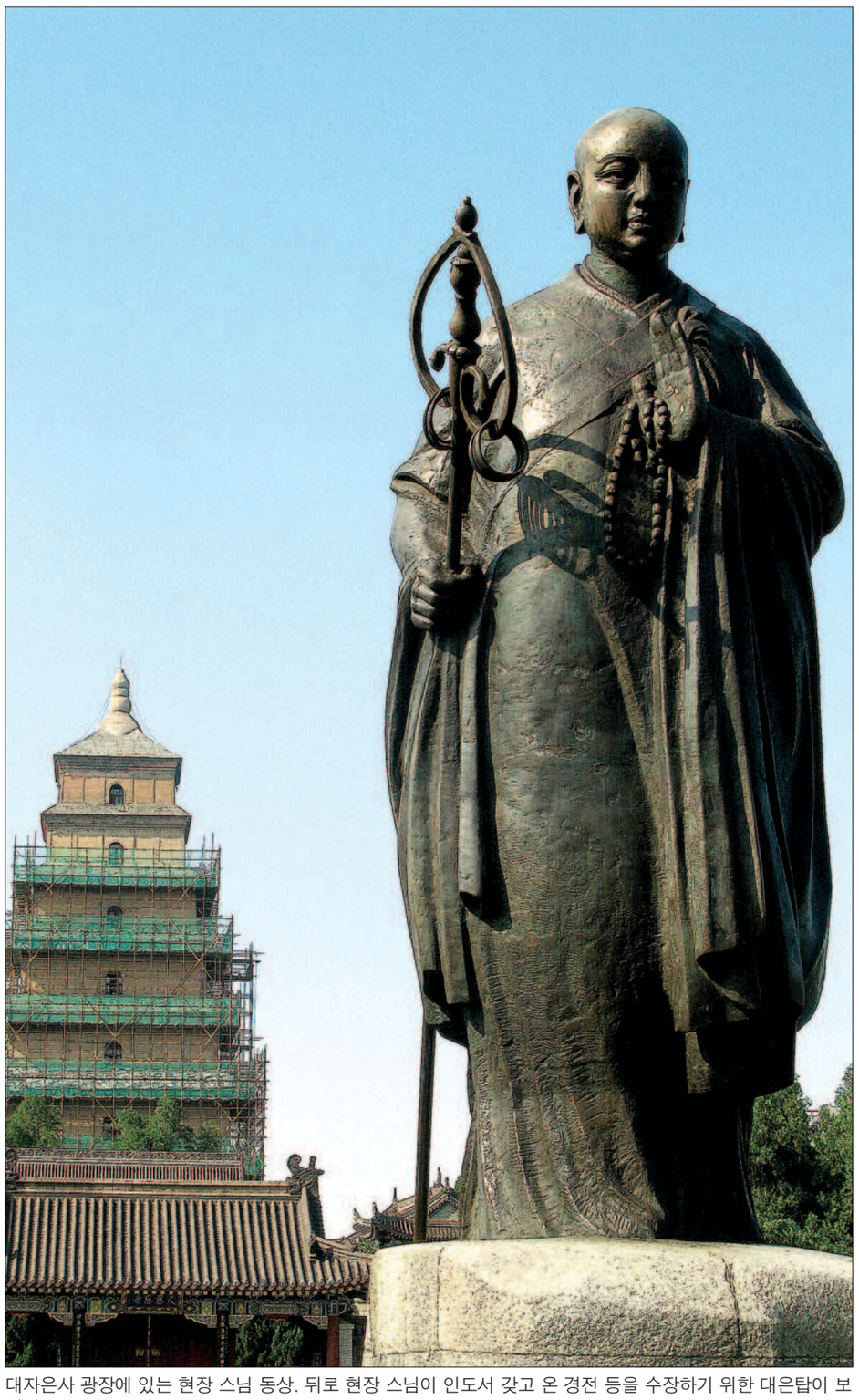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전류가 흐르며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대자은사 광장에 있는 현장 스님 동상. 뒤로 현장 스님이 인도서 갖고 온 경전 등을 수장하기 위한 대은탑이 보인다.


흥교사의 현장사리탑과 제자 규기, 원측의 사리탑. 현장의 유식종을 이어받았고, 이는 신라로 전해진다.

중국 선종사찰 순례 ④ 대자은사 · 흥교사

불경 구하기 위한 구도의 길 동아시아 불교 역경사를 열다

경 · 율 · 론 삼장을 모두 터득한 고승을 의미하는 삼장법사. 일반적으로 〈서유기〉에서 손오공 등을 이끌고 천축국으로 가는 고승을 삼장법사로 알고 있다. 〈서유기〉 실질적 주인공 삼장법사의 실제 모델은 당나라 시기 구법승 현장 스님이다.

현장 스님은 602년 진씨 집안의 4째 아들로 태어났다. 10년 뒤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앞서 출가한 둘째 형을 따라 삭발하고 수행자의 길을 걷는다. 고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할수록 종파마다 교리가 달랐다. 의문은 꼬리를 물었고, 결국 직접 인도로 가서 불경을 구하고 배우기로 결심한다.

현장 구법행 첫 장애물 '당 조정'

〈서유기〉를 보면 현장 스님이 천축 구법행을 알리자 당 태종은 잔치를 열고 환송해준다. 진리의 구법행이 마치 왕조를 위한 출사로도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과 판타지는 다르다. 안타깝고, 울화가 치민다. 당시 당나라는 국외 여행이 금지돼 있는 상황. 이 때문에 현장 스님은 수 차례 조정에 "구법행을 허락해 달라"는 상소를 올리지만 각하됐다. 결국 현장 스님은 국법을 어기고 629년 인도로 떠난다. 당시 불교국가였던 고창국과 천산산맥을 넘어 결국 중인도 나란다대학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5년을 머무르며 자신이 그토록 배우고 얻고자 했던 〈유가사지론〉을 비롯한 유식의 교학을 배우게 된다.

이후 인도 각지에 구법과 불적 순례의 여행을 계속해서 다수의 불전을 얻어서 귀로에 나섰고, 17년만인 645년에 이번에는 환영을 받으면서 장안으로 돌아왔다. 현장 스님은 구법 여정을 통해 불사리 150개, 불상 8체, 경전 520권 657부를 중국에 전했다. 이에 크게 기뻐한 당 태종은 현장 스님에게 직접 역경 사업을 명하게 된다. 이후 현장 스님은 입적 전까지 역경에 매진하게 된다.

현장의 역경처 '대자은사'

현장 스님의 역경처 중 한 곳이 현재 중국 서안에 있는 대자은사다. 현장 스님이 처음 황제의 명을 받아 역경을 시작한 곳은 흥교사이고, 이후 대자은사로 옮겨 역경을 했다. 스님은 대자은사 북서쪽에 지어진 변경원에서 불경 한역(漢譯)에 힘썼고, 11년에 걸쳐 40여 부의 경을 한역했다. 이 한역 사업에는 현장 스님의 제자인 규기와 신라 유학승 원측도 참여했다.

원래 대자은사는 당 태종의 모후 문덕황후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사찰이다. 한때는 승려 수만 300명이 넘을 정도로 대찰(大刹)이었다. 대자은사에서 현재까지 유명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대안탑이다.

652년(당 영휘 3년)에 건립된 대안탑은 현장 스님이 인도로부터 가져온 불상과 경전을 수장하기 위해 지어졌다. 7층 전탑으로 높이가 54m에 이르며, 각층 마다 사리가 봉안돼 있다. 지금은 내부에 계단이 설치돼 이전보다는 수월하게 탑의 최상층까지 오를 수 있다. 여기서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난 창을 통해 서안 시내가 조망이 가능하다. 남쪽으로는 현장 스님의 동상이 있는 광장이 있으며, 북쪽 뒤로는 분수 광장이 있다. 분수광장 좌우로는 현장 스님의 기념관도 보인다.

현재 대자은사 주위는 중국 시민을 위한 광장과 편의 · 상업시설이 대규모로 조성돼 있다. 중국인들은 일과를 마치면 이곳에서 운동을 하거나 외식을 하며 여가를 즐긴다. 사찰 참배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대자은사 옆으로 길게 조성된 '진한당국제문화상업광장(秦漢唐國際文化商業廣場)'이다. 천장에 설치된 파노라마 스크린을 통해서 중국 불교 문화재와 관련한 영상이 계속 흘러나왔다. 중국에서 불교가 갖는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다.

달마가 선(禪)을 전했다면, 현장은 부처님의 바른 교법을 전달했다. 이는 동아시아 대승불교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일이었다.


흥교사에 봉안된 현장과 제자 규기, 원측의 조각상.

서유기 모델 현장 스님 자취담긴 中 서안 대자은사 대안탑 · 흥교사 현장 스님 구법행 · 역경불사 인해 지금의 동아시아 불교 존재 가능 제자 규기 · 원측 간 스토리도 눈길


대자은사 인근에 조성된 상업광장. 파노라마가 눈길을 끈다.

대자은사 대웅보전에는 현장 스님을 선양하는 조박초가 쓴 주련이 있다. 이를 보면 현장 스님이 가지는 위치는 명확하다. "불법의 바다가 현장 스님을 숭앙하니 서역도 두루 깨달은 자라고 말했다. 유식학을 널리 펼치니 이곳은 나란다에 비할 수 있다."

현장과 그 제자들이 잠든 흥교사

현장 스님의 사리는 서안의 흥교사에 모셔져 있다. 주목할 점은 현장 스님과 제자인 원측과 규기의 사리탑도 함께 있다는 것이다. 현장과 제자들의 사리탑은 현장의 구법 여정과 역경사업, 중국과 신라의 유식종 탄생이라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이 함축된 상징으로 볼 수 있다.

현장 스님은 구법행과 역경사업을 통해 〈성유식론〉 등을 바탕으로 한 유식종을 창종한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제자 규기와 원측이다. 특히 현장은 제자 규기를 많이 아꼈다. 워낙 총명했던 규기를 제자로 맞이하기 위해 현장은 스님으로서는 금기인 술, 고기, 여자를 모두 허용하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그래서 규기를 '삼거(三車) 법사'라고도 한다.

원측 역시 뛰어난 제자였지만, 규기와 같은 혜택은 받지 못했다. 이는 유명한 '도강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규기는 현장 스님의 유식론 강의를 독점했고, 원측은 문지기를 매수해 그 강의를 몰래 엿들었다. 정식 강의는 규기가 앞서 들었지만, 이를 자기화해서 강론을 펼친 것은 원측이 먼저 였다. 국내 학계에서는 일련의 도강 사건을 규기 측에서 후대에 날조한 것이라 본다. 원측의 인품으로 도강할 이유도 없고, 실력도 한 수 위라는 것이다.

현장 스님의 입적 후 규기는 자은사를 중심으로 자은학파를, 원측은 서명사를 중심으로 서명학파를 형성한다. 규기의 자은학파는 유식종의 정통이자 주류임을 자임했고, 서명학파와는 많은 쟁론을 펼쳤다.

그럼에도 원측은 측천무후 등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시 장안의 최고 사찰 중 하나인 서명사의 대덕으로 주석하며 강론을 펼쳤다. 신라에서 수차례 원측의 귀국을 타진했지만, 그의 실력을 인정한 측천무후의 반대로 귀국은 이뤄지지 않았고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입적한다. 이후 원측의 제자 도증이 신라로 귀국해 태현에게 유식학을 전하면서 신라의 유식종이 시작된다.

흥교사 현장사리탑 동쪽에는 원측의 사리탑이 서쪽에는 규기의 사리탑이 각각 있다. 현장의 원력으로 시작된 구법행은 역경으로 기반을 만들고, 유식학 전파라는 결실을 맺는 과정이 담겨 있는 역사적 현장이다. 한 명의 원대한 원력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뚝 서 있는 세 탑을 보며 새삼 깨닫게 된다.

중국 서안= 신성민 기자



버리고 비워 완성한 '不言의 미학'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⑩ 마쓰오 바쇼의 하이쿠

마쓰오 바쇼(松尾芭蕉, 1644~1694)는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 중 한 사람으로, 시성(詩聖)으로 불린다. 17자로 된 짧은 시 하이쿠로 시문학에 혁명을 가져왔다. 일생을 방랑자로 살았으며,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생을 살다간 바쇼. 그는 하이쿠를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으로 삶 자체가 그의 문학이다. 바쇼의 삶이 작품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으며, 작품 속에는 선적(禪的)인 직관과 깨달음이 담겨 있다.

바쇼는 1644년 이가우에노에서 하급무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3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19살에 사무라이 대장 도도 신시치로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요시타다로부터 하이카이를 배웠는데, 안타깝게도 요시타나는 25살의 나이로 요절했다. 요시타나의 죽음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그는 교토의 절에 머물며 불교에 심취했다. 그는 31살에 교토의 하이카이 종장 기타무라 기긴으로부터 하이쿠 작법의 비전서(秘傳書)를 전수받았다.

하이쿠는 일본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자로 된 하이쿠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이다. 하이쿠는 5·7·5의 음률로 구성된 정형시이다. 계절을 상징하는 시어를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표현하는데 하이쿠의 또 다른 매력이 있다. 하이쿠의 특징은 서술의 부정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에서 말하는 불언(不言)의 언(言)과 상통한다. 바쇼의 하이쿠는 깨달음을 읊은 시라고도 할 수 있다.

바쇼 이전의 하이쿠는 예술성보다는 유희에 가까웠다. 그러나 바쇼는 하이쿠를 예술의 세계로 끌어올렸다. 바쇼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나의 풍아(하이쿠)는 여름의 난로, 겨울의 부채와 같다. 일반 사람들의 취향과는 달라서 아무 데도 쓸데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지향했던 바쇼는 30대 후반부터 은둔과 여행을 반복하며 오로지 하이쿠와 함께 인생을 보냈다.

은둔의 생활, 청빈의 생활

바쇼는 37살이 되던 해에 순탄한 인생을 버리고 에도의 후카가와(深川)로 이주했다. 바쇼는 에도의 대화재로 집이 불타고 살 곳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계기로 바쇼는 무소유의 삶을 살기로 했다. 그는 하이쿠의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지만, 초막을 짓고 은둔생활을 했다.

제자인 리카가 오두막의 정원에 파초를 심었던 것에서 후카가와의 오두막을 바쇼암(芭蕉庵)이라 불렀다. 파초를 좋아한 그는 호를 바쇼(芭蕉)라고 바꾸었다. 그가 파초를 좋아한 이유는 '비바람에 쉬이 찢어지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했다. 불교에서 파초는 유위법의 허망함과 환영(幻影)을 상징한다.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다간 바쇼의 삶은 수행자의 삶과 같았다. 다음은 그의 청빈한 살림살이를 엿보게 하는 시이다.

가진 것 하나/나의 생은 가벼운/조롱박

바쇼는 '나의 삶은 가벼운 조롱박에 비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운명이다' 라고 했다.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기에 가난하다는 생각조차 없고, 오히려 가진 것이 없어 가볍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의지할 곳은 언제나/ 잎사귀 하나/ 벌레의 노숙

바쇼는 한 마리의 벌레를 보면서 속세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초막을 짓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다. 좋은 하이쿠를 쓰겠다고 속세를 떠나왔으니 바쇼에게 의지할 곳은 잎사귀 하나 즉 하이쿠 밖에 없다. 벌레의 노숙이나 자신의 누추한 삶이나 별다를 바가 없음을 말해준다.



일본 이와테현 히라이즈미에 있는 바쇼의 동상. 일본의 '시성(詩聖)'으로 추앙받는 바쇼는 일종의 유희였던 하이쿠를 '불언(不言)의 미학'이 담긴 예술로 승화시켰다.

'詩聖' 추앙된 日문학 대표 문인
5·7·5 음률 하이쿠, 예술로 승화
붓쵸 선사의 인연으로 참선 수행
은둔·방랑하며 禪美의 詩 창작

붓쵸 스님과의 만남

바쇼암에서 멀지 않은 곳에 린센(臨川)암자가 있었다. 바쇼는 기분이 울적하거나 외로울 때면 이 암자를 찾아갔다. 3살 연상인 붓쵸 선사와 만난 것이 결정적인 인연이 되어 바쇼는 선을 수행하게 되었다. 현재 린센암자에 바쇼가 '아침저녁으로 와서 참선 수행을 했다' 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그가 사물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 것도 붓쵸 선사와의 만남 이후다.

어느 날 붓쵸 선사가 찾아와서 "오늘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바쇼가 "비 지나가며 푸른 이끼를 씻었습니다"라고 답했다. 붓쵸는 다시 "푸른 이끼가 아직 생겨나기 전, 봄비가 아직 내리기 전의 진리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1700공안 중 '부모미생전 본래면목(父母未生前 本來面目)'을 떠올리게 하는 물음이다. 이에 바쇼는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라고 답했다. 여기서 나온 하이쿠가 '오래된 연못/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이다. 이와 함께 가장 선적(禪的)인 작품으로 꼽히고 있는 작품을 하나 더 소개한다.

조용함이여/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의 울음소리

인적도 드문 청정하고 정적이 감도는 산사의 풍경을 상상할 수 있다. 바위로 겹겹이 둘러싸인 한적한 산사에 매미의 울음소리만이 요란하다. 영원성을 가진 바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매미의 울음소리는 조용히 견고한 바위를 열고 들어간다는 사고의 전환이 돋보인다.

선시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물은 오직 하나의 '존재'로 존재하는 세계이다. 바쇼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소나무에게 배우고, 대나무의 일에 대해서는 대나무에게 배우면 된다' 라고 했다.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고유한 성질을 느끼라는 것이다. 저마다 가진 존재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바쇼의 안목은 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겨울날의 해/ 말 위에 얼어붙은/ 그림자 하나

방한복을 입었건만 살을 에는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추위에 떨면서 말 위에 웅크리고 있는 이 육신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위로하는 것 같다. 추우면 춥다하고, 더우면 덥다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는 육신이지만 그것은 나의 진정한 본래 모습이 아님을 말하고 싶었으리라.

흰 이슬의/ 외로운 맛을/ 잊지 말라

흰 이슬은 덧없고 무상함을 뜻한다.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인 '일체의 유위법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인생은 덧없고 무상함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나팔꽃이여/ 너마저 나의 벗이/ 될 수 없구나

나팔꽃은 여름에 피는 꽃으로 가을이 되면 자취를 감추는 생명이 짧은 꽃이다. 나팔꽃도 생명이 짧고 나의 생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와 나는 앞으로 더 이상 볼 수 없음을 슬퍼한다. 바쇼는 요시다 겐코의 〈도연초〉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생명이 있는 것을 둘러보면 사람만큼 오래 사는 것도 없는 듯하다. 하루살이는 저녁을 넘기지 못하며, 여름에 우는 매미는 봄가을을 모르고 삶을 마감한다' 라고 했다. 목숨이 길면 그만큼 수치스러운 일도 많아지니 오래 살아 무엇 하겠느냐고 한다.

너무 울어/ 텅 비어 버렸는가/ 매미 허물은

여름 한 철을 살다 가는 매미는 울음으로 한 생을 보낸다. 매미는 짧은 생과 무상함의 표본이다.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매미의 허물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의 상징이다. 매미의 울음은 번뇌망상을 뜻할 수도 있다. 번뇌망상을 모두 비워버리고 난 그 자리에는 나와 너라는 생각도 주관과 객관도 사라지고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다. 텅 빈 상태이다.

방랑자의 삶은 수행자의 삶

바쇼는 에도의 대화재로 덧없는 목숨을 절실히 깨닫고 '불타는 집'의 진리를 자각했다. 그는 평생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삼계가 불타고 있는데 안주 할 곳은 어디며,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을 것이다.

41세에 시작된 방랑은 51세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되었다. 바쇼는 발꿈치가 닳도록 돌아다닌 자신의 방랑을 행각이라 불렀다. 바쇼의 여행기에 '손에는 염주를 들고 있다. 승려처럼 보이겠지만 승려이기보다는 속인에 가깝고 속인처럼 보이겠지만 삭발을 했다' 라는 구절이 있다. 그는 여행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변방 오지로 힘든 도보여행을 떠났다. 진정한 시인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했다. 다음은 첫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남긴 시이다.

들판의 해골 되리라/ 마음 먹으니/ 몸에 스미는 바람

그 당시의 여행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하기만 했다. 여행을 하다 죽어서 들판에 뒹구는 해골이 되어도 좋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이런 시를 남겼다.

어찌 되었든/ 죽지 않았다 눈 속/ 마른 억새꽃

생과 사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물처럼 바람처럼 세상을 떠다닌 바쇼. 바쇼가 느낀 허무 속에는 죽음이 깔려 있다. 죽음이라는 자각이 더 깊은 세계를 추구하게 만들었다. 언젠가는 죽을 운명임을 알기에 세속적인 삶에 이끌리지 않고 은둔과 방랑을 일삼았다.

제비붓꽃을/ 이야기하는 것도/ 여행의 하나

바쇼는 여행이 곧 인생이라고 했다. 인생이 뭐 별 것 있나 꽃을 보는 것도 인생의 즐거움 중 하나이지 라고 읊는 것 같다. 옛 선사들처럼 '도(道)라고 해서 특별한 것 없다. 그저 배고프면 밥 먹고, 차 마시고 잠 오면 자는 것이지' 라는 그런 면모를 느낄 수 있다.

죽음 앞에서 부른 노래

바쇼는 51세에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 나고야를 거쳐 고향에 잠시 들렀다가 교토를 여행한다. 그리고 오사카에서 오한과 두통으로 쓰러져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쳤다. 바쇼는 쓰러지기 전에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서 여러 편의 시를 남겼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시들은 선사들의 열반송과도 같다.

가을 깊은데/ 이웃은 무얼/ 하는 사람일까

어떤 이는 이 작품으로 바쇼는 시성(詩聖)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깊은 가을, 병으로 쓰러졌지만 이웃 사람에게 관심을 돌리는 인간적 온기가 느껴진다. 은둔의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까지도 타인에 대한 관심과 연민의 정을 품고 있는 바쇼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나와 너는 다르지 않음을 깊이 체득한 노래가 아닐까 싶다.

방랑에 병들어/ 꿈은 시든 들판을/ 헤매고 돈다

이 작품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읊은 시이다. 선사들의 열반송과도 같다. 늦가을의 들판은 성장을 멈추고 땅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어 추레한 빛이다. 저만치 달려가는 가을을 보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생을 들여다본다. 하이쿠에 전 인생을 걸고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한바탕 꿈처럼 느껴진다. 고독과 은둔 속에서 살아왔지만 한 줄기 회한은 왜 없겠는가? 죽음 앞에서도 하이쿠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고 저먼 세계를 떠도는 나그네의 삶으로 남아있다. 매일 매일이 여행이요, 시간 속을 걷는 나그네임을 누구보다도 깊이 느낀 바쇼의 감성이 느껴진다.



방랑미학의 실천자로 그는 속세를 떠나 하이쿠의 예술세계를 완성했다.

문윤정(수필가 · 여행작가)

창사 36주년 기념 -
전 품목 25% 할인 판매 단행
※ 기간 :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5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12월 4일까지
◆ 개 강 일 :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리더에게 聽하다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불교계 非法 요소 걷어내는 것,

〈점·복 등〉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은…1947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서울 교동초, 서울사대부중, 서울사대부고를 나왔다. 고려대 공대 65학번 입학 후 동국대 인도철학과 67학번으로 입학했다. 영남대 철학과에서 문학석사를 동국대 철학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부터 31년간 동국대 윤리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3년간 인도 네루대에서 객원교수로 있었다. 동국대에서 교무처장, 부총장을 역임했으며, (사)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현대인의 불교〉 〈History of Korean Buddhist Thought(영문판)〉 〈동아시아불교교류연구(공저)〉, 〈Master Wonhyo(원효성사) 영문판〉 등 다수가 있다.

매일 5시면 FM 101.9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목소리가 있다. 바로 정병조의 '무명을 밝히고' 코너다. 이 코너를 진행하는 이는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백발의 신사가 된 그는 라디오를 통해 불자들을 만나고 있다. 그는 매일 매일 불자들을 상담하고, 불교 현안에 대한 현답을 제시하고 있었다. 한국불교가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온지 오래, 정 前 총장을 만난 것은 이런 그의 소통과 식견을 얻기 위함이었다.

정병조 前총장은 그 누구보다 한국불교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던 이다. 그가 처음부터 불자였던 것은 아니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정 前 총장은 당초 1965년 고려대 공대에 진학한 공학생이었다. 2학년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서울 동숭동에서 철학 특강을 듣고 그는 '한국철학'에 흥미를 갖게 됐다.

'한국철학을 세계화 시킨다'는 당시 강사 故 박종홍 선생의 한마디는 그의 가슴에 일종의 사명감을 새겼고 이후 불자로서의 길을 걷게 했다.

한국철학에 대한 책을 한 권씩 읽던 그는 곧 벽에 부딪쳤다. 바로 '불교'라는 벽이었다. 목사와 장로, 권사 등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그는 결심한다. '불교란 과연 무엇일까?'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그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그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동국대로 이끌었다. 다니던 고려대 공대를 중퇴하고 속성으로 공부를 해 인도철학과에 합격했다. 인도철학과 2기, 67학번이었다.

집안의 반대에도 정 前 총장은 열심히 학업에 매진했다. 주말이면 학과 동기 스님의 절에 가 놀고, 방학이면 살았다. 습자지에 물이 배듯, 그는 불자가 됐다. 기독교적 성장 과정과 불교적 사상 배경은 그가 종교적 편견을 갖지 않고 균형있는 시각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됐다.

동국대에는 정 前 총장과 비슷한 배경을 지닌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의 은사인 故이기영 교수였다. 이기영 교수는 가톨릭으로 개종해 노기남 대주교의 주선으로 벨기에 루뱅가톨릭대와 프랑스 파리대에서 공부했다.

정 前 총장의 말에 따르면 이기영 교수는 그에게 학자적인 양심과 연구태도를 심어줬다. 이와 함께 원효사상을 발굴한 그는 학문연구의 방향을 설정해주었다.

법정 스님과의 인연도 당시 젊은 학생이었던 정 前 총장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법정 스님을 보며 정 前 총장은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대한 꿈을 키웠다.

1960년대 불교경전은 한자로 돼 있었고, 불교 경전 번역은 불교 대중화와 현대화의 큰 과제였다. 법정 스님은 서경수 前 동국대 교수와 〈우리말 불교성전〉 편찬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정 前 총장은 이 작업에 동참하게 됐다. 법정 스님의 격려는 정 前 총장에게 큰 힘이 됐다. 그는 학내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학생들과 '대학생불교연합회'를 꾸렸다.

이런 학업에서의 과정을 이어 1990년대 불교 세계화와 최근의 불교 현대화까지 정 前 총장이 꿈꾸는 불교의 미래는 한 방향이다. 정 前 총장과의 만남은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게 했다.

Q: 정병조의 '무명을 밝히고'에서 매일 불교계 현안을 다루시고, 현문우답으로 불자들의 신행상담도 하고 계십니다. 라디오를 통해 직접 불자들과 소통하는 소감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불교계에서 스승이 없다는 말도 들립니다. 대중들과 소통이 중요할 때인데요. 불교계가 어떤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직접 대중들과 매일 만나다보니 불교 뿐만이 아니라 불자들의 의식이 변하는 것을 체감합니다. 1980~90년대에는 불교교리에 대한 지적인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불교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 대중화·현대화 꿈 키워

이기영 박사에 학문 방향 영향 받아
대학시절 〈우리말 불교성전〉편찬 동참
대학생 불교연합회 창립… 본격 연구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문제에 대해 '왜 우리 불교가 침묵하고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틱낫한 스님이 말한 참여불교로 불교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중들이 기도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불교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는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인류를 위해, 불교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리더쉽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교학이나 교육에서 활동해 온 사람으로서 이런 변화에 책임을 느낍니다.

Q: 불교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불자들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불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사회가 다변화된 것처럼 불교의 참여범위도 한없이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자들에 해당되지만 미래의 불교발전을 위해서는 '생활불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불교로 변화해야 합니다. 집을 옮기는 것, 결혼하는 것 등이 불교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불교생활화가 이뤄지고, 자연스럽게 불교신행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현대사회가 첨예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서양에 비해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가장 먼저 사회복지 개념의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봉사의 날로 정합니다. 무연고 봉사자로서 센터에 가서 봉사장소 등을 배당받게 됩니다. 지붕을 고치고, 길에서 꽁초를 줍고 이런 것이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1년에 한 번 만이라도 노숙자들에게 팥죽을 떠서 나눠준 일이 있는가', '어려운 분들과 함께 어울린 적이 있는가' 등을 돌아보면 반성할 일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군포교에 대한 관심입니다. 군포교 상황은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군법당은 많은데 법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법당 서너군데를 법사 한 두 명이 뛰는 상황입니다. 종단 차원에서 문호를 열어 재가 법사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출가자의 수가 급감했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가 불자들이 사찰을 맡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당에 모인 불자 장병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 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불교는 향후 10년, 20년 내에 위기가 옵니다. 출가자는 감소하고 사찰을 비워 놓을 수도 없습니다. 불교 저변의 여러 가지 변화 상황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Q: 정 前 총장님께서는 불교의식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아직 불자 개개인이 변화해야 할 지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비법(非法)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점·복'입니다. 불자분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비법에는 분명한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의 목표가 이기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사홍서원에서 나오는 모든 중생을 위한 것 등이 필요합니다. 극복해야 할 대상인 것이죠. 하나하나 불교계 내의 비법적 요소를 걷어내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Q: 한국불교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인문학의 전반적인 쇠퇴로 인해 불교학의 위기도 곧 다가올 것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불교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문학의 위기는 불교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교학 진흥을 위해서는 불교학의 트렌드가 변화한다는 인식을 일반 불교학자들과 불자들이 해야 합니다. 트렌드는 과거에는 교학 중심이었습니다. 화엄, 법화, 선종 등 냉정하게 말하면 훈고학적 문헌학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21세기 들어서며 불교학의 경향이 응용불교 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과거에는 불교적인 인식을 갖고 사회를 본다든지, 불교사회학, 불교경제학을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진일보 하여 명상이 인간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연구합니다. MRI공명장치를 통해 행복지수를 계산합니다. 하버드와 스탠포드, 에모리 3



한국불교 새 변화의 첫 걸음

개 대학이 선두주자인데, 이들 대학의 실험에서 티베트 스님들을 통해 기계가 고장났다고 평가할 정도로 높은 지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돈은 철저히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게다가 독신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이라는 것의 반대되는 상황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미래의 불교는 이런 응용불교를 통해 과학을 불교로 끌어들이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쇠퇴가 반드시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옛날에는 인문학자들 사이에서는 불교교학을 공부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과학하는 사람들, 의학하는 사람들이 '불교 안에 무엇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학의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이 시대 불교학자들에게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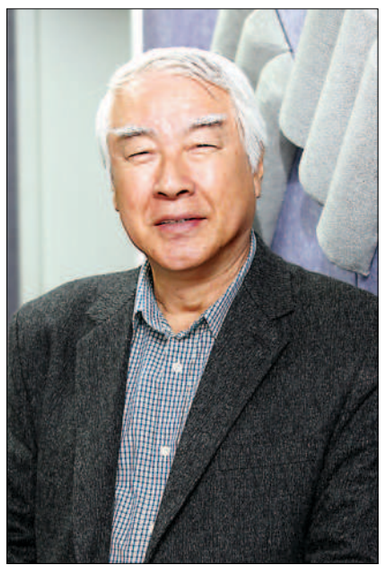
Q: 금강대 총장으로 계실 때는 소수정예 특성화로 작지만 강한 대학을 육성하는데 주력하셨습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학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립학교 발전에 불교계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종립대학은 3개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불교계 3개 대학은 부처님의 도량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대학 자체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교계의 인식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4년제 대학이 육사 등을 포함하여 242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교 종립은 3곳이고, 기독교 종립은 100곳이 넘습니다. 이런 현실이 된 것에 불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종립 불교대학의 발전이 곧 불교발전입니다. '불교의 모든 분야에서 동국대학이 없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십시오. 끔찍하지요. 정말 만해 한용운 선생님부터 미당 서정주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교대학이 가진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 밖에 두고 있었습니다. 교계가 적극적으로 종립대학 발전을 위해 나서는 것이 불교 발전의 씨앗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Q: 불연 이기영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불교학에 매진하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故이기영 선생님의 입적 20주년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기영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기영 선생님은 현대불교학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원효연구로 이름을 날리셨지만 불교학 발전에 한문문헌 위주보다 원어 중심의 원전연구 방향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기영 선생님은 특히 산스크리트어를 중심으로 하는 원류적인 불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불교가 발전하려면 비교사상적인 측면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불교, 불교만 하면 발전이 없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철학보다는 불교사상을 다른 역사학, 유학, 가톨릭 등과 비교해 드러내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대불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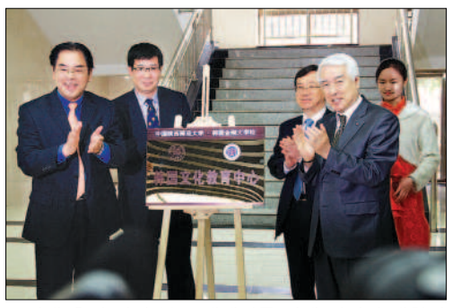


21세기 불교학 응용불교로 전환

미래불교는 과학 끌어들이는 노력 필요
불교학 트렌드 환경 살펴봐야할 시점
시대흐름 읽고 변화에 빨리 대비 해야



금강대 총장 시절 학생들과 소통하는 모습.



금강대 총장 시절 불교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대학과 교류를 진행했다.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부 때부터 시작해서 석 · 박사를 받고 교수가 돼서도 그분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이 언젠가 술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자네는 참 전공선택을 잘했다' 고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프랑스 유학 당시 얘기였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집에 돈이 있고, 학문을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절박했을 때입니다. 이기영 선생님의 어머님은 대구 피난시절에 길에서 담배와 껌을 파는 입장이었고, 당신 아내는 아이 둘을 둘러업고 서문시장에서 야채를 다듬어 파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유학에 가니 심정은 오죽 했겠습니까.

꼭 학위를 해야겠다는 절박함이 있는데 비교적 자신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수강을 했는데, 몇 과목을 낙제를 했다고 합니다. 참 충격이지요.

낙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고대 히랍의 문학 등 수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호마의 시 등을 라틴어로 줄줄 외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은사가 고민하는 이 박사를 불러 '자네는 동양 사람이 서양사를 왜 하느냐' 고 했습니다. '불교는 서양 사람들이 못따라간다. 장점을 살려야 하지 않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안 겪고 불교를 바로 배우니 얼마나 행운아냐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기영 선생님은 외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분은 불어,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일본어, 영어, 라틴어까지 할 줄 아셨습니다. 어학 실력이 일단 압도가 됐습니다. 이기영 선생님은 외국어 공부를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외국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한국불교의 과제인 세계화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평소 많은 수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하시는 수행을 소개해주시고, 독자들에게 추천해 주십시오.

수행이라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새벽 예불을 모시는 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염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불이 정신집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마음챙김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염불을 합니다. 매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평정심과 정신집중인데 염불이 요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염불을 일상화 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소중한 수행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와 인연을 맺는 모든 생명에게 어떤 경우에서도 상처를 주면 안되겠다' 는 마음가짐입니다. 예전에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대중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조심조심히 살고 있습니다. 늙은이의 지혜라고 할까요?(웃음)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작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자분들도 거창한 수행보다 작은 마음가짐 하나 하나 항상 염두에 두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현재 원로학자로서 정 前 총장은 한국불교를 어떻게 하면 대중화, 세계화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매일 라디오를 통해 불자들을 만나 일종의 계몽활동에 앞장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부처님의 진리에 얼마만큼 다가서느냐, 또 이를 사회에 어떻게 환원시키느냐가 미래 불교다. 믿는데 그치지 말고 현실에 응용해야 한다"는 그의 모습에서 불교의 미래를 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마음의 주인

어느 남자 어르신을 상담할 때였다. 고된 노동으로 평생을 보내셨고 떨어져 사는 가족들과 사이도 좋지 않은 분이셨는데, 신세한탄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자기 상황에서 어찌하면 좋을지 똑 떨어지게 답해달라며 졸랐다.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고 말을 돌리니 그만 화가 폭발하셨다. "이게 무슨 상담이냐. 원 이거 해서 밥이나 먹는 놈인지 모르겠다"며 화를 내시는데 여간 당황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상담이란 거울 같은 것. 차분히 이해시키고 달래드리니 조금씩 화가 누그러져갔다.

찔끔찔끔 눈물을 쏟고 이런 저런 후회를 하며 해묵은 감정들을 묶고 풀기 여러 번, 그러다가 문득 한마디를 하셨다.

"그래도 나 착한 늙은이여, 마누라는 그래도 나 오래 살기 바랄거야." 패인 주름 사이로 빛나는 눈빛을 비롯해 그 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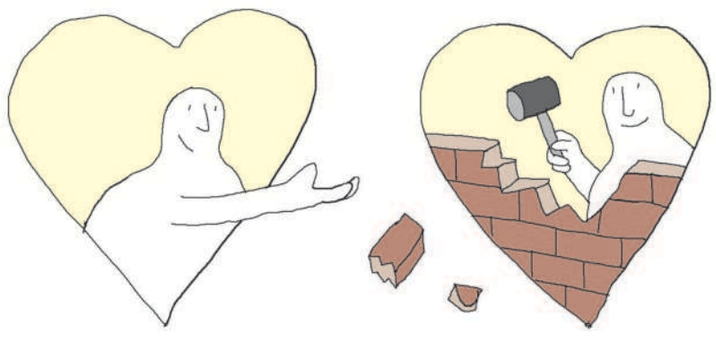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첫 표정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다. 그리고 이 분이 나에게 진정 바라던 것이 과연 그 똑 떨어지는 답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상담사는 왜 늘 시원하게 정답을 짚어주지 않을까? 그것은 상담사를 찾아온 내담자를 상담에 의지하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주체적 인간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마음의 주인을 공경하기 위한 약속인 것이다.

정신과 낮병원에서 상담을 하는 선생님들에 따르면 상담 프로그램이나 놀이치료 기간이 끝나더라도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곧 다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상담행위 자체에서 안도감을 얻는 것 같다고 한다. 누군가의 마음을 돕던 상담행위가 어쩌면 마지막에 가장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부처님의 생애 마지막 말씀 중 '자등명 법등명' 의 '등(燈-light)' 이 사실은 '섬(島-island)' 의 한자 오역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새삼 깊은 깨달음을 던진다. 우리는 섬처럼 홀로 이 세상에 나타났으며 지혜는 오직 스스로를 의지해 찾아야 함을 잊지 말라는 간곡한 당부가 아닐 수 없다. 꼭 상담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스승과 제자, 직장이나 학교의 선후배, 친구 관계에서 권위와 지식을 앞세워 다른 이의 생각과 판단을 빼앗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현재 불교상담에서 최고, 최상의 멘토로 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과 그 설법이다. 부처님 시대에 많은 제자와 장자, 귀족, 여러 직업의 사람들은 괴로움과 고민들, 진리추구의 방도를 부처님께 직접 묻고 답했다. 하지만 그 어느 경우든 부처님께서 해답을 내리고 일방적으로 그것을 따르게 한 경우는 없었다. 사람들 스스로 알아차리고 주체적인 모습으로서 번민을 떨쳐 일어설 수 있도록 했다. 〈금강경〉에서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로 나타나는 환기적 화법을 떠올려보자. 부처님은 설법을 하실 때마다 일일이 소통을 통해 사람을 일깨우셨고 결국 어떤 상대든 불성을 일으키셨다. 마음의 주인을 대하는 부처님의 변치 않는 자세였다.

불교상담이 서구 상담심리학계의 허점과 의문점을 지혜롭게 채워갈 수 있던 저력은 오롯이 인간의 정신적 본질과 소통에 대한 치열한 사유정신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부대끼고 사는 일상생활에서도 서로의 소통과 믿음이 더 자연스럽게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그 중심이 되는 철학을 부처님의 설법과 논리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저마다 귀한 마음의 주인이시다.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평소 잘 귀담아 들어주고 사랑하셨으면 좋겠다. 모두의 마음이 부처님을 빼닮아서 좋은, 달처럼 환하게 소통하는 세상을 간절히 기도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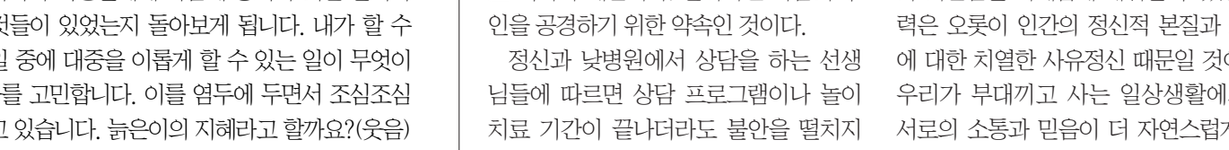


신동찬(불교상담심리사 ·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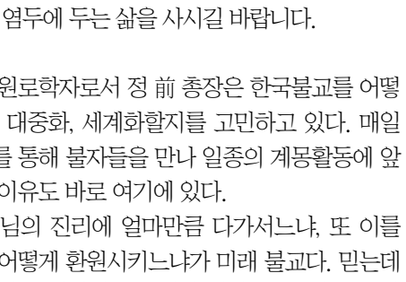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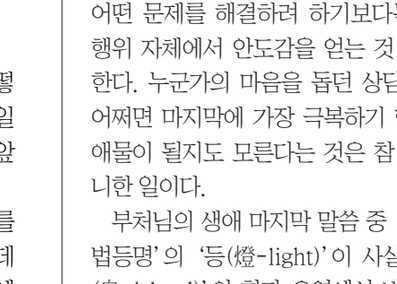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기신론의 핵심 내용 '여래장심'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의 핵심 내용은 중생의 여래장심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의 두 문을 나누어 부처의 깨달음(覺)과 중생의 미혹(惑)을 설명한다. 본문에 "일심법에 의지하여 두 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심진여문이고 둘째는 심생멸문이다. 이 두 가지 문이 각각 일체법을 총괄한다. 총괄한다는 것은 이 두 문이 서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依一心法 有二種門 一者 心眞如門 二者 心生滅門 是二種門 皆各總一切法 此義云何 以是二門 不相離故)"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기를 진여문과 생멸문은 서로 떨어져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 하고 두 가지 문이 각각 서로 일체 법을 총괄 포섭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기신론의 요체를 일심이문으로 파악한 말이다. 일심(一心)이 바로 여래장심이다. 원효는 이 대목을 그의 소(疏)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열면 한량없고 끝없는 뜻이 되어 근본 종지(宗旨)가 되고, 합하면 이문일심의 법이 요체가 된다. 두 문 안에 수많은 뜻을 포용하여도 어지럽지 않고, 끝없는 의미가 일심과 하나가 되어 뒤섞여 있다. 그러므로 열고 합함이 자유롭고, 세우고 허무는데 걸림이 없다. 열어도 번잡하지 않고 합해도 비좁지 않으며, 세워도 얻음이 없고 허물어도 잃음이 없다. 이것이 기신론의 저자 마명의 기묘한 기술이다."

이렇게 기신론의 우수성을 나타내면서 일심이문의 근본대의를 찬탄해 놓은 것이다. 〈종경록(宗鏡錄)〉에도 일심이문에 대해 설해 놓은 말이 있다.

"일심의 법계는 두 문을 갖추어 포함한다. 하나는 심진여문이고 둘은 심생멸문이다. 비록 이 두 문이 모두 각각 일체 법을 총괄적으로 포섭하고 있으나 이 두 문은 항상 섞이지는 않는다."

진여와 생멸에 의해서 모든 존재의 사물이 나타나게 되지만 생멸에 의한 망념에 의해 차별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망념을 떠나면 일체 차별의 경계는 없다. 변하거나 달라지지 아니하며 부서지지도 않으며, 오직 일심일 뿐이므로 이것을 '진여'라고 한다. 그런데 진여 곧 불생불멸하는 것이 생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해 있기 때문에 생멸과 얼마든지 화합한다. 이 이치를 불변(不變)과 수연(隨緣)이란 말로 설명한다. 심진여문은 중생심의 심체(心體)가 변하지 않는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심생멸문은 중생심이 인연을 따라(隨緣) 응용되는 측면이다. 불생불멸(不生不滅)하고 부증불감(不增不減)하는 진여가 일체 차별된 모습을 떠나 있지만 동시에 인연을 따라 생멸하고, 염정(染淨)의 차별상을 일으킨다.

중생이 곧 부처임을 강조

일심으로 '일진법계' 이뤄

〈능가경〉에 "적멸(寂滅)한 것은 일심이라 이름하고, 일심이란 여래장(如來藏)을 이름한다"는 말을 원효는 '적멸한 것을 일심이라 이름한다'를 심진여문이라 하였고, '일심이란 여래장을 이름한다'는 말을 심생멸문이라 해석하였다.

또 일심의 체(體)는 본각(本覺)이지만 무명을 따라 움직여 생멸하기 때문에 생멸문에서 여래의 본성은 숨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래장이라 한다 하였다. 또 법장(法藏)의 〈기신론의기〉에서는 원효가 말한 일심을 여래장심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했다. 이 여래장심(如來藏心)이라는 말은 진여와 생멸을 하나로 합쳐 부르는 말이다. 다시 말해 진여가 무명의 망연(妄緣)으로 말미암아 생멸로 전환되어 염정(染淨)의 차별상을 일으키지만 이는 체(體)에서 용(用)이 일어난 것이므로 체인 진여와 용인 생멸을 하나로 합쳐 부를 때 여래장심이라 한다는 것이다. 진여가 생멸이고 생멸이 진여인 체용불이(體用不二)가 일심(一心)의 본성이다. 마음 전체가 생멸상이 되어도 불생멸의 성품을 잃지 않는다. 이미 아려야식에서 설명하였듯이 진여의 불생멸과 생멸이 일심에서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관계로 통일되어 있는 여래장심이므로 이 여래장심에서는 중생이 곧 부처이고 또한 열반이며, 범부의 일심에 의해 부처와 보살이 평등해지며 같은 경지가 되어 다 같이 일진법계(一眞法界)를 이룬다는 것이다.

애착과 탐심, 보살심의 敵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⑰보살이 육신을 희사할 때

貪愛重者多得財時歡喜無量。不及菩薩捨身歡喜百千萬倍。菩薩以智慧悲心為體。為眾生故求於法身。菩薩捨身時樂勝於世人得轉輪聖王自在快樂。如刹利種若壞敵陣。能捨身命得生天上。捨身命時歡喜無量。菩薩以智慧悲心捨於身命時歡喜最勝。復過於彼。凡愚眾生為財利故在於敵陣捨於身命。成為解脫投巖赴火喪身無數。況復菩薩以智慧悲心為一切而不捨身命。愚癡眾生以愛著心為國土故捨於身命。菩薩智慧悲心為物而捨身命。何足為難。(탐애중자다득재시환희무량。불급보살사신환희백천만배。보살이지혜비심위체。위중생고구어법신。보살사신시락승어세인득전륜성왕자재쾌락。여찰리종약괴적진。능사신명득생천상。사신명시환희무량。보살이지혜비심사어신명시환희최승。부과어피。범우중생위재리고재어적진사어신명。성위해탈투암부화상신무수。황부보살이지혜비심위일체이불사신명。우치중생이애저심위국토고사어신명。보살지혜비심위물이사신명。하족위난。)

번역

탐욕과 애착이 심한 이는 많은 재물을 얻을 때 기쁘기 한량 없지만 보살이 몸을 희사하여 얻는 기쁨에는 백천만 배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보살은 지혜와 자비로써 근본바탕을 삼고 중생을 위하는 고로 구제함을 법신으로 삼습니다. 보살이 몸을 희사할 때의 기쁨은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 전륜성왕의 자재한 쾌락을 얻나니, 찰리종(刹利種)이 적진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능히 몸과 목숨을 희사할 수 있다면 천상에 태어남을 얻거니와 몸과 목숨을 희사할 때의 기쁨은 한량없지만 보살이 지혜와 자비로써 몸과 목숨을 희사할 때의 기쁨이야말로 가장 뛰어나거니와 다시 그보다 큽니다. 범부인 어리석은 중생은 재물과 이익을 위하여 적진에서 몸과 목숨을 버리거나 해탈을 이룬다며 바위에서 뛰어내리거나 몸을 태우는데 나아가는 일이 무수합니다. 하물며 보살이 지혜와 자비로써 일체를 위해 몸과 목숨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중생은 애착심으로써 국토를 위해 몸과 목숨을 버리거니와 보살은 지혜와 자비로써 몸과 목숨을 버림에 만족하거나 어려워하겠습니까.

해설

보살이 중생을 위해 몸과 목숨을 버리는 일은 군대의 수장 계급을 이르는 찰리종(刹利種)이 적진을 무너뜨리는 것과도 같은 기쁨을 얻는다고 하였다. 보살의 적이 따로 있을까만, 만약 보살의 적이 있다면 바로 애착과 탐심일 것이다.

화엄경 〈보살문명품〉에 재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게송으로 "지혜 있는 이는 능히 관찰할지니 일체의 존재는 무상한 것이라. 모든 법은 공하여 나라 할 것 없나니 영원히 일체 모양 떠나버렸기 때문이라네"라고 하였다.

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중생에게로 나아가 실천하는 이거니와 〈대장부론〉을 통해 제바라보살은 보살의 무아상(無我相)의 실천을 뛰어넘어 자신을 희생에 한량 없는 기쁨을 느낀다고 하였다.

어리석은 이는 명예와 재물을 위해 전쟁에 나아가 목숨을 버리거나, 깨달음을 얻겠다고 자신을 학대하는 고행을 하거니와, 지혜를 실천하는 보살이 중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희생이라는 말도 제3자가 보는 시각이지 보살 자신은 희생이라는 말이 가당찮다. 그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한량없는 기쁨일 뿐이기 때문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새벽 명상

몸의 움직임이 불편할 만큼
이따금씩 아파야 한다.
병(病)이 있어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배가 고파야
먹거리가 약인줄 안다.
헤어졌을 때
잃어버렸을 때
어둠이 무엇이고
아픔이 어떠한지
사람은 늙어서도 철이 든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떠나갈 수 있는 것
만날 수 있듯
헤어질 수 있는 것
오늘 새벽도
나무침대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다보며
작별을 연습한다.
나,
언젠가는
한 점 바람이듯
흔적 없이 사라져 갈
허무의 존재임을.

생각에 지옥과 극락이 엉켜 있어 보살과 투사가 둘이 아닌 하나로 빛이 되고 어둠이 된다. 염기염멸(念起念滅)이 생사윤회(生死輪廻)를 불러들이지만 한 순간에도 한 생각에도 육도윤회는 작동을 멈추지 않는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꾸밈과 조작을 벗어버린, 드러냄과 감춤이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습관의 고리는 생명의 무게처럼 질기고 길다.

늙음을 곱게 받아들이며 곱게 늙는 모습도 삶의 지혜이자 결과물일 수 있으나 백팔 번뇌는 주름살처럼 흰 머리카락처럼 촘촘히도 박혀 개운함을 멀리하고 있다. 비어있으면 편안하고 버리면 개운한 머묾이 없는 삶을 즐겨왔지만 돌이켜보면 절반은 흔들리고 절반은 헐떡이면서 행복과 자유 사이를 방황하는 나그네였다. 누구에게나 오늘은 소중하고 오늘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고 넉넉하게 살고 싶겠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윤회(輪廻)의 세계는 멈춤이 없어 빛과 어둠 사이에서 지킬도 되고 하이드도 되는 것이다.

꾸밈없는 자연인이 선지식의 삶
비움으로 충만을, 버림으로 얻음을

새벽에 어제의 일을 돌이켜보면 까마득한 전전생(前前生)의 일인듯 하다. 만나고 헤어짐은 한 생각의 일어남과 사라짐이다. 한 생각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담겨있고 한 생각 속에 설렘과 아쉬움, 웃음과 눈물방울이 떠다닌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미 떠난 도반들이 많다. 한분 한분의 행적과 수행모습이 또 하나의 교과서처럼 싸한 아픔으로 다가온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를 일이나 작별을 연습하며 질긴 모습을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 남는 것은 빈손인데 삭신은 정직하게 온갖 병을 불러들인다. 온 몸의 나사는 느슨하게 풀려 작동의 멈춤을 예견할 수 있게 경고음을 곳곳에서 들려준다. 어느 사이 머리 허연 짐승이 되어 거울 속에서 웃고 있지만 추억의 숲에 일고 있는 바람으로 눈물방울이 가랑잎처럼 비눗방울처럼 떠다닌다. 글쎄, 산다는 것이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해질녘 타작해보면 쭉정이 뿐인 검불 같은 비듬뿐이다.

알곡 몇 알 건져낼 수 없는 허무의 그림자만 빈터의 바람처럼 싸하게 온 몸을 휘감고 돈다.

한 생각에 전생, 내생이 담겨있고 한 생각에 지옥과 극락이 엉켜 있어 보살과 투사가 둘이 아닌 하나로 빛이 되고 어둠이 된다. 염기염멸(念起念滅)이 생사윤회(生死輪廻)를 불러들이지만 한 순간에도 한 생각에도 육도윤회는 작동을 멈추지 않는다.

살면 글쎄 얼마나 살겠다고 모으고 챙기며 쌓아 두려하는지 죽음의 문턱에 이르면 허무의 그림자 같은 뼈저린 후회를 느낄 터이다. 생전에 나누는 기쁨, 비우는 개운함으로 자유를 연습하며 자연인의 행복을 누리는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드러내고 감출 것 없이 있는 그대로의 꾸밈이 없는 자연인의 삶이 선지식의 삶이다. 돈과 명예 주변에 멈춰있으면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벗어버리고 비워내고 버리며 떠나는 사람만이 해탈자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 수행자라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틀과 형식에서 자유로워야한다.

그러나 상식이 통하고 기본에 충실한 사람다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허울과 허세, 물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머묾이 없는 자연인의 자유가 해탈이다. 고삐와 굴레를 벗어버린, 무위(無爲)의 삶이 자연인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해탈자의 삶이다.

비어 있으므로 충만할 수 있게, 버림으로 얻을 수 있게, 이 새벽, 나무침대에 앉아 세상을 열고 있다. 빛과 어둠이 하나일 수 있게.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17세기 중반 불상이 계속 발견되는 조각승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㉒ 회감(懷鑑) 스님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많은 조각승 가운데 몇 명의 스님이 수화승(首畵僧)으로서 제작한 불상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조성발원문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불상의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대의 처리 등 양식사적 검토를 통하여 작가를 추정하였지만, 근래의 불상 조사가 진행되면서 복장으로 봉안하였던 조성발원문 등이 발견되어 스님의 활동이나 계보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조각승이 회감 스님이다. 스님은 5년 전만 해도 2점밖에 기년명 불상이 조사되지 않았지만, 계속적인 학술조사가 이어지면서 기년명 불상 1점과 관련 기록 2건이 추가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화승으로 활동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회감 스님은 인균(印均) 스님의 계보를 잇는 작가로, 1640년부터 1650년대까지 많은 불상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조각승 회감 스님이 태어난 때와 승장(僧匠)이 된 배경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회감 스님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통해 활동 시기와 계보를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 스님이 수화승으로 활동하기 이전 불상 제작에 참여한 가장 빠른 작품은 1633년에 수화승 인균 스님과 조성한 전북 김제 귀신사 영산전 목조삼존불좌상과 나한상이다. 이 때 회감 스님은 12명 가운데 5번째 언급되어 1630년대부터 조각승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귀신사 응진전 불상을 수화승으로 조성한 인균 스님은 17세기 전·중반에 활동한 조각승 가운데 대표적인 작가이다. 인균 스님은 1615년부터 1655년까지 활동했기에 회감 스님과 활동 시점이 30여 년 정도 차이가 나서 사제지간으로 보인다. 이후 회감 스님은 수화승으로 1661년 5월에 강원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을, 6월에 전남 강진 무위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을 조성한 것으로 보아 두 지역의 불상 제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스님은 1666년에는 수화승으로 전북 군산 불주사(舊 불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의현 스님과 함께 제작하였다. 이후 회감 스님은 1678년에 응혜 스님이 지리산 소은난야(小隱蘭若)에 목조대세지보살좌상(광양 무등암 봉안)을 만들 때, 대공덕주(大功德主)로 참여하였다. 광양 무등암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은 원래 아미타삼존불좌상으로 조성된 불상이지만, 아미타불과 관음보살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삼존불이 봉안되었던 소은난야(小隱蘭若)는 조선후기 문헌에 언급된 기록이 전무하여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밝혀진 발원문 등을 중심으로 회감 스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1610년을 전후하여 태어나서 1633년에 인균 스님 밑에서 보조화승(補助畵僧)으로 불상 제작의 수련기를 거친 후,



1661년 제작 강진 무위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1661년 제작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1666년 제작 군산 불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사진제공=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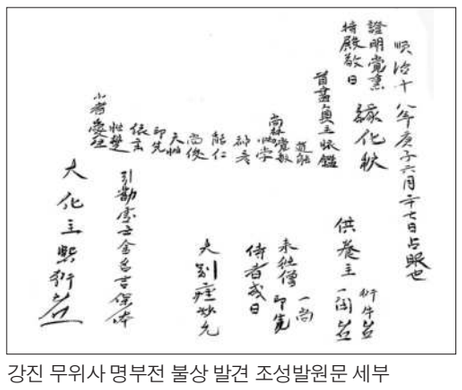
조각승 인균 계보 속한 스님
1660년대 수화승으로 활동
무위사와 상원사 불상 조성
전국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

1661년에 평창 상원사와 강진 무위사 불상, 1666년에 군산 불주사 불상을 제작하였다. 스님은 앞선 기록으로 살펴볼 때 1660년대가 조각승으로서 최고의 절정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678년에 불상 제작의 공덕주로 참여하여 70여 년 동안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스님이 불상을 제작한 지역은 전북 김제와 군산, 전남 강진, 강원 평창 등으로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조각승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밝혀진 회감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인균(印均, -1615-1655-)→ 회감(-1633-1678-) → 상림(尙林, 尙琳, -1649-1661-), 신언(神彦, -1661-), 의현(義玄, 依玄, -1661-1666-)으로 이어진다.

회감 스님의 후배로 추정되는 상림(尙林, 尙琳) 스님은 1649년에 사인 스님과 순창 만일사 불상(포천 동화사 봉안)을 제작한 후, 같은 해 수화승 무염 스님과 대둔사 묘련암 목조보살좌상을 조성(남양주 불암사 봉안)하고, 1661년에 회감(懷鑑) 스님과 전남 강진 무위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조성에 부화승으로 참여하였다.

회감 스님이 만든 대표적인 불상은 전라남도 강진군 월하리 월출산 밑에 위치한 무위사(無爲寺)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다. 이 사찰은 1739년에 작성된 〈전라좌도월출산무위사사적기(全羅左道月出山無爲寺寺蹟記)〉에 의하면 617년에 원효대사가 관음사(觀音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한 것이라고 적혀 있지만, 617년은 원효가 태어난 연도라서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946년에 세워진 선각대사편광탑비에 선각국사 형미(逈微, 864-917) 스님이 905년에 무위갑사(無爲岬寺)에서 거주한 기록이 남아있어 최소한 10세기 전반에 운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무위사에는 삼층석탑,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삼존불상, 목조지장보살상 등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남아있다.



강진 무위사 명부전 불상 발견 조성발원문 세부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명부전 내 수미단에 봉안된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높이가 129센티미터로, 조선후기 제작된 중형 불상이다. 지장보살은 약간 상체를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로, 머리는 민머리의 성문비구형(聲聞比丘形)이고, 타원형의 얼굴에 반쯤 뜬 눈은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코는 콧날이 뾰족하며, 입에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따로 제작된 오른손과 왼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은 채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댄 수인(手印)을 취하고 있다.

대의 안쪽에 편삼을 걸치고, 오른쪽 어깨에 대의자락이 가슴 위에서 짧게 한 번 접힌 후, 옷자락은 팔꿈치와 복부(腹部)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편삼과 자연스럽게 접혀 있다. 특히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은 배 부분에서 수직으로 내려와 좌우로 대칭이 되는 옷자락이 늘어져 있고, 옆으로 가늘게 몇 가닥의 주름이 펼쳐져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이전에 제작된 기년명(紀年銘) 불상에서 볼 수 없는 회감(懷鑑) 스님이 제작한 불상의 하반신 표현이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僧脚崎)는 가슴에서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완만하게 접혀 있다. 불상의 측면은 어깨선을 따라 두 가닥의 옷주름이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앞자락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한 가닥의 옷주름이 늘어져 접혀 있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의 좌우에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을, 나머지 좌우 벽면을 따라 시왕상을 배치하였다. 시왕상은 홀수 번호를 향우측(向右側)에, 짝수 번호를 향좌측(向左側)에 놓고, 그 뒤로 귀왕과 판관을 배치하였으며, 입구에 인왕상을 세워 놓았다. 도명존자는 지장보살과 동일한 수인(手印)을 하고, 둥근 얼굴에 이목구비는 지장보살과 같다. 이와 달리 무독귀왕은 역삼각형의 얼굴에 날카로운 인상을 하고 있다.

시왕상은 모두 의자에 앉은 자세로 염라대왕을 제외하고 높은 관을 쓰고, 융복과 곤룡포를 입고 있으며, 허리에 묶은 광다회가 길게 늘어져 있다. 책이나 경전을 펼쳐든 2구의 시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왕은 긴 홀을 들고 있다. 그런데 열 번째 시왕상은 다른 시왕상과 달리 이마에 잔주름이 표현되고 입은 복식에 많은 차이가 있어 다른 시왕상과 시기와 작가가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론은 발원문의 내용 중에 열 번째 시왕을 제작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북 군산 불주사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개금불사 시 내부에서 가로 62.5cm 세로 88cm 내외의 한지 1매에 기록된 발원문이 조사되었다. 발원문에 "강희오년 병오 중춘(康熙五年歲次丙午仲春)… 화원(畵員) 회감(懷鑑) 부(副) 의현(義玄)…"이라고 적혀 있다. 목조여래좌상은 높이가 88cm로, 앞서 살핀 강진 무위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머리 부분을 제외하고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머리는 뾰족한 나발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가 표현되었고, 육계 밑에는 머리 정상부에 반원형의 중앙계주와 정수리 부위에 원통형의 정상계주가 있다. 타원형의 얼굴에 반쯤 뜬 눈은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코는 콧날이 뾰족하며, 입에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따로 제작된 오른손과 왼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은 채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어 아미타수인(阿彌陀手印)을 취하고 있다.

바깥쪽에 걸친 대의는 1661년 강진 무위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같이 오른쪽 어깨에 대의자락이 가슴 위에서 짧게 한 번 접힌 후, 옷자락은 팔꿈치와 복부(腹部)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편삼과 자연스럽게 접혀 있다.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은 복부에서 한 가닥의 주름이 길게 늘어지며 펼쳐져 끝부분이 둥글게 마무리되고, 좌우로 몇 가닥의 주름이 펼쳐져 있다. 왼쪽 무릎에 늘어진 소매 자락은 둥글고 짧게 늘어져 있다.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회감 스님이 제작한 불상은 1661년에 강진 무위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1666년에 군산 불주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이다. 이 시기에 제작된 1651년 무염(無染) 스님의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67년 운혜(雲惠, 雲慧) 스님의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 1684년 색난(色難, 色蘭) 스님의 강진 옥련사 목조석가여래좌상(강진 정수사 제작)과 비교하면 쉽게 회감 스님의 불상 양식을 밝힐 수 있다.

우선 얼굴형에서 회감 스님이 제작한 불상은 턱선을 둥글게 처리하여 타원형이고, 양미간이 좁으며, 이목구비(耳目口鼻)가 오밀조밀하여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불상과 비교해보면, 가늘고 긴 신체에 비하여 짧고 다부진 신체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불상의 크기가 대형에서 중형으로 바뀌는 것은 봉안하는 전각이 주요 전각에서 부속 전각으로 바뀌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회감 스님이 제작한 불상의 대의 자락은 중심에서 두 가닥의 옷자락이 내려와 끝단이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되어 특이한데, 이러한 대의처리는 현재 밝혀진 조각승들의 불상 표현에서 볼 수 없다. 회감 스님이 인균 스님과 같이 제작한 불상과 수화승 회감으로 제작한 불상을 비교해 보면,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 자락이나 하반신의 처리 및 승각기 표현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회감 스님과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제작한 불상 양식을 바탕으로 전국 사찰에 봉안된 무기년명(無紀年銘) 불상은 경남 진주 성전암 목조여래좌상(1644년), 경남 통영 안정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등으로 추정된다.





건축에 담은 禪 영상으로 만난다

BTN, '선 건축' 다큐 방송

한국불교대표방송 BTN(대표이사 구본일)이 특집 다큐멘터리 '삶의 자리를 짓다-선(禪)건축'을 방송한다.

전국 각지는 물론 일본에서의 촬영도 이루어진 이번 특집 다큐멘터리 '삶의 자리를 짓다-선 (禪)건축'에서는 허세를 걷어낸 맨얼굴의 집!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이 시대에 필요한 건축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봄과 동시에 불교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화두로 던져본다.

BTN 관계자는 "참선행이 절대자유를 찾기 위한 구도행이라면 선 건축은 마음의 집, 생각의 집을 지으며 본래면목을 찾고자 하는 구도행"이라면서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 정진하듯 선 건축은 더 이상 채우고 비울 필요가 없는 자연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무위법의 디자인"이라고 밝혔다.

'삶의 자리를 짓다-선(禪)건축'은 11월 28일 오후 3시 50분에 첫 방송되며, 12월 2일 오전 8시 30분, 12월 4일 오후 2시 50분 방영된다.

신성민 기자

어르신들, 예술로 꽃을 피우다

12월 30일까지 탑골미술관서

어르신들의 예술 활동을 만나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12월 30일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관내 탑골미술관서 어르신 작품전시회 '꽃, 피우다'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11월 9일 시작한 2016 탑골대동제의 일환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 38개 동아리 및 수업반 어르신과 탑골문화예술학교 소속 어르신들이 참여했다.

전시는 총 3차례 나눠 구성된다. 축제 첫 날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된 1전시는 탑골문화예술학교 서예 · 서화 · 한국화 작품을 선보였고, 11월 23일~12월 2일 열리는 2전시엔 탑골문화예술학교 유화 · 아크릴화 · 서예 작품 및 사진반 사진 작품이 공개된다.

마지막 3전시는 12월 7~30일 동안 서울노인복지센터 안묵회 · 선묵회 · 서우회 · 화서회 · 한글서예 동아리 작품들을 선보인다.

관장 희유 스님은 "어르신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고, 관람객엔 노인문화의 역동성을 알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이매방 명인의 젊은 시절 모습. 사진 왼쪽부터 바라춤, 승무, 장구춤을 추는 모습.

천상 춤꾼, 이매방의 모든 것을 만나다

국립무형유산원, '이매방 아카이브로 만나다'展

의상 · 소품 · 사진 · 영상 등 총망라
시대 풍미한 춤꾼의 삶 조명해
제자들의 '獻舞'도 9차례 공연
내년 2월 19일까지 전시 진행

우봉 이매방(宇峰 李梅芳, 1927~2015) 명인을 두고 누군가는 말했다. '하늘이 내린 춤꾼'이라고. 지난해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한국무용계의 거목으로 한국 춤의 원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춤꾼 이매방 명인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11월 26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전승마루 1층 기획전시실에서 '名舞, 이매방 아카이브로 만나다'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해 8월 타계한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의 보유자인 이매방 명인의 향취를 고스란히 담은 유품을 기증받아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는 이매방 명인이 생전 즐겨 사용한 소품을 비롯해 직접 만들었던 공연 의상과 각종 도구, 활동상을 담은 사진 · 영상 등 118건 275점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이매방 명인은 1925년 3월 7일(호적상 1927년 5월 5일) 전남 목포 출생으로 1960년대 '3고무, 5고무, 7고무' 등을 창안해 큰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이후 '승무'(제27호), '살풀이춤'(제97호)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명실공히 구한말 이래 변질되지 않은 전통춤의 원형의 맥을 잇는 선구자로서 널리 인정받게 됐다.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호남형 승무'로 알려진 그의 승무는 고고하고 단아한 정중동의 춤사위로 인간의 희열과 인욕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매방 명인의 살풀이춤 공연복.



이매방 명인이 손수 제작한 서랍장.

△이매방, 춤과 인생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나도 춤추고 싶다 △삶이 춤이고 춤이 삶이다 등 4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춤으로 길을 밝힌 거장이자, 한 예술가로 고뇌했을 인간 이매방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제1부 '이매방, 춤과 인생'에서는 수많은 무대에 오르며 남긴 공연의 기록물들, 제자들에게 받은 손편지와 일상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들을 통해 보유자의 예술인생을 되짚어 보고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인간 이매방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제2부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에서는 무섭고 완고한 스승이지만 춤만큼이나 정평이 나 있던 옷 짓는 솜씨로 제자들의 의상을 손수 제작해주던 보유자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재현했다. 춤추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간을 보냈던 작업공간에서 보유자의 손때 묻은 유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제3부 '나도 춤추고 싶다'에서는 한평생 춤꾼으로 살아온 이매방의 예술혼이 가득 담긴 춤 연습 공간을 재현했다. 보유자의 춤에 대한 열정과 예술적 온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총 9회에 걸쳐 이매방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바치는 헌무(獻舞)가 전시 공연으로 진행된다.

제4부 '삶이 춤이고 춤이 삶이다'에서는 사진작가 서헌강의 사진에 기록된 이매방을 만날 수 있다. 삶이 춤에 온전히 녹아내리고 그 삶이 다시 춤이 되어 신명과 흥을 불태우며 전통춤의 명맥을 잇기 위해 일생을 바쳐 온 최고의 예인에게 지나간 길을 묻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번 전시에 대해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은 한평생 무형유산을 지키고 이어온 영원한 춤꾼 이매방 보유자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할 수 있는 자리"라면서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의 삶과 춤에 대한 애정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63)280-1400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고대 마을터서 찾은 옛 민중의 자취

국립대구박물관 '고대 마을, 시지' 특별전

대구 지역에서 택지개발을 통해 발굴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마을 유적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대구박물관(관장 권상열)은 2016년 하반기 특별전 '마을, 시지(時至)'를 기획전시실 Ⅰ · Ⅱ에서 연다. 기획전시실 Ⅰ은 내년 8월 6일까지, 기획전시실 Ⅱ는 내년 4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대구 시지지역의 55개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 1만여 점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았다.

시지유적은 수성구 신매동과 노변동, 욱수동을 비롯해 가천동과 삼덕동, 경산 옥산동과 중산동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한다. 시지는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되면서 1992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됐다. 여기서 나온 유물들은 왕 · 귀족이 아닌 민중들이 사용했던 것들이었다. 이번 전시 역시 평범한 우리 선조들의 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획전시실 Ⅰ은 시지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시대별로 개관하며, '시지의 옛 모습과 유적 발견', '선사시대의 시지',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시지', '삼국시대의 시지', '고려 · 조선시대의 시지'라는 주제로 전시한다.

특히 대구 시지지구 생활유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여러면석기는 대구에서 확인된 최초의 구석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천동과 중산동의 원삼국시대 널무덤에서 출토된 칠초철검을 포함한 각종 철기류, 노변동과 욱수동 등 시지지구 고분군의 덧널무덤, 돌덧널무덤, 돌방무덤에서 출토된 다양한 토기와 철기 등도 처음 선보인다.



대구 시지에서 발굴된 도기와 자기. 대구박물관 전시서 만날 수 있다.

기획전시실 Ⅱ에서는 삼국시대 토기가마와 생활유적, 고분을 소개하고 중요 유구별 출토 문화재의 특징을 보여준다. 전시는 '삼국시대 시지의 공방과 번영' 및 '시지지역 고분과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구성했다.

이번 전시는 시지유적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지에 살던 선조들의 문화재를 최대한 많이 공개하기 위해 수장고 보관형 방식을 택했다.

(053)768-6051

신성민 기자





ß ß ßß ß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11.16~2016.11.2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바람불면 다시오리라-소설 법정	백금남	샘앤파커스
2	유식으로읽는반야심경	요코야마코이츠/허암	민족사
3	유마경강의(상)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4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5	나를바꾸는100일	마가스님	휴(한겨레출판)
6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7	금강경강의(강미농의)	강미농/양관	담앤북스
8	토끼뿔거북털	월주	(주)조계종출판사
9	불교에관한사소하지만결정적인물음49	장웅연/니나킴	담앤북스
10	원효대승기신론소(만화)-조합 주문	원효/서기님/백수로	주니어김영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더 다치기 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

안 되겠다, 내 마음 좀 들여다봐야 겠다

용수 지음 | 나무를 심는 사람들 펴냄 | 1만 3천원



아홉 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티베트 불교로 출가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용수 스님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법을 몰라서 고통 받는다고 이야기한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마음의 습관을 보는 것,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것을 뜻한다. 마음이 가진 특성과 습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이라면, 그것을 바로 알면 고통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를 만나기 전 저자는 '나는 이래야 된다' '삶이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에 맞게 자신과 자신의 삶을 조절하려고 했다. 그러나 불교를 만나 프랑스서 4년간 무문관 수행을 하면서 달라졌다. 자신이 불교 수행이 주는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이 책서 나오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경험도 거부하지 않고 친절히 깨어 있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선 마음이 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 좋은 것은 당기고 싫은 것은 밀어내는 것, 둘째, 작은 일은 크게 키우고 없는 문제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좋은 것은 끌어당기고 싫은 것은 밀어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마음은 원래부터 이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것일까? 혹시 마음의 이런 작동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은 아닐까?

저자는 밀어낼수록 더 세지는 마음습관 원리를 이해하라고 말한다. 좋다고 생각해서 끌어당겼더니 오히려 행복해지기는커녕 불만족만 커진다. 화, 욕심, 어리석음, 불평불만, 게으름 등을 싫다고 생각해서 밀어냈더니 다음 번에는 더 강해져서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을 위해 끌어당기고 밀쳐내는 마음이 어떻게 습관화되고 강화되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좋다 싫다 하는 마음습관이 실체가 없는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책서 저자는 마음이 갖는 속성을 이해하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만들어 내는 마음-생각-감정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다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여섯 가지 마음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저자는 첫째, 화를 내거나 꾹 참는다. 둘째,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 셋째, 남 탓하고 상대를 바꾸려고 한다. 넷째, 나만 아낀다. 다섯째, 삶의 고통을 부인한다. 여섯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먼저, 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다. 사소한 일서부터 공분을 일으키는 일까지 세상에는 우리의 화를 돋우는 일이 많다. 그런데 화가 날 때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화를 참는 방

마음 본다는것… 본성, 습관 체크
"좋다 싫다는 마음 습관 실체 無"
여섯 마음 습관 보는 처방전 제시

식으로 대한다. 이는 화가 주인이 되고 자신은 그 화의 노예가 되어 휘둘리거나 반대로 적으로 여기고 저항한다. 저자는 이 두 방식으로 화를 대했기 때문에 화내는 습관이 커진다고 본다. 이때 저자가 스승에게 배운 방식은 화를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화를 바라보는 것은 화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를 다스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티베트 명상으로 일컬어지는 내려놓음 즉 렛고(Let go) 명상이다.

그런데 화를 분명히 보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경험을 한다. 화가 일어날 때 그저 바라본다고 해도 화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상을 오래 배운 사람도 화가 나는 순간에 명상을 삶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분노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화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에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또 다른 이유로는 "화를 바라보는 힘보다 화를 내는 것이 아주 강한 습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날마다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더라도 오랫동안 화 냈던 습관보다는 약하다. 그래서 더 배워야 하고 더 연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화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순 없지만 화를 알아차리는 힘을 기를수록 화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분노 대치법으로 상대도 나와 똑같이 실수 하고, 좋지 않은 행동서 벗어나길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한다.

저자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마음습관으로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 친절하라고 배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엄격한 잣대를 대는 사람이 있다. 조그만 잘못도 용서치 못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긍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본다. 열 가지 중에서 잘하는 것이 아홉 가지인데도 못하는 한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강한 습관을 갖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저자는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보라고 한다. 첫째,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둘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럴 것인가? 셋째, 나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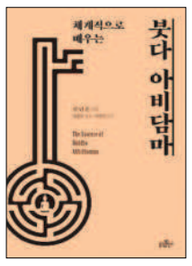
이렇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습관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망상을 만들게 되고 그 사슬에 감겨 평생을 허비할 수도 있다. 이런 상태를 저자는 고통 삼매라고 표현한다. 마치 삼매경에 빠진 것처럼 자신이 만든 고통에 깊이 빠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에 중독되어 있다. 이렇게 저자는 이 책서 우리가 가진 여섯 가지 마음습관이 왜 생겨나는지 어떻게 하면 습관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간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Q : 아비담마 공부 목표는? A : 무아

체계적으로 배우는 붓다 아비담마

멤틴몬 지음 | 김종수 옮김 | 불광 펴냄
2만 5천원



아비담마가 보는 세상

아비담마는 불교의 경·율·논 삼장 가운데 논장에 해당한다. 붓다가 우리 몸과 마음을 비롯한 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붓다처럼 이 세계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궁극에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통서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상세한 가르침이다. 아비담마에서는 과학자 언어를 사용해 가르침을 전한다. 다시 말해, 아비담마는 역사나 문화적 맥락과 상관없이 누구나 배워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말로 돼 있다. 따라서 용어와 체계를 익히는 데 드는 시간만 들인다면 전 세계 누구나 배워 활용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아비담마에서는 '관습적 실재' 대신 '궁극적 실재'로 이 세계를 설명한다. 관습적 실재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손' '발' '분노' 같은 '개념'이다. 우리는 '손이 내려간다' '발로 찬다' '분노가 치민다'와 같이 말을 하며, 그 개념과 현상을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고 경험한다. 하지만 아비담마서는 개념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지 않는다. 보다 더 단순한 것으로 변화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나뉠 수 없는 궁극적 실재인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으로 세계를 보고 설명한다. 가령 '분노가 치민다'라 안보고 분노가 치미는 현상을 구성하는 여러 마음, 마음부수, 물질 들로 그 현상을 쪼개서 보며 그 현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아비담마 공부의 유익함

예를 들어 분노가 치미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보통 그 경험 자체를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는 '나' 또한 고정불변하는 실체로 존재한다고 느낀다. 그 '감정'과 '감정을 경험하는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므로, 그 상태는 쉽사리 변하기 힘든 것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아비담마서 그러하듯 어떤 현상을 마음, 마음부수, 물질 들로 쪼개서 보면, 그 현상은 그저 조건이 마련되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중립적인 것'이 된다. 이에 따라, 과학자가 실험 과정을 관찰하듯 우리 역시 스스로의 경험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감정이나 경험에서 빠져나와 있는 그대로 보고 알아차리게 된다. 더 이상 감정이나 경험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또 아비담마를 공부하면 '업과 과보'를 명확히 알게 되어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보통 자기 이익을 위해, 화를 내고 남에게 해가 되는 일도 저지르며 거짓말도 한다. 하지만 아비담마, 그 가운데서 '마음'과 '인식과정' 부분을 깊이 새기면 그러한 일들이 궁극에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커다란 해악이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특히 선정 수행을 통해 업에 따라 과보가 일어나는 과정을 확인했을 때는, 그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경험으로 각인되어 다시는 화를 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자연스레 해탈과 열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아비담마 공부하는 실용적인 길

이 책은 아비담마를 실용적으로 접근한다. 아비담마의 체계 자체가 워낙 복잡한 탓에 그에 따른 배움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 책은 태생적으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짜여졌다. 저자인 멤틴 몬 박사는 미얀마의 저명한 화학자이자 불교학자이다.

박사는 수십 년 동안 화학 교수로 복무한 이후 미얀마의 종교부 고문을 거쳐 국제테라와다불교선교대학서 사마타와 아비담마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도 아비담마를 비롯한 불교 강연에 열심이다. 박사는 이 책을 집필할 때 여러 강의 현장에서 사용한 강의안을 뼈대로 하되, 강의 참석자와 주고받은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아비담마 해설서'를 쓰고자 했다. 아비담마를 자세히 분석해 간명하고 논리적인 체계로 서술하면서 중간중간 내용을 정리하는 표와 그림을 넣고, 좀 더 쉬운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비롯한 다양한 비유와 예시를 들어 이해를 도왔다. 또 부록으로 아비담마의 핵심을 정리한 도표를 배치하여 독자들이 아비담마의 전체 모습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비담마 정수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아비담마의 정수는 무엇일까? 이 책을 번역한 김종수 원장(지견명상원)이 역자 후기서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놓았다.

"그 열쇠는 다름 아닌 '무아(anatta)'입니다. 이 '무아'가 붓다의 모든 가르침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무이한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돌려서 열리면 그것은 붓다의 가르침이요, 이 열쇠를 돌렸는데도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붓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특히 아비담마의 가르침은 '무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비담마서 소위 '나'라는 존재를 오온으로 해체해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아를 논증'하기 위함입니다. 아비담마의 백미는 이 책 제4장에 나오는 인식과정입니다. 이 인식과정을 공부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많은 다양한 마음들이 일어나서 머물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의 덩어리 또는 자기 동일성을 가진 실체가 아닙니다. 이런 실체적·자아적 개념은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이지만, 아비담마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미혹 또는 무명이며 그릇된 견해임을 가르칩니다. 그럼 수행 또는 명상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붓다께서 칭찬한 선정이라는 명상은 한마디로 '무아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에서는 '내'가 집중해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52가지 마음부수 중 5번째 집중과 52번째 통찰지가 최대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수행 또는 명상의 정점에서 얻게 되는 열반은 '무아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학과 수행 둘 다에서 중심축은 '무아'임이 분명합니다." **김주일 기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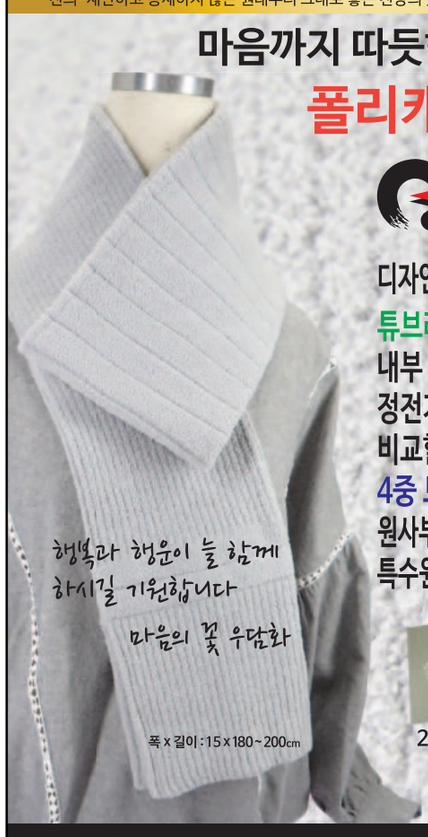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천의무봉 天衣無縫 명품 우담화

천의-재단하고 봉제하지 않은 원래부터 그대로 좋은 천상의 옷



마음까지 따듯한 프리미엄 목도리
폴리캐시미어 100%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디자인 특허등록 (제 30-0873347호)
튜브리스 에어 컨트롤 기술 적용
내부 보온공기층의 2중 원통형 설계
정전기 방지
비교할수 없는 부드러움
4중 보온효과
원사부터 품질관리까지 100% 국내산 개발
특수원사 사용



우담화1호 세트
목도리 /장갑/양말
₩150,000
판매처모집 / 단체주문 / 마크 자수 가능

불교용품 제조전문 우담화
053) 573-3119 010-3299-7190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누명 풀린 사형수 "佛法있었기에 버텼다"

美 '웨스트 멤피스 3인조' 용의자 중 데미안 에콜스

불교봉사단체 설립자 안나 콕스에 감사 표해



'웨스트 멤피스 3인조 사건' 용의자 중 한명이었던 데미안 에콜스〈사진〉가 수감생활 중 "불교는 한 줄기 빛이었다"고 밝혀 화제다. 사진출처=ArkansasOnline

'웨스트 멤피스 3인조 사건' 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용의자가 석방 후, "수감생활 중 불교는 내게 한 줄기 빛이었다"고 밝혔다.

'웨스트 멤피스 3인조 사건' 은 1993년 웨스트 멤피스서 3명의 남자아이를 살인 · 유기했단 죄목으로 데미안 에콜스 · 제시 미스켈리 주니어 · 제이슨 볼드윈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데미안은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종신형에 처했다.

당시 경찰은 익명 제보자가 데미안이 사건 당일 몸에 진흙 묻은 모습을 봤다는 제보만으로 수사, 대중들로부터 '졸속 및 강압수사' 란 지탄을 받고 관료주의 · 권위주의가 빚은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특히 영화 〈반지의 제왕〉 피터 잭슨 감독, 다큐멘터리 거장 브루스 시노프스키, 조니 뎁 등 많은 유명인들이 앞장서 이들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당국은 재수사를 거쳐 최초 기소 18년 만인 2011년, 미국 아칸소 주 대법원으로부터 용의자들의 석방 합의를 이끌어냈다. 용의자들은 '알포드 플리' 를 인정받아 풀려났다. 알포드 플리는 무죄를 주장하지만 검찰의 기소에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는 혐의는 인정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

1993년 3명 男兒 살인 · 유기 사건
당일 '몸에 진흙 묻었다' 는 제보로
사형 · 종신형 선고… 18년 복역
"불교 없었다면 증오덩어리 됐을 것"

지역 매체 'ArkansasOnline' 은 11월 18일(현지시간) 1993년 '웨스트 멤피스 3인조' 용의자 중 유일하게 사형선고를 받고 18년을 복역한 데미안 에콜스를 인터뷰하고, 그가 힘든 수감자 생활 동안 버틸 수 있게 도와준 안나 콕스 불교 봉사단체장을 조명했다.

데미안은 "감옥을 고향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시간을 사형수로 지냈다. 내 어린 시절은 매우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파괴적이었다"며 "안나 콕스는 내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절에 함께 있어줬다. 그라는 '빛의 존재' 가 없었다면 난 미움과 증오를 고스란히 반복하는 증오덩어리로 자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나 콕스는 아칸소 주 유일의 수감자를 위한 불교봉사단체 '컴패션 웍스(Compassion Works)' 설립자로 당시 복역 중이던 데미안에게 불법을 전했다. 데미안과 부인 로리 데이비스는 11월 17일 안나 콕스의 은퇴식에 참석해 감사 편지를 전했다.

데미안은 은퇴식서 "어두운 교도소에선 불자, 기독교인, 무슬림, 유대인 모두 안나를 사랑했다. 그녀는 빛의 세계에서 온 대사 같았다"고 말했다.

로리는 "곁에 있든 없든, 안나에겐 생각만으로도 마음을 편하게 하는 부드러움이 있다.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는 안나의 확고한 생각은 항상 나를 놀라게 하고, 또 감동시킨다"며 "그 확고함의 뿌리는 바로 억압받는 이들을 향한 안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안나는 억압을 가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줄 안다"고 전했다.

이날 안나는 아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아칸소 주서 유일하게 교도소 자원봉사를 펼치는 불교 봉사활동 단체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허친슨 주지사는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한 안나의 자세는 매우 감동적"이라며 "콕스 씨가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했다. 설립한 재단서 행한 모든 자비나눔 덕분에 수감자들은 정신적 · 감정적으로 강해질 수 있었다"고 표창했다.

데미안은 "안나는 나에게 어둠에 맞서는 데는 주먹과 분노 아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가르쳤다. 웃음과 부드러움으로 어둠을 패배시킬 수 있다고 알려줬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안나의 모든 행동들은 영원히 빛을 발하며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을 것이다. 교도소 벽에 갇힌 이들은 영원히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中영화 '아수라', 사상 최대 제작비 투입

할리우드 제작팀 참여… 약 1,175억 규모



중국영화 사상 최대 제작비가 투입된 '아수라' 의 스틸컷이 공개됐다. 주연은 중국 내 '라이징 스타' 오 뤼가 맡았다. 사진출처=Can-India

중국 영화 '아수라' 가 스틸컷을 첫 공개한 가운데, 중국영화 사상 최대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아수라' 는 불교설화에 근거한 판타지 서사극이다. 잡지 '할리우트 리포터' 는 "아수라는 고대 불교설화서 순수한 욕망의 세계를 뜻한다. 영화 속 아수라는 축생계 · 아귀계 · 지옥계의 반란으로 위협받는다"며 "알리바바 · 닝샤 · 쩐찌엔 등 대규모 영화제작사가 투자한 '아수라' 를 계기로 중국영화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영화는 1억 달러(한화 약 1,175억) 제작비가 투입, 중국 내 7곳서 촬영 중이다. 이는 올해 최대 인기작인 주성치 감독의 판타지영화 "The Mermaid (2016)' 제작비 705억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특히 중국 내 유명배우들과 할리우드 제작팀이 참여해 더욱 화제가 됐다. 주연을 맡은 오 뤼(18 · 사진)는 중국의 '라이징 스타' 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밖에 홍콩배우이자 대표커플 양조위 · 유가령 부부가 출연한다.

이번 영화서 메가폰을 잡은 장 펑 감독은 할리우드서 스턴트 코디네이터로 활약, '뉴문(2009)' , '앤트맨(2015)' 제작에 참여한 바 있다. '아수라' 는 감독으로서 그의 데뷔작이다.

한편 아수라는 2018년 여름 개봉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명상할 수 있다면 어디든 수행처"

美신행단체 '부디스트 인사이트' 뉴욕 곳곳서 명상 포교



신행단체 부디스트 인사이트는 교회, 아트갤러리, 해변, 길거리, 지하철역, 공원 등 그들이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명상클래스를 연다. 사진출처=lions roar

미국의 불교신행단체 '부디스트 인사이트' 가 뉴요커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여 화제다.

'부디스트 인사이트' 는 '스트릿 리트릿(street retreat)' 이란 이름으로 뉴욕 곳곳서 명상 클래스를 연다. 지오바나 마셀리와 반트 수다소 스님이 공동창립자로, 이들은 '번잡한 뉴욕서 탈출해 평화와 고요를 찾아야 한다' 는 취지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마셀리는 "스트릿 리트릿은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다"며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 곳에서나 명상을 할 수 있다는데 매우 긍정적인 반응들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매주 열리는 프로그램은 교회, 아트갤러리, 해변, 길거리, 지하철역, 공원 등 그들이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진행된다. 그러나 몇몇 프로그램은 매우 획기적인 방법으로 열리기도 한다. 지난 6월엔 공동묘지서 죽음에 대한 명상교육을 진행했으며, 9월엔 초콜릿 공장서 명상했다.

수다소 스님은 "이런 기획은 사람들에게 명상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기르게 하고, 나를 둘러싼 분위기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보통 우리가 명상할 때 주위가 시끄러우면 우린 '저 소음만 없다면 난 명상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단지 소음 때문이 아니다. 명상을 방해하는 것은 소음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소음은 단지 소음일 뿐이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마음을 계발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라고 생각해야한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명상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의 길거리 수행은 사실 선수행 지도자인 버니 글래스맨과 젠 피스메이커 종단이 수십 년간 진행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디스트 인사이트의 '스트릿 리트릿' 은 수행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누구든 참여할 수 있으며, 수업시간이 짧아 바쁜 뉴욕인들에게 더욱 적합하단 특징이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경전독송' 으로 작업효율이 올라간다고?

일본서 업무 · 공부 중 경전독송 듣기 '열풍'

경전독송을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일을 하면 능률이 올라간다는 소문이 일본 내 SNS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인터넷언론매체 '아메바뉴스' 가 11월 21일 보도했다.

트위터 등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경전독송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면 능률이 오르고 이상하게 마음도 차분해진다", "뭔가 굉장한 발견을 한 것 같다. 경전독송을 듣고 있으면 뜻은 모르지만 왠지 성실하게 일하게 되는 기분이 든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로 앉아 성실히 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등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작업용 경전독송 배경음악' 으로 이름 붙여진 동영상이나 음악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처음에는 정말로 능률이 오를까 하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조금만 듣고 있으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여러 명 스님들이 독경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미묘한 소리의 높낮이로 중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치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작업할 때 경전독송을 듣는 일은 일본 사회서 하나의 붐을 이루고 있다. 직장인이 아닌 대학생들도 이 방법을 활용해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내용도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는 "경전독송처럼 일정한 리듬의 음악을 듣게 되면 뇌에 세라토닌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에 놓이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인들은 경전의 의미를 들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언어중추를 사용하지 않아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취재한 기자도 "직접 체험해본 결과 놀라운 효과를 봤다"며 "최근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에게 추천한다"는 조언을 남겼다.

주성원 객원기자

수제 햄머 Hammer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특징 100%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동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인이 손수 망치로 두들겨 만든 햄머 제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아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햄머는 코팅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자연적인 색깔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균력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 동, 햄머 제품은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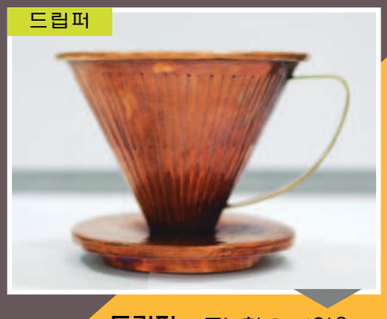
제조과정에서 오는 스크래치나 접합부의 땜자국 등 마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햄머의 동 제품은 수작업으로 광택 정도나 수구의 모양, 크기 모두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만들 때마다 같은 빛깔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주문시 참고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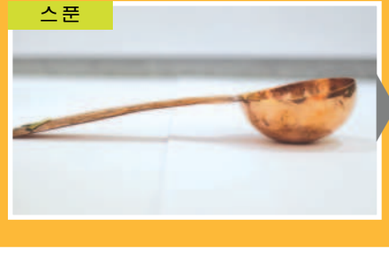
S8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S800 유광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NY900 유광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드립퍼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39,000원~~ ➜ 89,100원

스푼

스푼 –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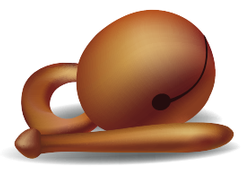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물 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곧게 한다. 목수는 재목을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신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 점안식,
시다림, 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 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태극기문명리
기문둔갑 + 명리비법
(계의신결. 작명. 영가작법)
속성! 개업반, 스님환영
태극기문학회
051-949-1234

EST 기치료센터
기치료 과정
최면상담사 과정
사주, 육효, 철학상담사과정
각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업하고자 하는분,공부하였으나 자신이 없는분,관심은있으나배울기회가없는분)
EST 기치료최면센터
010-6666-2733

? 고민 해결의 지 침 서
당신의 어떠한
고민도 해결 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
010-7732-3267
농협 302-1030-1238-01 배종영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5960-4984
지리산 현담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법당철거전문.개금.단청.
탱화.중.대형불상.공예
(사찰부동산중개전문)
구리시 아천동 산4-1
010-9177-7842

칡 판 매
스님이 직접 캔
칡을 판매합니다
경북 예천군 유천면 하천길 21-73
우체국 012-104-02-185640 김재홍
010-5585-0459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2844-6444
010-3579-6444

법납 40년 된 비구가 무료봉사
통화사절, 문자 메세지로 다음 내용을 보낼 것
(스님께 기대하는 것, 사찰이름, 사찰형태, 지역, 창건연도 등)
010-3221-083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51-413-3318

문두루 기도법?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구성학 + 현공풍수 양택
기본과정 수강회원 모집
● 서울과정 : 2016년 12월 6일 (화요일) 오후 1시 ~ 4시(180분) 개강
● 대전과정 :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오후 1시 ~ 4시(180분) 개강
● 서울 학회사무실 :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5-2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 대전 학회사무실 : 대전 서구 용문동 243-18번지 2층
010-5116-9313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거제)
010-7169-987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0-8559-940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걸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웅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8721-2198
02)2234-2198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국제불교방송 모집공고
1. 시민 참여 기자 0명 / 2. 전국 지사장 0명 /
3. 전국 포교당 0명 / 4. 프리랜서 전입기자 0명 / 5. 광고국장 0명 /
6. 위문공연(자원봉사자) – 국악, 무용,악기, 대형버스 면허자 /
7. 법회장소 제공하실 분, 리무진 대형버스 사용하실 분 /
8. 주 1회 동영상뉴스. 진행자 (여) 0명
※ 자기소개서 이메일로 접수 (bbtv1@gmail.com)
대표전화 : 1833-9540 국제불교방송 (www.bbtv.com)

부처님 마음 공부
무량 청정암 열린 마음선원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부처님 마음공부를
함께하실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아 래
❶ 교육과정 및 일정

과 정	요일및시간	수업내용	
기초과정	매주 화요일 (요일 변경 가능)	염불선	1단계 : 불교이해 2단계 : 경전독송 이해
중급과정	매주 수요일	참 선	참선이해, 법거량
고급과정	매주 금요일	간화선	화두참구, 깨달음

❷ 수업 신청 방법
– 기초과정 : 3개월 선착순 (20명 이내 한정)
– 법사와 1대 1 수업 운영
– 수 강 료 : 3개월 (30만원)
❸ 교육장소 : 무량 청정암
❹ 교 수 : 무량 청정암 최정훈 법사
❺ 문 의 : 010-2559-6886
무 량 청 정 암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76번길 23

한국최초!! 내손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
(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해 드립니다.)
동영상 CD(외장하드)를 함께 드리며 화상강의도 가능합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육임이 보인다. 공념 著 / 4×6배판 / 정가 70,000원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

- 법구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관광 사찰◀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토지 : 1400여평
- 건물 : 목조법당 48여평, 요사채 38여평
- 세계불교박물관 (벼락맞은 대추나무 5400년된 회석 등 300여점 보유)
- 양도 : 13억 5천만원 (대출 5억포함)

▶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경남 하동
- 토지 : 6,600여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뒷산기암괴석,동백군락지,매실1톤수확,선방 최적지
- 양도 : 11억원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영양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요사채, 산시낙,토지 820㎡
- 조용하며 깨끗함, 도로인접, 마을주변
- 가액 : 1억 6천만원. 조정가능 (융자가능)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 (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비밀보장 (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양도 : 6억 8천

◎ 위치 : 경기
◎ 부지 : 2200평
◎ 법당 : 60평, 외전각
◎ 요사 : 100평
◎ 양도 : 30억 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암 자 안 내

- 위치 : 양산 물금 신도시 부근
- 토지 : 오봉산자락 32여평
- 건물 : 법당16여평,요사채2동
- 낙동강이 한눈에, 위치 좋은 암자
- 양도 : 스님 사정으로 몽땅1억3천만원

010-2595-7752 전무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2 다산타워)

영주 사찰(급)안내

- 토지 7,000㎡
- 한옥기와 법당, 산신각, 요사채 등
- 주변산, 바위, 약수, 토목완료
- 영주 4K 고속도로 접근성 좋음
- 가액 : 4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사찰전문)
서울연락처: 070-8154-9393
(원주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직접 방문을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 및 상담
- 전국 매물 수백건 보유/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70-8145-9393

서울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 지하철역 5분거리 버스정류장 앞
- 총 132.23㎡ (약40평)
- 가액 : 보1000만, 월100 시설비 500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70-8154-9393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 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 2층 전체 100평 (법당 50평, 방5개, 욕실) 1층 공양간 20평, 실외화장실 2칸
- 시설 집기 일체, 시설비 없음 즉시 법회가능
- 가격: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010-8676-342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 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대출 2억 2천) 대출 승계 가능함

010-6628-8271

멋진2층전원주택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 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바다전망 좋은곳
- 30년 전통, 기와, 단청
- 면적 : 대지 850㎡
- 법당, 삼성각, 요사체
- 도로좋음, 주차가능
- 가액 : 8억 5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연산동)
010-5346-4138
051-861-2233

암자안내(마산)

- 위치: 마산 무학산 입구(교방동)
- 건물 : 2층 (1.2층 전체 콘크리트 건물)
- 주변부지 사용 가능
- 가액 : 전월세, 보증금 3백만원, 월 13만원 시설비 5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7169-9878

합천 무학동굴 앞 대지 및 전원주택 매각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2번지
- 대지417평(1,379㎡), 건물(전원주택)44평(147.36㎡)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8번지
- 임야 211평(699㎡)
- 특징 : 합천무학동굴은 조선시대 왕사인 무학대사가 어린시절 수련하였던 동굴이며, 동굴에는 무학대사가 숟가락으로 팠다는 샘이 있다(경남문재재연구원의 합천무학대사 유허지 발굴 보고서 및 합천향토문화지 등에 기록)고 강숙자 보살이 무학동굴앞 부지를 매입하여 1999년부터 무학동굴을 관리하고 있었다.(건물은 2008년도 신축함)
- 가액 : 4억

010-2078-959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 대지 : 30평
- 1층 : 요사채
  2층 : 법당
- 가액 : 1억 4천만원

010-4137-216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물 2채
- 대웅전, 산신각, 별도 황토방2개
- 주방, 욕실, 조경,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버스터미널 도보5분거리
- 가액 : 3억 8천만원 (융자있음)

010-4561-2149

대형 사찰 양도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삼동
- 2614평
- 대웅전포함 정각4동 전철역사 인접
- 기본계약후잔금은행대출가능
- 가액 : 65억
- 꼭 사실분만 상담가능

010-3288-131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45평, 건평 92평
- 4층 건물
- 건물 : 철근 콘트리트구조 산밑 아담하고 조용한 곳
- 가액 : 6억(절충가능)

010-5931-1071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 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010-7589-9600
010-3753-7844

토굴을 구합니다

- 산속이나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 싼 값으로 양도하실 분이나 임대로 빌려 주실분은 연락주십시오

010-7678-5536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 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 관음전, 종각, 요사채
- 공양간 외 부속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급 2억 8천 (부득이한 사정으로)

010-4628-569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200평, 건평40평, 법당, 요사채, 방3개
- 친견실,공양간,샤워화장실2개 밖에 남녀화장실,산신각,용왕연못 등 시설일체 방문요망
- 가액 : 2억 5천 8백만원
- 급 양도

010-5427-369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남평
- 남향동 대로변
- 평수 : 3층건물 중 2층 38평
- 가액 : 보 500만원, 월 45만원 시설집기일체 600만원 (절충가)

010-7314-87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율곡면 갑산 1길 125-4
- 비구, 비구니스님 막론 사찰 필요한 스님 모십니다. (상담 후 무상으로 양도 할 수 있습니다)

010-8521-9633

포교원 임대

- 위치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 건물 : 2층 건물중 2층 (옥상 사용 가능)
- 대도로변 위치 포교하기 좋은곳 주차장 있음
- 가액 : 보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시설 A급 몸만 오시면 됨

010-9908-80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금액은 500만원

010-9902-396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대 옆
- 대지 : 813㎡
- 토굴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2차선 도로변
- 가액 : 2억 8천

010-5347-027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사 찰 안 내

(시세이하 급 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임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 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격 협의 가능(현지답사후 협의 요망)

010-8014-7707
010-3832-7157

절 터 안 내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계곡속
- 천하명당 절터 434평
- 입구에 폭포있음, 지방도 바로옆
- 전기, 관정 공사 완공 하천부지 일부사용
- 가액 : 5,800만원 (가격 절충)
- 장난전화 사절. 꼭 필요하신분만, 공부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2499-30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북구 시장입구
- 3층 건물 2층
- 평수 : 약 53평
- 방3, 에어컨 3대,최고시설 완비
- 보증금 900만원, 월 40만원 도시가스 시설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8770-381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송도해수욕장 인근)
- 대지 : 약 130평
- 건물 : 한옥 2동(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 1,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262-100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2차선 도로변
-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중간부분 교통 원활
- 아미 관음 지장 후불 신중 칠성탱화 영가단, 소불 법당종 냉,난방기 음양 조명 등 시설완벽 불기 및 집기일체
- 신조성 1년 10개월 포교 및 명리 적합, 3층 건물중 2층 약 25평
- 보: 300백, 월30만. 주방시설은 있으나 방은 없음 시설비는 꼭 하실분에게 최소의 금액에 드리겠습니다

010-5050-6252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단)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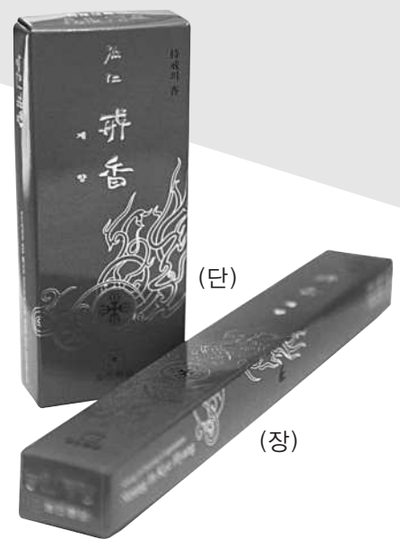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 주문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토마스 비엔 · 비버리 비엔(명상 지도자)

〈9〉 일

‘번아웃증후군’ 인가요? 마음챙김 하세요!

〈Burn-out〉



일은 저주이자 축복

흔히 우리는 일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가족과 인간관계, 영성이나 친구와의 우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것에 보내는 시간과 에너지를 일에 보내는 시간이나 에너지와 비교해 보면, 그 말이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실제로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와의 조화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 욕구의 위계’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자아실현과 창의성 등 고차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전에 그보다 낮은 차원의 욕구를 먼저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아름다움과 개인적 성장을 실현하기 전에, 의식주 등의 기본적 욕구를 먼저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일은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인간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과거에 자기 땅에서 가족과 함께 자신들이 먹을 것을 재배하던 시절에 일은 단지 수단으로 행하는 이상하고 낯선 활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일부였다.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소젖을 짜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위, 타당한 행위였다. 그런 직접적 노동을 오늘날 금융시장의 선물 거래와 비교해보면, 선물거래는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받는 생계유지 활동이 되었다(선물 중개인은 미래의 사건을 예측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 이웃이 먹을 음식을 직접 재배하는 일에 비해, 선물 거래는 그보다 몇 단계나 추상화된 일로서 인간으로부터 소외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일에 관한 전부는 아니다. 일에는 축복의 면도 있게 마련이다. 만약 당신이 실직을 당했다면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얼마나 끔찍하게 다가오는지 잘 알 것이다. 일 가운데는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일도 있지만, 일을 못해서 각종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신보다 자존심에 더 상처를 주는 일도 없다.

중국 당나라의 백장회해 스님은 80세가 넘어서도 제자들과 함께 육체노동을 과하게 했다고 한다. 이를 걱정한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연장을 숨기기로 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기고 말았다. 도구가 없어 일을 할 수 없게 된 백장회해 스님은 이제 먹지도 않았다. 이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서야 제자들은 할 수 없이 연장들을 다시 꺼내왔다. 스님은 다시 일을 하게 되자 그때서야 먹기 시작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행위보다 존재함 자체를 더 강조하는 선가에서도 음식과 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직장에서 진정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려면, 일이 가진 저주의 측면만이 아니라 축복의 면도 함께 인식해야 한다. 일이 가진 저주와 축복, 두 가지 면을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업무소진, 마음챙김으로 다잡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은 그만두고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자.” 다소 반항적인 이 메시지는 언뜻 올바른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순간적인 해방감을 줄 수는 있어도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 일이 지닌 축복의 면에서 자신을 단절시키는 대가를 충분히 자각하지 못한 채 내리는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영혼을 살찌우거나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아무리 경제적 보상이 좋더라도 그 일은 당신에게 고통을 일으킬 것이다. 시인 로버트 블라이(Robert Bly)는 만약 당신이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상처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능력이 있고 자신의 일에 상당한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에 걸맞은 존경과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자신이 하는 일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스스로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친 뒤 정신을 잃을 것처럼 느끼는 일도 이상하지 않다. 여기서 마음챙김 수련이 당신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 마음챙김 수련은 당신이 겪는 고통을 치유하고 변화시킨다. 또 언제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지(아무리 끔찍한 변화라 하더라도) 알도록 한다. 또 마음챙김 수련은 이를 자각하는 힘을 줄 뿐 아니라, 위험하지 않고 합리적이며 계획된 방식으로 변화를 실천하도록 돕는다.

중독 행동은 당장 멈추는 것보다 재발을 방지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다른 활동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즉 중독이 지닌 습관적 에너지를 더 이상 따라가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 대신 다른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다.

하루 일과 후 자신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종이에 적어보자. 자신이 떠올린 아이디어에 대해 검열을 하지 말고, 말도 안 돼 보이는 방법들까지 모두 적어본다. 이렇게 하면 창의적인 방법들이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목록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중 최선으로 보이는 방법에 눈에 띄도록 별표를 표시한다. 그리고 다음번에 당신이 슬프고 공허하며 지친 마음으로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이 목록을 꺼내보라. 그런 다음 자신에게 가장 호소력 있는 방법을 골라 실행에 옮겨보라.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순탄치 않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면에서 보면,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람은 일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말에는, 앞의 것과 완전히 단절하고 힘들게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말에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함축되어 있다. 즉 새로 시작한다는 말에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기회가 함축되어 있다. 거기에는 당신이 중독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새로운 기회도 포함된다.

지구상의 생명이 순환하는 과정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죽음과 다시 태어남이 만물의 속성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지나간 일은 놓아버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로 돌아와야 한다. 현재의 사실이 지닌 치유의 가능성을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가능한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길이다.

현존은 영적 수행

당신이 일에 있어서 다시 일어서는 단계라면 자신의 일이 가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자각하는 일이 중요하다. 불교에는 ‘다섯 가지 기억하기’라는 수행법이 있다. 그중 다섯 번째가 자신의 진짜 소유물은 업(業 , 카르마), 즉 자신의 행위밖에 없다는 가르침이다. 오늘 우리가 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것도 내일까지 이어지는 추동력을 만들어낸다. 만약 오늘 화내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 되는 법을 연습하고 있다면 미래에도 화내고 불행해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합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 일은 스트레스도 주지만
> 의식주 제공하는 ‘축복’
> 영적 수행하듯 최선 다하면
> 미래 긍정적 추동력 얻어

일의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는 상대하기 힘든 사람과 만나는 일이다. 이때 당신의 마음챙김은 시험대에 오른다. 이 경우 부딪치게 되는 첫 번째 장애물은 심리적 장애물이다. 영적 수행에 이끌리는 당신은 스스로를 언제나 고상한 행동을 하는(혹은 해야 하는) 사람으로 여길지 모른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인간관계는 매우 심한 독성을 품고 있어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당신의 기대가 비합리적인 경우도 있다. 그런 인간관계는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다분하다.

붓다가 어느 능숙한 말 조련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조련사는 어떤 말은 어떻게 해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들을 위해 죽일 수밖에 없는 말도 있다고 했다. 이에 붓다는 어떤 제자는 부드럽게 이끌어도 잘 따라오며, 죽여야 하는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여야 하는 이가 있다고 했다. 조련사는 깜짝 놀랐다. 평화로움과 온화함이 가득한 붓다라는 교사가 죽임을 이야기하다니! 물론 여기서 ‘제자를 죽인다’ 함은 물리적인 살인이 아니라 전체 교단을 위해 교단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붓다가 제자를 상대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지, 그 바탕에는 언제나 제자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일화는 마음챙김이 지닌 유연성을 가르쳐주고 있다.

아마도 우리가 영적인 길을 추구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고통으로 몰아넣는 올가미를 꿰뚫어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고통의 덫에서 벗어나 평화와 기쁨,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당신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모두 최선이라는 관점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내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당신은 현존(現存), 즉 현재에 존재하면서 지금 존재하는 이대로의 삶이 지닌 긍정적인 면과 만난다. 오늘 하는 이 일이 당신의 일이며,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일이 곧 영적 수행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 그렇다면 당신이 애당초 찾아 헤매던 평화와 기쁨, 행복을 바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은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광덕사 / 주 지 : 성보 (정재현)
- 승려증번호 : 06-51-035 / 주 소 :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동길 33-20 (덕산리 1118-1)

- 사찰명 : 공도암 / 주 지 : 혜연 (정재금)
- 사암등록번호 : 10-12-0633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74-43

- 사찰명 : 수불사 / 주 지 : 보광 (박정화)
- 승려증번호 : 03-01-3102 / 주 소 : 부산 영도구 청학2동 149-40

위 사찰들과 위 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
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慧眼決書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 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배종훈의
명상카툰

그대로 인정하고, 스스로 믿어라

내가 여행을 떠나며 다짐한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다는 각오의 모습이 뒤를 돌아보며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강력한 나를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늘 기대하며 믿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무너져도 다시 쌓고 앞으로 나아가는 나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요새와 같은 멘탈을 만든다면 분명 상처받진 않을지 몰라도 성 안에는 홀로 살아야 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삶은 모두와 어울려 살아가는 시장과 같은 삶에서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스스로 믿는 것임을 알았다. 또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후반부로 들어서는 게 아닐까?

절집을 빠져나와 다리의 끝에서 작은 찻집을 만났다. 차나 한잔하고 가시게라는 작은 문구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윤종헌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③ 사랑 받고 싶은 아버지

자식보다 '아내와 관계' 더 중요하다

예전에 어머니는 그 시절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러셨듯이 아버지 귀가가 늦는 날이면 따뜻한 밥 한 그릇 떠서 아랫목에 묻어두시곤 했다. 아마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광경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의 아버지들은 어떨까? 소위 '삼식이'란 단어가 이제는 보통명사화 되고 있듯이 집에서 밥 한 끼 먹기 녹록치 않다.

물론 이는 세태의 영향이 크다. 부부 맞벌이에 양육의 어려움까지 끊임없이 증가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가 늦은 저녁 밥상은 고사하고, 같이 출근하는 아내에게 아침을 바라는 호사를 누린다는 것은 큰 욕심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집에서 아내에게 대접 받고 싶어 한다.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은 아버지들에게 어릴 적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추억이기도 하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다. 즉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버지이기 전에 한 남자로서 '아내'에게,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내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그녀'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우연히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와 아이들이 오순도순 앉아서 내가 모르는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 아버지는 무척 서글퍼질 것이다. 게다가 은근히 부아가 치미는 아버지는 결국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는 일도 생긴다.

'한마음아버지마당' 수업 동영상 중에 EBS '화해프로젝트'의 한 장면이 있다. 가족이 외식을 나가려는데 아버지는 꾸물거리는 딸에게 화를 내고, 급기야 회초리까지 드는 상황이 이어진다. 아마 이 장면만 보면 그 아버지가 무척 성질이 괴팍하고, 딸을 몹시 미워한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론은 부부 문제다.

이 아버지는 스스로 보기에 조금 굼떠 보이는 딸에게 아내에 대한 불만을 대리 표출한 것이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부부가 이런 문제를 서로 깨닫고 화해함으로써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사실 대부분의 부부싸움 원인은 돈 문제나 자식 문제 같은 단편적인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부부싸움은 서로가 '당신은 나랑 사는 사람이니 나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 때문에 일어난다. 평소 남편이나 아내, 양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떤 개별 문제가 발생하고 각자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를 때, 부부싸움의 발단이 되는 것이다. 부부싸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 같이 이야기가 비슷하다.

"저 사람은 저 생각이 문제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아내(남편)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식이다.

또 한 가지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는 남자라는 점이다. 남자와 여자는 생각의 구조가 많이 다르다. 여자는 생각의 구조가 남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오하다. 남자는 구조적으로 여자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다. 말도 여자가 더 잘한다. 오죽하면 남자는 하루에 머리에서 500단어를 생성하지만, 여자는 2만5천 단어를 생성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일까?

이러니 "별일 없나?" "밥 묵자" "자자" 이 세 단어로 귀가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경상도 사나이의 유머가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하루 종일 이 많은 단어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남편 오기

> **부부싸움, 단편적 이유 때문 아냐**
> **'나와 똑같아야 해'란 생각 탓**
> **남녀 본질적 차이도 한 이유**
> **'이것만은 꼭' 실천과제 지킬 것**

만을 기다리던 여자에게는 정말 맥 빠지는 행동이 아닐 수 없으니, 남편이 예뻐 보일 수 없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여자는 남편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여보, 그 집 음식이 맛있대"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등의 이야기는 여자에게는 남편이 "외식하자! 옷 사줄게!"라는 흔쾌한 반응을 은근히 기대하는 말이지만, 눈치 없는 남편들은 "응, 그래" 또는 "옷장에 옷 많던데 아무거나 입어" 이런 식으로 대답해 아내를 화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여자들은 알아서 해주기를 바란다. 아마도 여자는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서 헤아려주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수업 중 이런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시청한 아버지들의 소감은 한결같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얘기를 해야지!"였다. 만약 '한마음어머니마당'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아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남편 때문에 답답하시죠? 자기가 알아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 법이 절대 없죠? 하지만 남편은 혼자서, 알아서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눈을 바라보고, 꼭 집어서 부탁하듯이 이야기 해주셔야 알아듣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아버지들의 변화를 위해 '한마음아버지마당'에선 첫 회에 전체 프로그램 기간 동안 각자 가정서 실천할 '이것만은 꼭'이라는 과제를 스스로 정하게 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스스로 실천하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과제는 어렵고 추상적인 과제가 아닌, 아주 작으면서도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실천 사항을 스스로 몇 가지를 정하여 실천하도록 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매주 교육이 끝난 후 가정에서 본인의 과제를 실천한 후, 다음 교육시간에 자신의 실천 결과와 소감을 팀원과 나눈다. 평가점수를 스스로 책정하게 함으로써 교육만으로 끝이 아닌, 가정에서의 실천을 통한 본인 마음의 변화와 가족이 바라보는 변화 모습을 동시에 관찰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매일 자녀와 30분 동안 대화하기 또는 놀이하기, 매주 1회 이상 아내와 1시간 동안 산책하기, 매일 1회 이상 설거지하기, 금연, 절주 등 마음만 내면 언제든지 실행 가능한 항목들이다. 처음에 운영진은 이 실천 항목 대부분이 자녀와 관계된 실천 사항들일 것이라 예상했다. 막상 실천 항목을 들어보니 자녀가 아직 어린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시간에 치중하기도 했지만, 의외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았다. 다시 말해 아버지들은 아내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과제는 자발성이 무척 중요하다.

'이것만은 꼭'이라는 실천과제는 처음에 과제라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아버지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들은 진지하게 실천과제를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실천을 그저 과제로만 여기고 일시적일 거라 생각했던 가족들도 점차로 변화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호응도가 높아졌다. 이는 수료식 때 '아버지의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가족 소감 발표'를 통해 상당부분 확인이 가능하였으니, 어떤 교육보다도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실천만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진리를 확인한 경험이었다.





대행 스님

될 수 있으면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살지 마세요!

만물을 누가 생기게 했는지

질문 어느 종교에서는 지구나 모든 만물이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길 하고, 불교에서는 겁의 윤회를 거쳐 가면서 인간이라는 몸이 만들어졌다고 얘길 합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자연법칙을 그대로 순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처님의 힘이나 그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이나 모든 만물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 뭘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50%라면 보이는 세계가 50%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음과 양이 한데 합친다,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지는 동시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 자기 영혼이 거기에 계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자성신이 즉 자신(自神)이란 말입니다. 신이 계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신의 역량에 따라서 아이가 출중하냐 안 하냐가 달려 있습니다. 참 묘한 법이 있죠.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서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물로 그 물질 자체가 다 없어지죠.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졌던 그 하나에서 모습을 바꿔서 다시 수억 마리가 된단 말입니다. 두 사람의 정자와 난자 속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면 이 인간의 몸 하나에 또 수억 마리가 들어 있듯이 말입니다. 이거는 대표로 대장을 하나 바깥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몸뚱이를 하나 내놓고는 그 몸뚱이 속에 내가 수억 마리가 돼 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몸뚱이 속에 있는 내가 옳습니까, 현재 나와서 사는 내가 옳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천차만별로 들어 있는 그 생명들과 지금 이 몸의 생명이 따로 있습니까? 예? 내 배 속에 있는, 오장육부 속에 있는 생명들이 진짜 생명입니까, 지금 내 생명이 진짜 생명입니까? 그 영혼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한마음의 자성신이 수십억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나라에 아주 급한 일이 생겼어요. 50억의 군사가 나라를 먹어치우려고 쳐들어오고 있었답니다. 이쪽 나라에는 군사가 10억뿐이니 저쪽에 비하면 아주 적은 군졸들이죠. 그러니 저쪽에서 50억이 쳐들어오니 10억으로는 질 게 뻔한 일이죠. 그런데 이쪽 나라에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50억을 10억이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느냐. 같이 대항하자면 40억이 더 많아.'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한생각을 하기를 '모습 없는 모습이여! 그쪽이 50억이라면 나도 체가 없으니 50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모습 없는 내 모습이 그쪽 모습 있는 데로 가서 만약에 내가 된다면 50억이 싸움할 일도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한생각을 하면서 피리를 부니까 그 50억이 전부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야, 우리가 싸움을 해서 뭘 하냐.'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50억이 전부 피리 부는 사람 한 사람이 돼 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한 사람이 그 50억이 돼 가지고 뿔뿔이 다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이기고 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이라는 것은 30억 년 전이나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이나 자성신이나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신의 놀음은 바로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입니다.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을 예를 든다면, 신이 기름이라면 기름은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도둑질을 하러 가든 말을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신의 놀음, 즉 마음 내는 그 놀음은 이 운전수에 달렸어요. 이리로 가든지 저리로 가든지 망해 먹든지 이건 운전수가 끌고 가기에 달렸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사람에게 짐승의 허물을 쓰게 하느냐, 다시 사람의 허물을 쓰게 하느냐, 또는 비상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느냐, 또는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느냐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대로 자연 법계에서 벌써 주어져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아이고, 사람 살기 귀찮아서 어떡하나.' 하고 말입니다, 죄가 있다 없다, 유전이 있다 업보가 있다,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내 팔자가 어떤가, 운명이 어떤가 이런 거 아랑곳없다는 얘깁니다. 왜냐? 자성신은 생각 내는 생산처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공에, 즉 말하자면 체가 없는 데다가 체가 없는 걸 놓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자석에다가 자석을 붙이면 다 자석이 되듯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동시에, 즉 체가 없는 것이 체가 없는 생각을 잘하면 다 녹아 버리는 동시에 생각을 좋게, 자기 분수에 맞게 잘 내면 생산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자연과학이라고 '학'을 붙이기보다는 '자연과학심'이라고 할까요, 자성신의 활용이라고, 자활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듯 원통 자활, 즉 내공을 타파한다면 삼심 내공을 타파하게 된다. 사공법을 타파한다면 원통 자활을 하게 된다. 육바라밀의 그 평등공법을 타파하게 된다. 그리고 칠(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도리를 알게 되면, 깨달으면 보배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흙에서 일체 만물을 소생시키고 길러 내듯 모든 것은 자기 아님이 없는 까닭에 자기 거 아님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일체 전체에 칠보가 가득 차 있다. 내 마음속에, 육근에도 육진에도 육식에도, 둘이 아닌 내 한마음 근본에 그냥 칠보가 가득 차 있으니 바로 그것이 칠공법의 자활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는 것도 뺏는 것도 자유자재하다. 어느 나라든지 망하게 하려면 그냥 삽시간에 망하게 해요. 그런데 그런 도리를 배우는 사람이 그냥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이익 하게 하죠. 그 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연법칙이 그렇게 질서 정연하고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면 자기는 저절로 한마음으로 돌아가면서 잘 지내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잘 쓰시는 것이 좋지요.

또 사무 사유를 한데 합쳐서 팔정도라고 하죠. 수레공법을 타파해야 자유스럽게 다니면서, 이 몸도 자유스럽고 마음도 자유스럽고, 그래서 걸림이 없이 그 권리가 하늘에 솟은 듯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산 사람이 한 찰나에 저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찰나에 저승 천자가 되고 한 찰나에 이승 천자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재법이 있어야 열반인 것입니다. 스님네들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열반이 아닙니다. 살아서 열반을 못했는데 죽어서 어떻게 열반을 합니까?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일을 안 해 놓았는데 어떻게 일한 대가를 받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천 년 전의 신이 따로 있고 지금 현재의 자기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 26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안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아요

☞ 25면에서 계속

면 자기 신은 능력이 없고 부처님 신만 능력이 있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생각을 하는 데에 따라서, 기름은 본래 주어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차 끌고 가는 거를 잘만 끌고 간다면, 잘 생각을 해서 끌고 갈 수만 있다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그 신, 자성신에 의해서 내 신이 이 우주 공간 안의 어떤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일체가 다 될 수가 있고, 천차만별의 신이 내 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이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해 보지 못했다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이 말을 거짓으로 했다 하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법계에 수많은 생명들과 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면 한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뇌물을 가지고 가서 바치니까 "야, 이거 못 받겠다. 난 이런 거 안 받는다. 내가 해 줄 수 있으면 그냥 해 줄지언정 이건 받지 않겠다." 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뭘 그러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있지 않으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 네가 없고 나만 있어서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우주 전체에서 알고 있는 것인데 어찌 없다고 하겠느냐. 내 마음에서 아는 거를 전체가 알고 있거늘 어찌 그렇게 얍삽하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힘닿는 대로 해 볼 테니까 짐 무겁게 해 주지 말고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러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 하나로 인해서 그냥 짐을 잔뜩 무겁게 짊어지고 사시면 아주 괴롭습니다. 알고 보면 괴로운 것도 없지만 말입니다.

술도 하고 매운탕도 먹는데…

질문 『수능엄경』에 보면 "여래가 멸한 후에 말법 시대가 되면 고기 먹고 다 하면서도 소위 '도를 깨쳤느니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볼 때 효봉 스님이나 경허 대선사 같으신 분은 걸림이 없이 행을 하셨는데, 제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직장에서 어울리고 하다 보면 뭐, 매운탕도 먹을 때가 있고 술 한 잔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마귀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때때로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허 스님이나 효봉 스님의 그 걸림 없는 행을 보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재가불자지만 마음은 스님같이 끝없이 닦아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후로 공부를 어떻게 해 가야 되겠는가, 두 번째는 남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는 재가불자라고 하지만 제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매운탕 먹고 이러는 것이 공부를 잘못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째는 자기를 자기가 이끌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자기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을 제도를 못했기 때문에, 조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셋째는 남들에게 보이는 이 모습이 부처님 모습 같지가 않으니깐 그렇습니다. 어때요? "모든 것을 알기만 해도 아니 되느니라." 하는 거는 "천차만별로 찰나찰나 바뀌고 찰나찰나 나투는데,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내 도량 아님이 하나도 없고, 하다못해 곤충에 이르기까지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는 그 뜻을 모르게 되기 때문이죠. 천차만별로 내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제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게? 그 속에서 나오는 게 그냥 그렇죠.

> 고라는 이름에 끄달리지 마세요.
> 우리가 고라는 이름을 잘 요리를 해서 맛을 볼 수 있다면
> 그거는 아주 맛이 좋은 겁니다. 감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는 것만 많고 지식이 많고 모든 걸 달달달달 외워서 이 세상이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를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다리 병신이 돼서 요만큼 한 발짝을 떼어 놓지 못하고, 귀머거리가 돼서 듣지 못하고, 눈 한쪽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헛거야, 전부!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통을 한다 하더라도 했다고 하지 마라. 모두 오신통 안에 조복을 받고 오신통을 벗어나야만이 오신통을 굴리고 그 응신이 화해서 천백억으로 나투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천백억이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는 거를 다 놓으면 혹시 모르죠. '아이고 이것이 열반경지가 아닌가. 이 세상이 다 그런 게 아닌가. 이게 내가 홀연히 깨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 안다 하더라도…, 이 물컵에 물이 들어 있는 거를 보고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물컵을 들어서 목마른 사람을 먹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어야만이 그게 도 아닌 도예요. '도'도 이름일 뿐이지, 도 아닌 진실한 도! 그러니까 그 아는 거를 다 좀 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아는 거를 그 나오는 구멍에, 보고 듣고 알고 이러는 거는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아주 전제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불심도 돈독하고요. 그렇다면 도둑질도 못할 거고 강도질도 못할 겁니다. 돈 주고 하래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을 믿고 전제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셔야 합니다. 안 되는 거는 한번 쓱 뒤집으세요. '아하! 주인공밖엔 해결을 못하지.' 그러고 믿고, 믿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거니까 걱정이 없다니까요. 안 되면 여러분은 방황하죠? 그런데 그 안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았거든요.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안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아요. 그러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되는 거죠. 금방 돌아올 테니까요. 그러니 운전수 노릇을 잘해야 돼요. 또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갈 때 참 감사하죠. 그게 됐을 때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하다' 하고 또 감사하게 놓고요.

그런데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법에 이런 게 있죠. 고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살림살이하는 데에 모두가 고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고가 아닙니다.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게끔 고등 동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야 벗어나죠. 그래서 "사람 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 되기 어렵더라." 이런 게 있죠. 그러니 사람이 됐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은 내 주인공이 나를 성숙하게끔 둥글게 이끌어 주는 과정이로구나.' 하는 걸 믿고 놓을 때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을 겁니다. 고에서 그냥 타파를 해 버렸기 때문에요. 고라는 이름에 끄달리지 마세요. 우리가 고라는 이름을 잘 요리를 해서 맛을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아주 맛이 좋은 겁니다. 감사하고 말입니다.

지금 그냥 누구한테 맞아서 기어서 가도, 밥을 굶고 지금 기어간대도 '아이고!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하고 아마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러니 '고가 고가 아니다.' 이겁니다. 업보가 많으니 죄가 많으니 이러고 난설하지 마세요. 어떤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아! 이거는 주인공밖에 해결 못하는구나.' 하고 믿고 놓으세요. 안 돼도 '이것도 되는 거지, 뭐.' 하고 그냥 편안하게 놓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쓱 한 찰나에 돌면서 그게 슬금슬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복덕과 공덕에 대해서

질문 부처님 당시에는 복덕과 공덕의 개념이 나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선불교에 들어서면서 자성을 깨치는 것을 공덕으로 설명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복덕과 공덕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답변 공덕이란 뭔가. 모두 한데 뭉쳐서 서로가 너 나가 없이 해 주는, 아픔을 서로가 알고 내 아픔도 둘이 아니게 위해 주는 그런 마음 자체가 바로 공덕입니다. 그런데 내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시주를 했는데도 나한테 이득이 없다고 한다면, 복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덕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아주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덕하고 공덕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복덕은 잠시 잠깐 그저 불 반짝 켜 주다가 꺼지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나 공덕은 세세생생입니다. 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세세생생의 밝음을 언제라도, '꺼진다 켜진다' 이런 도리가 아닌 밝음의 세계로 우리는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덕이 돼야지 복덕을 찾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기복이 복덕이죠.

즉 말하자면 내면의 자기 자성을 믿는 데에 공덕이 되는 거죠. 그러니 '자성으로 인해서 내 몸뚱이 나무가 살고 있구나. 자성의 뿌리로서 내 모든 것이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먹는 게 혼자 먹는 건가? 내 몸뚱이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 있나. 내가 일한 것도 혼자 했나?'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말하는 건 좋게 말하죠. "내가 죽도록 애를 써서 벌었다." 그러거든요. 아이 참 내! 아니, 혼자 번 게 어디 있어요? 수십만의 생명들, 의식들, 모습들이 한데 작용을 해 줘서 자기 몸뚱이 하나가 움죽거려서 번 거지 혼자 번 게 어딨어요? 혼자 먹는 게 어딨고 혼자 듣는 게 어딨고, 혼자 만나는 게 어딨고 혼자 걸어가는 게 어딨습니까? 말씀들 좀 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내세울 건덕지가 있을까요? 내가 했다고 세워서 '아, 내가 잘못했어.'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잘했어.'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업이 많아.'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얼마나 과거에 잘못했으면 업이 이렇게 많을까.' 하는 것도 없어요. 모두가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반야심경을 자주 읽으시죠? 반야심경이 천체, 이 세상 돌아가는 진리, 팔만대장경이에요. 그것을 함축해서 거기다가 모두 한데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화엄경이니 금강경이니 반야경이니 어떤 경이든 막론해 놓고 무슨 공덕이라도 들어올 줄 알고 아침저녁으로 달달달달 글자로다가 그냥 외우죠? 그렇게 염불을 하지 않나 염(念)을 하지 않나 절을 하지 않나, 별거를 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단시일 내의 복이지 세세생생에 벗어나는 공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도를 해라, 정성을 들여라" 이런 말을 여러분 앞에 내놓고 하면서 정성을 들이게 하고 그러지 않죠. 자신이 알아서 하는 대로 공덕이 되는 거니까요. 달마 대사께서 양 무제더러 하신 말씀이 있죠. "당신은 아무리 했어도 공덕이 없노라." 하고요. 마음을 그렇게 뒀으니까 그 마음대로죠. 마음을 그렇게 가졌으니까 그분이 커질 수도 없고 또 작게 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자유권을 얻는다면 때로는 작게도 되고 때로는 크게도 되고, 때로는 길게도 되고 때로는 짧게도 되고, 둥글게도 되고 모도 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만이 이게 자유스러운 거죠.

이 한 생을 살아나가는데 한 철 왔다가 가는 겁니다. 모습은 한 철이요 마음은 영원한 겁니다. 마음의 차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서 그 도리를 안다면 살고 죽는 것도 없고 그대로 영원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사찰의 감로수를 시걸포 정수기로 느끼세요!

시걸포는 인공적으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아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천연수로서 대자연에서 정화된 암반수와 같은 건강한 감로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탁월한 안전성
· 인체에 유/무해 성분 선별 제거
· EPA 미생물 기준(99.99%) 박테리아, 바이러스, 시스트균을 별도의 화학약품 처리없이 만족시킵니다.

세련된 디자인
작고 안정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미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구현한 세련된 구조로 성능은 물론 주방의 컨셉과 스타일리쉬한 인테리어로도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독보적 기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선진 정화 기술로서 음용수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걸포의 독자기술로 개발된 스트럭처드 매트릭스[Structured Matrix]를 채용하여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정수기입니다.

엄격한 검증
세계의 유수 연구기관이 인정한 안전성 및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특히 미국 EPA(미국 환경청)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해한 미생물(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생동물)을 제거하는 장치의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입니다.

뛰어난 물맛
물에 용해된 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을 확실하게 제거하여 천연 미네랄은 그대로 통과 시키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한 본래의 물맛으로 되돌려 줍니다.
특히 시걸포는 다도생활의 필수품으로 차의 맛과 향을 더욱 풍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국내와 세계 67개국에서 사용되는 시걸포 정수기
· 타워팰리스 1차, 2차, 3차 / 롯데캐슬시리즈 / 건대 시니어타운 외 다수
· 일류 요리사 및 특급 호텔을 매료시킨 시걸포
· 보잉사, 대한항공, 일본항공 등 수 많은 항공사가 선택한 시걸포
· 소말리아 내전과 유엔 평화유지군 등의 구호 활동에 사용된 시걸포

판매원 현대불교현불샵 | 제조원 General Ecology, Inc. USA | 한국총판 (주)이앤알인터내셔널

문의 080-866-1080
상담 후 카다록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불자 세상보기

100만 촛불이 만든 화엄의 꽃



송마나
자유기고가

누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말하였는가? 지난 2주간 광화문 광장을 환하게 밝힌 100만 촛불은 화엄의 꽃이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메운 촛불은 장엄한 연화장의 세계였다.

이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휘황하게 타올랐던 불빛은 국민 개개인의 촛불이자, 대한민국 전체의 불꽃이었다. 작은 촛불 100만 개가 모여 광대무변한 촛불의 만다라가 되어 어둠을 밝혔다.

어느 누구도 이 거룩한 촛불 앞에서는 삿된 생각이나 망령된 마음을 일으킬 수 없으리라. 그런데 어느 철부지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참담한 소리를 한다.

촛불은 홀로 타오른다. 심지를 자르라는 주변의 잡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방향을 바꾸려는 의도를 물리치고 스스로 제 몸을 태워 불을 밝힌다. 자신의 그림자가 줄어들수록 몸 안의 골은 깊어지지만 그곳에 아픔과 침묵의 눈물을 흘리며 빛을 내뿜는다. 촛불은 가장 내면화된 불이다.

촛불은 항상 수직으로 타오른다. 불꽃은 세상을 검게 물들인 뇌물, 청탁, 협잡 등의 온갖 죄악을 태우고 수직으로 솟아오른다. 곧게 타오르는 불꽃은 악취를 풍기며 네 발로 기어 다니는 짐승 인간을 바로 세워 직립인간이 되도록 활활 타오른다. 설령 촛불의 외모가 가냘프다고 심지에 심지를 맞대어도 불꽃은 제가 잘났다고 도드라지지 않고 두 불꽃은 하나로 더욱 커져서 다시 위를 향하여 비상한다.

촛불은 이렇게 소박하고 순수하다. 이런 촛불이 탁탁 소리를 내며 투덜거린다. 아니 울음 운다.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온 울분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울음 운다. 그 울음소리를 속으로 꾹꾹 삼키며 눈물을 흘린다.

급기야 촛불의 행렬이 노도처럼 넘실거렸다. 그 파도의 심연에는 답답하고, 원통하고, 서러운 마음이 가득하였으리라. 그렇지만 어떤 폭력이나 물리적인 충돌도 없었다. 지고로 승화된 아름다운 모습이다. 연약한 불꽃은 완고함을 깨뜨리고, 부드러운 열기는 차가운 마음을 녹인다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촛불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불꽃은 불순물과 온갖 죄악을 태워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이룰 것이다. 촛불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오탁된 사회를 씻어내고 우리의 눈물까지 닦아줄 것이다. 촛불은 내일을 향한 희망이며, 인간 본연의 심전(心田)으로의 복귀이다.

촛불 위에서 하얗게 피어오르는 빛, 이 빛은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배달민족의 순결한 빛이며 동방의 빛이다. 우리는 이 고요한 빛을 보존하고, 앞으로 이어 나가도록 촛불을 밝혀야 하리라. 너와 내가 흘리는 눈물은 강을 이루고 화엄의 바다를 이뤘다. 하나 둘 모여든 작은 촛불은 횃불이 되고 화톳불이 되고 원자로가 되었다. 이렇게 손과 손에 촛불을 든 100만 시민들의 불꽃, 바로 화엄의 꽃이다.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촛불을 높이 들었다. 여기에는 내 안에 나라가 있고 나라 안에 내가 있으며 백성이 곧 나라요 나라가 곧 백성이라는, '일중일체다중일 일즉일체다즉일(一中一切多中一 一卽一切多卽一)'의 화엄의 법계연기(法界緣起)의 마음이 담겨있다.

이렇게 광명한 화엄의 불꽃이 바람이 분다고 꺼지겠는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끝없이 펼쳐진 화엄의 바다가 바람이 분다고 마르겠는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백만 아니 5천만 국민이 한 마음으로 밝힌 화엄의 촛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발언대

불교계 탈핵운동 본격 시작

지난 11월 21일 불교계선 탈핵 관련 세미나가 2차례 연이어 열렸다. '생명 · 탈핵 실크로드 준비단' 공식 출범식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주최 '지진은 말한다, 잘가라 핵발전소!' 토론회다. 전문가들은 핵발전소 문제는 지구촌이 합심해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라는 데 공의를 모았다. 〈편집자주〉

핵발전소 문제는 인류의 '공동과제'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물리학)

핵에너지는 인류의 긴 진화의 과정을 통해 한 번도 마주쳐본 일이 없는 전혀 새로운 부류의 존재이기에 인류의 직감에 의해 그 위험성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잘 관리하기만하면 이 위력이 유용한 에너지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값싸고 풍부하면서도 매우 깨끗한 에너지란 이미지가 바로 그것이다. 핵에너지가 지닌 근원적 위험성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인류의 본능적 직감 안에 각인될 기회가 없었기에, 인간은 오로지 이성적 계산 만에 의존해 그 위험성을 확인하게 됐다. 이러한 계산이 긍정적 결과를 주기만 하면 쉽게 맹신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실제로 후쿠시마 참사를 비롯한 몇몇 대형 참사들이 이러한 이성적 접근 자세의 부적절성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집단과 그리고 이를 신뢰하는 정책 입안자들은 여전히 지엽적인 보완 조처만으로 넘어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린 지금 결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물건'인 핵에너지를 폐기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에너지 중독서 벗어나 저에너지 고효율의 문명을 새로 마련하는 일에 시급히 착수해야한다.

이것은 비단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에 함께 살고 있는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임을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작은 땅 위에 가장 높은 핵시설 밀도를 지님으로써 일차적 위험을 느끼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직 한 기의 핵시설도 가지지 않아 이러한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않은 나라들의 국민들에게도 일단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공동 운명체로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이들과 핵에너지 폐기 운동을 함께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본다.

항상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다



김익중
동국대 교수

지진에 대한 평가는 다음 2가지 질문으로 수렴된다. 첫째, 우리나라 핵전 부지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올 수 있는지, 둘째, 6.5로 내진 설계된 핵전들이 수 십 년이 지난 현재도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다.

지진계는 원자로 건물 내부와 외부에 각각 위치해있는데, 경주 지진 당시 월성1호기의 원자로 건물 외부에 위치한 자유장 지진계는 고장나있었다. 그러나 지진 다음날인 2016년 9월 13일 필자가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 한수원은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 지진 후 4시간이 지나서야 월성 1,2,3,4호기 원전을 수동으로 정지시킨 이유에 대한 야당의원의 질문에 한수원 담당자들은 지진 스펙트럼 값을 해석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그러나 약 2주 후 국정감사서 지진계 고장사실이 드러나자 이 문제를 대처하느라 시간이 걸렸던 사실을 인정했다.

항상 이런 식이다. 일단 숨긴다. 그러다가 들키면 들킨 만큼만 인정한다. 아마 월성1호기 자유장 지진계측계의 고장 사실은 규제기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진 이후 국회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규제기관 관련자들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일단 숨기는 습관은 원자력계 전체가 공유하는 듯하다.

9월 12일 경주지진 이후 440회가 넘는 여진이 3주째 지속되고 있다. 진도 6.5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원전이라지만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수 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성능을 유지하는지는 조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규모 5.8의 지진이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서 발생했다. 또한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팩트다. 나는 이 정도 팩트라면 우리 국민이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글은 녹색평론 151호에 실린 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社說

전통문화 수호에 불자 공감대 높여야

최근 봉은사 인근 105층 규모의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함께 대규모 광역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된다고 한다. 버스환승센터와 통합철도역사, 주차장, 상업문화시설 등 축구장 60개를 합친 규모다.

불교계 안팎에서는 인근 전통사찰 봉은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봉은사 인근 지대가 연약지반이란 우려에서다. 이미 2015년 봉은사 옆 삼성중앙역 시공 당시 싱크홀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여기에 기존 현대차 GBC로 인한 빛반사와 일조량 감소로 문화재 보존 및 사찰환경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우려 속에 대형 공사가 속속 진행되고 있지만 불교계 여론은 미지근하기만 하다.

봉은사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 측이 주민소환운동을 펼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섯부른 강경 대응이 불교계 망신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여론이 뜨겁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불교계의 어거지 행동으로 여겨질까 해서다.

서울시장 주민소환운동 서명에는 100만명 이상이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탈된 한전부지, 현재 GBC부지에 대한 환수 정당성과 봉은사를 비롯한 전통문화 공간의 보존에 대한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가 많아야 한다.

불교계는 천성산 터널 공사 당시 지율스님의 단식과 함께 정토회 등 불교단체가 지하철 역사에서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친 것을 기억한다. 봉은사 일대의 전통 불교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 대중의 공감대를 높이고, 모든 대중이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주민소환운동을 잠시 접고 사전 예비조사와 여론 형성을 위한 밑작업을 활발히 펴야 한다.

파라미타 20돌에 부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이하 파라미타)가 20살 생일을 맞았다. 1996년 조계종이 청소년 포교를 위해 대중 공의를 모아 출범한 파라미타는 불교를 대표하는 청소년 포교 단체다.

파라미타는 20년 동안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라는 표어 아래 1문화재 1지킴이 · 문화재 모니터 · 우리역사 바로알기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 건강지킴이 · 연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11월 20일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는 파라미타 발전 계획인 '파라미타 점핑(Paramita Jumping)'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파라미타는 △학교분회 · 사찰연계를 통한 청소년포교 동반성장 △현재 23곳인 초교분회를 2026년까지 100곳으로 확대 △전국 교원대학에 파라미타 대학생 그룹 마련 등을 향후 비젼으로 제시했다.

현재 한국불교에게 어린이 · 청소년 포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국갤럽의 통계에 따르면 세대 전승에 있어서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불리하다. 10~30대를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실제 연령별로 보면 불교는 10~20대가 전체 불교인구의 10%, 30대는 11%에 불과하다. 반면 50~60대 인구는 각각 30%를 상회하고 있다. '가족 중심의 종교'로 고착화되며 개종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재 한국의 종교 상황을 감안하면 어린이 · 청소년 포교는 한국불교가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파라미타가 가지는 책임은 막중하다.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통해 바른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뛰어난 불교 인재로 양성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20돌을 맞은 파라미타가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단체가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이 광고는 본사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으며 광고주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승려대회와 종헌 · 종법 제정을 통해서 본

94년 宗亂 주역들의 기만 선동과 廢宗행위

94년 宗亂 주역들은 4월 10일 전국승려대회(이하 '4 · 10 승려대회'로 약칭함)를 개최하여 종정 불신임, 개혁회의 출범, 총무원 청사 점령 등을 결의하고, 운집대중의 실력행사를 통해 불교적 질서를 파괴한 것은 구성원의 절대적인 기본권 존중, 如法和合羯磨(dhammenā-sammagga-kammaṃ)의 원리와 원칙에서 용인될 수가 없다. 나아가 도법 본부장의 100인 대중공사 방식은 석존의 법 · 율과 종헌 · 종법제도상 인정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갈마법에 연원하는 한국 사찰 전래의 올바른 대중공사 방식에도 반한다. 이하 94년 종란 주역들의 대중 기만 선동, 종정 불신임 등 각종 廢宗행위와 그들의 전력과 계보를 밝히고자 한다.

1. 94년 宗難주역들의 대중기만 선동과 종단장악

1.1. 박탄성 4 · 10 승려대회 봉행위원장(이하 '박 위원장'으로 약칭함)은 94년 宗亂의 사실상 최고 책임자이다. 그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에서 "정신적 혼동과 방황으로 시달리는 중생들에게 '안심입명의 등불'을 밝혀주어야 하고, 연기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화합공존의 정신문명의 새벽'을 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혜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자에게 감화를 받고자 합니다. … '인과의 도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개혁의 실천은 '불교적 양심'과 행동에 기초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자신의 인사말과는 상반된 반불교적 비법적인 4 · 10 승려대회의 결의에 의해 출범한 개혁회의 총무원장으로서 승단에서 있을 수 없는 '인적청산' 과정으로 치탈(9), 재적(12), 공권정지(17) 등 총 143명에 대한 비법의 징계를 했다. 그러니까 박 위원장과 월서스님 등 정금오 대종사 문도는 80년 10 · 27 법난과 90년대 세 차례 宗亂 때 치탈(멸빈) 67(1962~2000년까지 전체 통계 141명 중 47%), 재적 66명(동 전체통계 142명의 46%), 공권정지 158명(동 전체통계 240명의 66%)명을 징계하고, 현재까지 치탈(멸빈)사면 내지 재심복권을 반대해왔다.

1.2. 범종추의 3인 공동대표의 한 사람인 도법스님은 4 · 10 승려대회의 단상에 오른 5인의 정금오 문도의 한 사람으로서 종단개혁의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청사진의 요지 가운데는 ① 개혁회의 정관(개혁회의법)은 봉행위에서 심의 확정되었으므로 봉행위의 집행부를 대중스님들께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개혁회의 정관을 추인해 줄 것, ② "종헌 · 종법과 위계질서 존중을 위해 언제나 원로스님들의 뜻을 존중"할 것이며, ③ "전 종단의 화합과 중흥을 위해 개혁회의 운영방침은 '원로스님들의 뜻을 수렴할 것'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④ 개혁회의 정관을 통해서 본 6개월 개혁과정에서 원로의원들을 위시해서 종단의 원로들의 역할은 아예 배제되고, ⑤ 제도개혁의 결과는 「원로회의 중요 종책 조정권」과 「원로의원은 원로회의 동의 없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한 종헌규정」 및 「종법안 제출권」 등을 삭제하였다. 이는 ⑥자신이 강조한 '양심'이 없는 무참괴승(無慙愧僧)이자 군양승(群羊僧)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대중기만이자 선동이었다. 따라서 원로회의에서 수차 결의를 하여 복원을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듣지 않고 있다.

2. 94년 宗亂 주역들의 종정 불신임 등 廢宗행위

2.1. 94년 宗亂을 전후해서 등장한 5인의 종정 가운데, ⑦ 서암 · 월하 두 분 종정은 종헌 종법에 반하는 승려대회와 같은 불법집회의 불신임에 의해 하야했다. ⑧ 백양사 출신으로 용성문도이기도 한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은 위 두 분 종정에 대한 비법의 불신임을 주도하고 종정의 자리에 오르지만(1999), 인과의 업보와 병마에 시달리다가 입적했다(2001). ⑨ 역시 백양사 출신으로 용성문도이기도 한 법전 종정은 '위대한 대중공사'를 통해 성안한 「종교평화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을 재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법 본부장의 공격을 받았고(2011), ⑩ 추대식도 갖지 않은 진제 종정 역시 같은 사안으로 불신임설이 나돌았다(2012. 2).(도법 본부장은 동 선언 대신 진제종정 추대식 날(2012. 3. 28.)을 기해 민족화해 · 평화통일 · 한반도 생명 평화 공동체 실현이란 1000일 정진결사 입제를 하고,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자성과 쇄신 결사 실현을 위한 '꺼지지 않는 생명평화의 등불'을 표방한다고 했다.) 특히 ⑪서암 종정은 원로회의에서 불신임한 바가 없음에도 승려대회와 중앙종회에서 대중을 기만해가며 「원로회의 불신임 동의 결의」를 하고(1994), ⑫ 월하 종정 불신임은 도법 본부장이 재선을 거부당한 자신의 은사인 총무원장의 권한 대행으로써 감행했다(1998). 현재의 조계종단은 종통의 승계자인 종정도, 원로의원도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없는 실정이다. 종정은 언제 불신임되고 공격을 받을지 모르고, 원로의원들은 언제 또 호법부와 종회의원들의 징계협박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2.2. 94년 宗亂 주역들의 대표적인 廢佛 反宗행위는 다음과 같다. ⑬ 94년 宗亂의 주역들은 종단개혁이념을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 제거와 민주적 발전의 초석마련 즉 민주화를 개혁이념(개혁회의 제3조)으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단행한 결과는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 제거는커녕 은처승 · 도박승과 같은 오도승(汚道僧)을 양산했으며, ⑭ 94년 개혁회의가 원로회의의 고유한 「중요 종책 조정권」과 「원로의원은 원로회의 동의 없이 징계를 받지 않을 권한」 및 「원로회의 종법안 제출권」을 삭제했다. 이는 유능 총명한 장로(원로) 중심의 종단통활 기능을 중앙종회 중심으로 역행시켜 중진들이 종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⑮ 4바라이戒(淫行 · 竊盜 · 殺人 · 大妄語) 범계(犯戒) 처벌을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함으로써 출가 이후 호적상 결혼한 승려도 제재(制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상은 출가승단인 조계종단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파괴이자 50년대 한국불교와 승단정화를 통해 출가승단의 법통을 회복한 정화이념에 반한다. ⑯ 승니법의 승려정치운동관여 여성관련 규정의 삭제 등은 승려의 타락과 종단의 파괴로 직결되며, ⑰ 백양사 방장 49재 전날 밤 승려호텔 도박사건에서 고발한 승려는 제적시키고. 도박한 승려들은 공권정지 1, 2년 정도로 하였다. 이는 세간법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불교닷컴》 2012. 07. 12. 〈승려도박 벌금 300만원, 몰카 촬영 징역 1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판사: 이성용) 10일 공판에서 도박스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몰카 촬영자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⑱ 4바라이犯의 처벌에서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종단의 자주화에 반한다.

2.3. ⑲ 2012년 年齡과 僧臘을 法階로 통일하는 종헌개정안 제출과 잘못된 전통을 수립하기 위한 100인 대중공사와 사부대중위원회의 출범이다. 자성과 쇄신본부(본부장: 도법)는 백양사 방장 49재 전날 밤 승려호텔 도박 사건을 기해 종단쇄신안으로 僧臘과 年齡을 법계로 통일하는 기획하여 중앙종회(제안자: 법안스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원로회의에서 종단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부결되었다. 또한 ⑳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파동을 기해 승속으로 구성된 100인 대중공사(상임위원장: 도법)를 통해 과거사 정리와 94년 치탈처분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사부대중위원회(위원장: 도법)를 출범시켰다. 불교승단의 법전인 율장과 현행 종단법제도상 비구에 ㉑ 대한 징계와 解罪 문제는 같은 出家衆인 비구니도 참석할 수 없다. 그런데 비구니와 在家衆까지 참석한 100인 대중공사와 사부대중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㉒ 도법본부장 등 94년 宗亂 주역들이 94년 제도개혁에서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행해온 불교법률과 종헌질서를 파괴하는 법제정과 종단법질서를 어지럽혀 온 廢宗행위의 일환이다.

3. 94년 宗亂 주역들의 계보와 전력

3.1. 도법스님은 94년 서의현 3선 문제를 94년 宗亂으로 비화시킨 1994. 4. 5. 원로회의 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83년 신흥사 살인 사건, 88년 봉은사 주지 분쟁, 91년 총무원 두 동강, 94년 연주암 사태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도법 스님 문중은 ① 90년대 네 차례 宗亂을 비롯해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의 주된 책임이 있는 문도이다. ② 1969년 9월 선학원 승려대회를 통해 등장한 총무원(원장: 최모)의 1970년 강남 봉은사 경내지 1차 매매계약으로 호법 호국의 역사적인 도량 파괴 및 막대한 재산 손실 발단, ③ 70년대 후반 조계사(이서옹 전 종정)와 개운사(대표: 송모스님) 간 2년 7개월여 간 종권분쟁과 ④ 문제의 1980년 10 · 27 법난 유발, ⑤ 1991년 제7대 종정 추대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원인을 제공한 1988년 3월 중앙종회(의장: 유모)의 종정추대에 관한 종헌개정과 원로회의(의장: 최모)의 동 종헌개정안 반려, ⑥ 불국사가 주도한 91년 9 · 26 통도사 승려대회 개최를 통해 강남 총무원 개원(원장: 채벽암)과 강남북 총무원 시대 초래, ⑦ 강남 총무원의 범어사 천기신(법명: 화엄) 주지 임명과 범어사 동산문도 간 갈등과 대립 초래, ⑧ 선우도량 5인 대표가운데 한 사람인 범어사 禪院長(인모)의 화엄 주지 측 범어사 불법 점유 가담과 산중 유나 입방을 거부하고, ⑨ 합법적인 정관 주지가 부임하자 동 선원장 선우는 도법 본부장과 같은 대중공사를 통해 산중 유나 배제를 시도했다. 이는 ⑩ 도법 본부장과 그 徒黨들이 다른 산중에까지 어떤 반불교적 비법적인 작용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4. 서암, 월하 종정 불신임과 도법스님의 변

4.1. 도법 본부장은 94년 서암 종정 불신임과 관련하여, "이는 한국불교의 부끄러운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상이다. 개혁과정에 남긴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바로 불신임 결의가 아닌가 한다. 여러 가지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를 막지 못한 것은 개인적으로나 교단적으로 불행스럽고 괴로운 일이다."라고 했다. 그랬던 그가 98년 월하 종정 불신임을 감행하고, "월하 종정 불신임은 전국승려대회의 결의사항이다. 그 누구도 승려대회의 결의사항을 바꿀 수 없다. … (자신도) 붓다의 삶처럼 살고 싶다.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대중을 자유롭게 하는데 그 분은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다. 붓다의 길을 나의 길로 걷고 싶다."라고 말했다. 도법 자신과 자기 문도가 사실상 주도한 서암 종정과 월하 종정 불신임에 대한 이상과 같은 도법스님의 변은 그가 위선과 가면으로 대중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不死憍亂의 일면이다.

5. 월하 종정 불신임과 '붓다로 살고 싶다'

5.1. 도법 본부장은 월하 종정 불신임 이후 '붓다로 살고 싶다.'라고 말한 그가 어떻게 다음에 나오는 종정의 소관도 사안의 재가와 관련하여 법정 종정을 공격하고, 역시 같은 사안으로 추대식도 갖지 않은 진제종정 불신임 '설'을 나돌게 했을까? 라는 것이다. 또한 종단집회와 결의의 3대 원칙인 如法和合羯磨에 반하는 非法不和갈마의 승려대회에서 월하 종정 불신임을 감행하고 나서 이상과 같은 참으로 거룩한 말을 내뱉은 이유가 궁금하다. 문제는 서암 종정을 불신임한 4 · 10 승려대회와 월하 종정을 불신임한 98년 11 · 30 승려대회가 석존의 법 · 율과 가르침 및 종헌 · 종법에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석존의 삶에는 종단 화합법과 분쟁 해결법(종헌 제9조 具足戒/僧殘法 제10 破僧違諫戒와 七滅諍法)을 위반한 승려대회를 개최, 종정 불신임과 개혁회의 출범 등의 결의, 운집대중을 선동해서 종헌기관인 총무원 청사 점령, 자신들과 뜻을 달리하는 승려들에 대한 궐석심판에 의한 치탈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그가 붓다의 길을 나의 길로 가고 싶다'고 말한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6. 종교평화 불교인 선언 법전종정 공격

6.1. 도법이 법전 종정에게 보낸 편지의 "불교와 종지(종헌 제2조)의 존재이유인 뭇 생명의 안락과 행복의 실현하려면 종지정신을 어떻게 실현해야합니까."에 대해서 살펴보자. 조계종 종지(종헌 제2조)의 석존의 근본교리는 四聖諦, 緣起法, 四法印, 五蘊說, 業說 등이다. 첫째, 그가 緣起法의 인과의 도리를 외면하고 論理的 關係만을 내세우는 것은 언행의 책임은 지지 않고 각종 명분을 내세워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석존께서 사제법의 제행무상과 涅槃寂靜을 설하신 것은, 苦集(生死)의 流轉에서 還滅의 멸도(滅道)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還滅의 멸도(滅道)의 길 즉 涅槃寂靜의 寂靜(santi=평화)과 八正道의 길을 가지 않고, 생사流轉의 길을 가고 있다. 예컨대, 불교승가의 쟁사 해결법(종헌 제9조 구족계/칠멸쟁법) 등 불설에 반하는 승려대회와 같은 불법집회에서 석존의 법 · 율과 그 가르침에 입각한 敎示(anusāsaṇi, uddesa)를 내린 종정 불신임과 총무원 청사 점령과 탈환이다.

6.2. 동 편지는 여섯째 항에서 "부처님의 유언인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의 정신으로 볼 때 어떤 인물, 어떤 직위보다도 더 위대한 근본은 법이기 때문에 마땅히 종헌종법 정신으로 종단을 운영해야 합니다."라며 종정이라도 법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 아래 "높고 힘 있는 직위의 스님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허용되고 인정받는 문제들이 종지 정신과 예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묵연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인지, 그 본의를 묻습니다."라고 했다. 먼저 그는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을 부처님의 유언이라고 했으나 이는 부처님의 유언이 아니고, 『大智度論』에 나오는 法의 四依法의 하나다.(『대지도론』 권9(『대정장』 권25, 125상); 『長阿含經』 권3 (『대정장』 권1, 18상, 4大敎法 참조) 그 의미는 법에 의지하고, 특수한 개인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94년 宗亂을 야기하여 廢佛反宗행위를 자행하고, 불설을 攪亂 · 歪曲하는 자와 같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다. 도법 본부장은 각종 글에서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을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해왔다. 그가 2000년 치탈사면 여론이 비등했을 때 "누가 화합을 반대하는가."라는 글에서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을 통해 사면 여론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불교신문≫ 2000. 2). 불교승단에 어떤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는 人의 四依法의 아라한 등 四向四果와 승단 지도자의 여법한 교시에 합일하게 되어 있는 갈마의 원칙에 잘 나타난다.

7. 전도 선언의 본 취지와 절집의 대중공사

7.1. 동 편지는 "부처님의 출현 목적인 뭇 생명의 행복과 안락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실천해야합니까. 또는 종정예하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야 합니까."라며 장황하게 불교와 종지의 존재이유를 묻고 있다. 그러나 전도 선언의 "부처님의 출현 목적인 뭇 생명의 행복과 안락을 실현"(마성스님, 「傳道宣言에 나타난 布敎의 理念」; 『잡아함경』 권39, 제1096경 「繩索經」(『대정장』 2, p.288a-b); SN 4.1.4-5(SN Ⅰ, pp. 105-6); Vin 1, pp.20-21; 전재성 역주, 『쌍윳따 니까야』 제1권(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1999), pp.242-243 참조.)을 위한 핵심은 '뭇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할 수 있는 자'는 첫 번째가 해탈한 자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집단이 아닌 혼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처음, 중간, 끝도 좋고, 뜻과 문장이 훌륭한 설법이고, 네 번째는 그래서 오로지 깨끗하고 청정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깨달아 해탈해서 법을 설할 法力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세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당이다. "진실한 수행자는 어떤 黨派(vagga)에도 속하지 않고(Theragāthā, 875), 신앙이 있는 사람은 群衆 가운데 있지만, 무리에 盲從하지 않는다."(Sn, 371)는 가르침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7.2. 동 편지의 '불교집안의 위대한 전통인 대중공사 방식'에 대해서 보자. 먼저 종정의 재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대한 대외적인 사안을 원로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불교집안의 위대한 대중공사 방식의 100인 대중공사(상임위원장: 도법)와 사부대중위원회(위원장: 도법)의 구성원과 결의과정 및 일감스님 정리 등 그 전말을 통해서 보는 한 그러한 대중공사의 결의방법은 율장 어디에도 그 전거가 없고, 사찰과 종단의 올바른 전통에서 용인될 수 없다.(졸고, 「승쟁에 대한 석존의 교계와 4. 10 승려대회」, 『승가화합과 한국불교의 미래』(서울: 혜민기획, 2005), pp.250-255) 그렇다면 그 위대한 대중공사 방식을 통해 성안한 동 선언은 절집에서는 수긍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종통의 승계자인 종정의 소관도 아닌 사안을 재가하지 않았다고 본부장이 동 편지를 통해 종정을 공격했다. 그러자 법안스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종정을 공격하고, 재가불자까지 답변하라고 나섰는가하면 ≪한겨레신문≫은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

2016. 11. 23.

德山 園頭 合掌 (대한불교 조계종 전 원로회의 사무처장 겸 서암 전 종정사서실장)